

1995 인구주택총조사 종합분석사업 보고서(7-2)

## 인구이동과 농촌지역 인구 특성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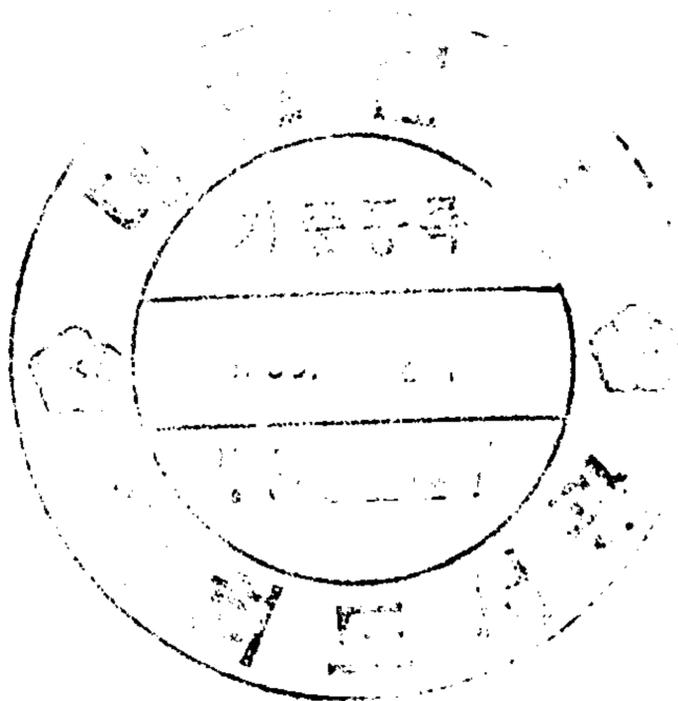
연구기관 : 동아대 인구 및 지역발전연구소

김남일 (동아대 교수)

최 순 (동아대 교수)

박우순 (동아대 교수)

양기석 (동아대 교수)



통 계 청

## 머 리 말

이 보고서는 1995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 「1995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의 심층분석결과를 수록한 것으로서 조사기획, 조사준비, 조사실시, 자료처리, 자료집계 그리고 23권의 최종보고서 발간에 이르기까지 5년간의 방대한 사업을 마무리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는 국가정책수립의 기본 자료로 이용되고 있음은 물론, 여러 인구, 사회 및 경제현상을 파악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자료로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구주택총조사가 전국의 모든 인구와 주택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그 중 일부 항목은 표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다른 표본조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규모가 커 자료의 대표성과 유용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의 광범위한 활용과 아울러 자료의 심층적인 분석을 통한 다양한 연구결과의 도출은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센서스를 실시하는 모든 국가에서 주요과제의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저희 통계청에서는 1995 인구주택총조사의 자료처리가 마무리됨과 동시에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총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적 연구사업을 실시하였으며, 7개 주제에 걸친 연구결과를 각각 개별 보고서에 수록하였습니다.

주제별 보고서 중 1권에서는 그동안 우리 나라가 경험해 온 급속한 인구변동의 결과로 나타난 성별 인구구조, 가구 및 가족, 노인, 교육, 노동력의 특성과 그 변화 양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고, 아울러 그러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함축하는 사회정책적 의미와 앞으로의 전망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권에서는 과거 30여년간 산업화, 도시화의 과정에서 급격히 변모해 온 농촌사회 제반 변동의 실상과 변화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하여 농촌인구의 특성과 농촌생활의 본질에 대해 면밀한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분석결과를 토대로 농촌 인구문제에 관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3권에서는 지역별 여성의 인구학적 특성, 여성과 가족관계, 여성의 경제활동구조 등 여성인구의 특성과 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하여 여성과 관련한 제반 여건을 평가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별 특성에 따른 여성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권에서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도시지역의 주택수급과 주거

실태를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대도시 주택 및 주거환경을 평가하였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주택정책의 성과 및 문제점을 진단, 향후 주택정책의 추진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5권에서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의 통근학 발생·도착량, 이용교통수단, 소요시간 등 통근학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교통부문의 장단기 개선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6권에서는 기존의 각종 가구추계기법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적용하여 각 가구추계기법의 현실성, 타당성 및 기본가정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검토결과를 토대로 우리 나라 실정에 적용가능한 가구추계기법을 선택하여 가구규모 및 유형별 장래 가구수의 추계작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권에서는 1960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직업구조와 직업에 따른 사회계층구조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체계적으로 밝혀내고 있으며, 특히 1990년대 이후 직업구조의 변화를 최근 우리 사회의 정보화 추세와 연관시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주제에 관한 연구의 수행을 위해서 관련 분야별로 많은 연구자들께서 수고해 주셨으며, 그 동안 바쁘신 중에도 심혈을 기울여 훌륭한 연구결과를 이끌어 내 주신 연구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우리나라의 인구, 사회 및 경제부문에 걸친 제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아울러 각종 경제, 사회정책 수립 및 학술연구에 필요한 자료로서 널리 이용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끝으로 「1995 인구주택총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97년 12월

통 계 청 장  
김 병 일

## <목 차>

|                                      |     |
|--------------------------------------|-----|
| 1. 서론 .....                          | 1   |
| 2. 자료 및 연구방법 .....                   | 4   |
| 3. 인구이동과 도시화 .....                   | 9   |
| 3.1 인구이동의 추정과 도시화 .....              | 9   |
| 3.1.1 인구이동의 추정 .....                 | 9   |
| 3.1.2 인구이동의 흐름 .....                 | 15  |
| 3.1.3 도시화와 군부 인구의 감소 .....           | 23  |
| 3.1.4 시도별 인구변화와 분포의 불균형 .....        | 32  |
| 3.2 이동인구의 특성에 관한 분석 .....            | 36  |
| 3.3 도시 농촌간 전출 및 전입인구의 특성 비교분석 .....  | 51  |
| 4. 인구구조의 변화 .....                    | 57  |
| 4.1. 성·연령별 인구구조 .....                | 58  |
| 4.2. 지역특성과 성·연령별 인구구조 .....          | 65  |
| 4.3. 연령구성의 변화에 따른 농촌인구의 몇가지 특성 ..... | 67  |
| 4.4 혼인상태별 인구구성의 변화 .....             | 72  |
| 4.5 교육수준 .....                       | 75  |
| 4.6 경제활동과 취업구조 .....                 | 80  |
| 5. 농촌 지역별 인구 주요특성의 분포 .....          | 86  |
| 5.1 인구규모별 군의 분포 .....                | 86  |
| 5.2 인구의 성 및 연령에 따른 군의 분포 .....       | 91  |
| 5.3 인구성장 수준과 지역특성의 연관성 .....         | 99  |
| 6. 농촌의 가구구성과 가족유형의 변화 .....          | 105 |
| 6.1 가구구성 .....                       | 106 |
| 6.2 가족의 구성과 가족형태 .....               | 111 |
| 6.3 농촌 가구의 특성 .....                  | 118 |
| 6.4 가구유형별 가구의 경제활동 .....             | 123 |
| 7. 결론 및 장래전망 .....                   | 128 |
| 8. 참고문헌 .....                        | 134 |

## <표목차>

|  |    |
|--|----|
| <표 3.1> 이사인구비율과 성비 .....   | 10 |
| <표 3.2> 시·도내 및 시·도간 이동인구와 이동율, 1965-95 .....                     | 12 |
| <표 3.3 > 시·도별 시·도내 구시군간 이동율, 1965-95 .....                       | 13 |
| <표 3.4> 시·도간 이동인구의 이동율 .....                                     | 14 |
| <표 3.5> 시도간 전출인구의 주요 목적지별 구성비, 1975-95. ....                     | 17 |
| <표 3.6> 시도간 전입인구의 주요 출발지별 구성비, 1975-95. ....                     | 19 |
| <표 3.7> 주요 이동흐름별 이동 효율과 조인구 교환율, 1980-95 .....                   | 22 |
| <표 3.8> 시·군부의 연평균 증가율 .....                                      | 24 |
| <표 3.9> 도시 규모별 연평균 증가율과 그 구성비 .....                              | 25 |
| <표 3.10> 기간별 시·군부간 전입, 전출 및 순이동인구와 이동율 .....                     | 26 |
| <표 3.11> 기간 및 이동형태별 총이동인구와 이동율 .....                             | 29 |
| <표 3.12> 시·군부 인구변동 중 순인구이동의 비중, 1965-95 .....                    | 30 |
| <표 3.13> 이동형태별 전입 및 전출 지역 구성비, 총이동인구, 1990-95 .....              | 31 |
| <표 3.14> 시·도별 인구분포 변화와 그 구성비 .....                               | 34 |
| <표 3.15> 전국 인구 증가분의 시·도별 비중 .....                                | 35 |
| <표 3.16> 시·도별 증가인구와 순이동인구의 비교, 1970-95. ....                     | 35 |
| <표 3.17> 시·도별 인구 불균형 분포의 측정, 1970-95. ....                       | 36 |
| <표 3.18> 이동인구의 특성별 분포, 1990-95 .....                             | 40 |
| <표 3.19> 시·도 및 특성별 전출입인구 구조와 순이동이 인구구조에<br>미치는 영향, 1990-95. .... | 47 |
| <표 3.20> 이동형태별 이동인구의 특성 분포, 1990-95 .....                        | 56 |
| <표 4.1> 행정구역별 인구분포 .....   | 57 |
| <표 4.2> 연도별 성비의 변화: 1975-95 .....                                | 60 |
| <표 4.3> 거주지역별 인구의 연령구성과 관련된 주요지표의 변화 .....                       | 68 |
| <표 4.4> 가임여성인구의 변동추이 .....                                       | 69 |
| <표 4.5> 학령인구(6-21세)의 변동: 1970-95 .....                           | 71 |
| <표 4.6> 성별 초혼연령의 변동: 1955-95 .....                               | 72 |
| <표 4.7> 성별·연령별 유배우율의 변동: 1966-95 .....                           | 74 |

|   |     |
|---|-----|
| <표 4.8> 30-34세 인구의 교육수준: 1975-95, 면부·시부인구 .....                   | 76  |
| <표 4.9> 거주지역별 30-34세 인구의 교육수준 .....                               | 79  |
| <표 4.10> 성별 면부인구의 경제활동상태, 1975-95 .....                           | 80  |
| <표 4.11.1>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율: 1975 및 1995 .....                        | 82  |
| <표 4.11.2>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율: 1975 및 1995 .....                        | 82  |
| <표 4.12> 산업별 취업자 직업구성비율: 1975 및 1995 .....                        | 83  |
| <표 4.13> 직업별 취업자 구성비율: 1975 및 1995 .....                          | 84  |
| <표 4.14> 성별 면부인구의 고용상태의 변화, 1975-95 .....                         | 84  |
| <표 5.1> 인구규모에 따른 군의 수, 1966-95 .....                              | 88  |
| <표 5.2> 연평균 인구 증가율에 따른 군의 수 .....                                 | 88  |
| <표 5.3> 평균 가구원수별 군의 분포 .....                                      | 90  |
| <표 5.4> 각 군 1인 가구비율의 분포, 1985-95. ....                            | 90  |
| <표 5.5> 각 군의 성비의 분포, 1985-95 .....                                | 92  |
| <표 5.6> 각 군의 0-14세 인구 구성비의 분포 .....                               | 93  |
| <표 5.7> 각 군의 15-64세 인구 구성비의 분포 .....                              | 93  |
| <표 5.8> 각 군의 65세 이상 인구구성비의 분포 .....                               | 94  |
| <표 5.9> 각 군 여자 총인구에 대한 주요 출산연령총(25-34세)<br>인구의 구성비, 1985-95. .... | 95  |
| <표 5.10> 각 군 20-24세 연령계층 인구의 성비, 1985-90 .....                    | 95  |
| <표 5.11> 각 군 혼인적령기 인구(20-34세)의 성비, 1985-95. ....                  | 96  |
| <표 5.12> 각 군 교육수준의 분포, 1985-95. ....                              | 98  |
| <표 5.13> 각 군 인구 1000명당 광공업 취업자수의 분포, 1985-95. ....                | 98  |
| <표 5.14> 인구증가율 최상위군과 최하위군 간의 인구, 사회, 경제적<br>특성 비교, 1995. ....     | 99  |
| <표 5.15> 표본전체 표준화된 정준판별계수 (Total-sample) .....                    | 103 |
| <표 5.16> 표준화된 변수와 판별함수에 의한 표본전체 집단평균 .....                        | 103 |
| <표 5.17> 특성근(Eigenvalue)에 의한 중요도의 측정 .....                        | 104 |
| <표 5.18> 전체 정준구조계수(Total canonical structure) .....               | 104 |
| <표 5.19> 합동 집단내 정준구조계수 .....                                      | 104 |
| <표 6.1> 시부와 면부간 일반가구 및 친족가구의 평균가구원수, 1960-96 .....                | 107 |

|  |     |
|--|-----|
| <표 6.2> 총인구중 친족가구와 1인가구 거주 인구의 비율 및 일반가구중<br>1인가구와 비혈연 가구의 구성비율, 1960-95 ..... | 110 |
| <표 6.3.1> 1인가구 가구주의 연령별 분포, 1985-95 .....                                      | 110 |
| <표 6.3.2> 거주지 특성별 1인가구 가구주의 성·연령별 분포, 1995 .....                               | 112 |
| <표 6.4> 친족가구의 세대구성, 1960-95 .....  | 114 |
| <표 6.5> 면부와 시부의 1세대 가구주의 연령분포 .....  | 115 |
| <표 6.6.1> 친족가구의 가족형태, 1970-95 .....  | 117 |
| <표 6.6.2> 핵가족과 직계가족중 1세대가족(부부가족)의 비율, 1970-95 .....                            | 117 |
| <표 6.7> 일반가구중 여성가구주 가구의 비율 .....   | 119 |
| <표 6.8> 일반가구 가구주의 중위연령, 1966-95 .....  | 120 |
| <표 6.9.1> 면부의 일반가구 가구주의 성, 연령 및 혼인상태별 특성, 1995 .....                           | 121 |
| <표 6.9.2> 면부 일반가구 가구주의 성별 연령 및 혼인상태, 1995 .....                                | 121 |
| <표 6.10> 성·연령별 가구주 가구의 유배우율 및 평균가구원수 .....                                     | 123 |
| <표 6.11> 면부 가구주의 성별·가구유형별 경제활동상태 .....   | 124 |
| <표 6.12.1> 면부의 성별·가구유형별 가구주의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율 .....                                | 125 |
| <표 6.12.2> 면부의 성별·가구유형별 가구주의 직업구성 .....  | 125 |
| <표 6.13> 면부의 성별·가구유형별 취업중인 가구주의 고용상태 .....                                     | 126 |
| <부록표 1> 시·도내 구시군간 이동인구 .....   | 135 |
| <부록표 2> 시·도간 이동인구 .....  | 136 |

### <도표 목차>

|  |    |
|--|----|
| <도표 2.1> 인구총조사 5년전 거주지 질문 방법 .....                   | 5  |
| <도표 3.1> 총인구(1995년)와 이동인구(1990-95년) 인구피라미트 .....     | 38 |
| <도표 3.2 > 성 및 연령별 이동율, 1990-95 .....                 | 39 |
| <도표 3.3> 시·군부간 전출 및 전입인구의 성 및 연령별 구성비, 1990-95. .... | 52 |
| <도표 3.4> 성 및 연령별 군부 순이동율, 1990-95 .....              | 53 |
| <도표 4.1> 면부인구의 성별·연령별구조의 변화 .....                    | 64 |
| <도표 4.2> 읍 및 시부의 성별·연령별 인구구조의 변동 .....               | 65 |
| <도표 4.3> 지역특성에 따른 인구피라미트: 1995년 .....                | 66 |

## 1. 서론

한국은 불과 한 세대밖에 안되는 30여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급격한 인구변동을 경험하였다. 대체로 이 기간중 한국이 경험했던 인구변동의 특성은 인구성장률과 분포, 그리고 인구구성의 변화라는 세 측면을 중심으로 관찰해 볼 수 있다.

지난 30여년동안 한국에서 일어났던 가장 괄목할 인구변동은 인구성장의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60년 당시 연평균 3.0%의 높은 인구성장률을 시현하던 한국의 인구는 그간의 노력을 통해 성장속도를 급속하게 둔화시키는데는 성공하였지만, 이 기간중에도 인구의 규모는 크게 증가했다. 즉 1960년에 약 2500만명이던 한국의 인구는 그로부터 35년이 지난 1995년에는 1960년 당시인구의 4/5에 해당하는 약 2000만명이 새로 추가되어 4500만명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크게 늘어났다(통계청, 1997:14). 이 사실은 그 동안 한국사회에서 인구성장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였음을 단적으로 드러내 준다.

그러나 지난 30년동안 한국이 경험했던 인구성장추세는 이를 도시와 농촌별로 구분하여 비교해 보면, 두 지역은 인구성장률과 관련하여 각기 다른 문제를 안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960년 당시만 해도 도시로 분류되는 시부인구는 약 700만명 정도로서 전체인구의 28%에 불과했다. 그러나 1995년에는 한국의 총인구 4460만명 가운데 78.5%가 되는 3500만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따라서 1960-1995년기간중 시부인구는 약 2800만명의 인구가 늘어난 셈이 된다. 이 기간중 우리 나라 전체인구가 약 2000만명 정도가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1960~1995년 기간중 한국의 인구성장은 전적으로 도시인구의 성장이었다 해도 지나친 표현이 되지 않는다. 즉 이 기간중 도시인구는 한국인구의 전체 증가분과 농촌인구의 일부를 흡수하여 형성된 인구라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되지 않을 만큼 전체증가수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이에 반해 실제로 시부인구를 제외한 읍·면 단위의 인구는 1960년의 약 1,800만명으로부터 1995년에는 957만 명으로 크게 감소했다(권태환, 1992:41-42; 통계청, 1997:14). 이 사실은 지난 1960년 이래 한국사회가 급속하게 도시사회로 변모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한국사회는 1960년 이래 극히 짧은 기간에 급격한 공업화와 도시화를 경험했다. 공업화로 인해 우리는 보다 풍요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으며, 도시화는 우리의 삶의 공간을 바꾸어 놓았다. 구체적으로 1960년에는 인구의 28% 정도만이 도시로 분류되는 시부에 살고 있었을 뿐,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72%)는

군부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어업 등 1차산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후 30여년이 지난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인구의 3/4을 훨씬 넘는 대다수 국민이 시부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극히 얼마안되는 적은 비율의 인구만이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사회로 바뀌었다.

급격한 공업화와 도시화는 대부분 한국인의 삶의 공간을 변화시켰으며, 주로 인구의 도시화로 야기된 이러한 공간적 변화로 한국인들은 종래와는 크게 다른 가치속에서 삶을 영위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우리 사회를 지탱시켜 주었던 기존의 사회구조는 부분적으로 많은 체제부적응의 문제를 노출시켰으며, 이로 인해 많은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했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화의 초기단계에서는 시부지역에서 이와같은 문제들이 더 많이 노출되었으나, 현재는 오히려 시부지역보다는 군부지역에서 체제부적응의 문제를 더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관찰되는 농촌문제의 대부분은 그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도시화와 공업화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주로 인구가동으로 야기된 농촌인구의 감소와 인구구조의 불균형은 농촌사회를 크게 변화시켜 놓았기 때문이다. 주로 인구의 이출현상과 관련된 인구가동은 농촌의 기존체제가 갖는 취약성을 더욱 심화시켜 놓았으며, 국민 대다수의 삶의 터전이 농촌에서 도시로 옮겨졌다는 사실은 종래의 촌락공동체가 갖는 의미를 퇴색시켜 삶과 관련된 기존의 가치를 뒤바꾸어 놓게 되었다. 이 상황에서 도시와 농촌은 상호의존적·보완적 관계를 갖기보다는 농촌이 도시에 종속되는 상황으로 발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농촌의 인구는 지역에 따라, 구체적으로 말해서 도시와의 관계에 따라 매우 다른 인구학적 특성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화가 심화될수록 적어도 인구특성면에서 지역간에 이질성을 심화시켜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구특성에 대한 고려없이 획일적으로 이루어지는 농촌정책은 유효성을 상실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책은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수반할 경우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농촌생활과 관련된 각종 복지정책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농촌생활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전제로 한다. 급격히 변모하는 우리나라 농촌사회의 제반 변동의 실상과 유형, 그리고 변화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근 30여년간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인구가동을 농촌의 측면에서 분석해 보고, 동시에 농촌인구의 특성과 농촌생활의 본질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요구한다. 이

분석계획안은 이와같은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제 3장에서 인구이동의 추정과 도시화 추세, 이동인구의 특성, 도시농촌간 전출입 인구의 특성 등을 비교분석하였고, 제 4장에서는 전체 농촌인구의 입장에서 성 및 연령구조, 교육수준, 취업유형, 학령인구와 노인인구 구조에 관한 시계열 자료의 비교를 통해 이들 구조의 변화과정과 이들 변화의 사회·경제적 의미 등을 분석하였다.

개인이나 가구를 분석단위로 한 총괄적 분석에서는 평균적인 농촌의 인구문제는 파악할 수 있으나 이들의 분포에서 볼 수 있는 각 지역단위 고유의 농촌 인구구조문제 등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제 5장에서는 각 지역단위의 농촌 인구문제에 초점을 맞춰 인구구조와 관련된 특성별 지역단위의 분포에 대한 기술적 분석과 다변수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제 6장에서는 가구의 구성과 가족유형의 변화 등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 7장에서는 각 장의 주요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결론으로 정리하고, 농촌 인구문제에 관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모색하였다.

## 2. 자료 및 연구방법

본 연구에는 1960-1995년 기간의 인구총조사 보고서 전국 및 각 시도편과 인구이동편, 그리고 1990년 및 1995년 인구총조사의 2% 표본자료 테이프가 주로 사용되었다. 2% 표본자료는 통계청에서 단순랜덤 추출방법에 의해 추출한 표본으로 승수 없이 사용되었다. 다만 표본인구의 연령 및 성별구조를 검토한 결과 군인 등의 특별조사구 인구가 표본틀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보정을 하지 못하였다. 이외 각 군의 특성에 관한 자료는 각 시도의 통계연감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동인구의 추정에는 인구 총조사의 만 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한 5년전 거주지 자료를 이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이동인구는 인구총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5년간 만 5세이상 인구중의 인구이동을 뜻한다. 0-4세 이동인구를 추정하는 인구학적방법이 있으나, 0-4세 이동인구가 본연구에서 특별한 의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 이의 추정이 생략되었다(U.N., 1970: 34).

인구이동 조사방법상의 차이를 검토키 위해 1970년 이후 1995년까지 인구총조사에서의 5년전 거주지 조사방법을 비교한 바 <도표 2.1>에 제시한 것과 같은 3가지 질문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도표 2.1>에서 제시된 질문형태중에서 b형(1980, 1985)은 a형(1970, 1975년 조사)에서의 두가지 질문을 하나로 통합한 질문이다. a와 b형 모두 질문에 “이곳에서”, “어디에서”등 행정구역단위를 명확히 하지 않았고, 선택형 응답은 “같다” 혹은 “같은 집”으로 일치하지 않으나 조사원 교육을 통하여 적절히 대처할 경우 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c형(1990, 1995년 조사)의 경우 질문방법은 b형과 같으나, 행정구역 개편이 있었을 경우 조사 시점 현재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조사할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1990년과 1995년 조사직전에 큰 규모의 행정구역 개편이 있었고, 이 항목의 조사시 현재와 과거의 행정구역명중 어떤 것을 기입할 것인가에 대한 조사원의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응답자 자신이 5년전 거주지의 행정구역이 현재는 어떻게 변경되었는가를 확실히 모를 경우 발생하는 오차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특히 최근 행정구역이 크게 개편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의 조사방법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도표 2.1> 인구총조사 5년전 거주지 질문 방법

|  |   |  |  |
|--|---|--|--|
| 5년전에도<br>(1970. 10. 1)<br>이곳에 사<br>셨습니까?<br>(※ 5세이상<br>자에게 질문) | 다른 구, 시,<br>군과 외국<br>에서 살던<br>곳은 어디입<br>니까? | 5 세 이 상  | 6살(새는 나이)부터 기입합니다  |
|  |   | 그러면 지금으<br>로부터 5년전<br>(1975. 11. 1)에<br>는 어디에서 사<br>셨습니까?        | 1990년 11월 1일(5년전)에는 어<br>디에서 살고 있었습니까?<br>· 다른 시·군·구일 경우에는<br>현재의 행정구역명을, 북한<br>일 경우에는 북한이라고 기<br>입하고 외국일 경우에는 국<br>가명만을 기입합니다.      |
| ⑧  | ⑨   | ⑩  | ⑪  |
| ① 같은 집<br>② 같은 구, 시, 군<br>③ 다른 구, 시, 군<br>④ 외 국                | 시    군<br>도    시<br>→    군<br>→    국        | ① 같은 집<br>② 같은 구, 시, 군<br>③ 다른 구, 시, 군<br>.....시도(국)<br>.....구시군 | ① 5년전 태어나지 않았음<br>② 현재 살고 있는 집<br>③ 같은 시·군·구내 다른 집<br>④ 다른 시·군·구 또는<br>다른 시·도<br>⑤ 북한 또는 외국<br>→ .....특별·광역시·도<br>(국)<br>..... 시·군·구 |

a형

b형

c형

(1970, 1975년 조사)

(1980, 1985년 조사)

(1990, 1995년 조사)

대규모 행정구역 개편은 인구이동의 추정에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인구이동의 추세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대체로 행정구역 개편이 시권역을 확대 또는 통합하는 방향이므로 시·도내 인구이동수를 감소시킨다. 특히, 1995년에 시행된 40개의 도·농 통합시는 특히 시·도내 이동인구수에 큰 영향을 주어 인구이동 추세 파악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인구이동 추세의 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로 수행된 연구가 있으므로 이 논문에서는 이를 인용하였다(김남일, 1997). 앞으로는 행정구역개편시 이를 고려하여 조사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부 시권역 확장은 해당 시·도내 인구이동수는 감소시키고 시·도간 인구이동수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동형태별 이동수에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당면했던 자료상의 다른 중요한 제한점은 이동인구의 특성이 이동 당시의 특성이 아니고 이동한 후의 특성이라는 점이다. 특성중 학력수준은 비교적 문제가 없으나, 혼인상태, 가구원수, 가족구성과 특히 직업, 주택소유 등은 이동 당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러한 제한 때문에 이들 특

성별 구성에 대한 분석은 특성별 이동성향의 파악보다는 조사 시점에서의 단순한 전체인구와 이동인구의 특성별 구조 비교, 지역간의 차이에 대한 비교, 지역내 전입 및 전출인구의 차이 비교 등의 의미를 갖고 있음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농촌인구구조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간적 차원에서 농촌인구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한다. 이 경우 농촌인구는 농촌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의되어야 하며, 동시에 분석에서 사용될 자료의 이용가능성을 타진해 본 다음 적절하게 정의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인구센서스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지역특성별 인구의 분류는 연구자들 간에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시부와 군부,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군부를 다시 세분하여 집계한 읍부와 면부의 자료를 기초자료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농촌인구를 군부인구와 동일시하거나, 면부인구만을 농촌인구로 간주하는 문제는 지금까지 지역특성별 인구분석의 초점이 주로 도시인구의 형성과 성장에 두어졌기 때문에 크게 문제시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인구분석의 초점을 농촌인구에 둘 경우, 농촌인구를 정의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이 문제는 농촌인구가 도시화 및 공업화와 연계되어 변모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복잡한 문제를 야기한다. 우선 군부인구를 농촌인구로 간주할 경우 군부에 포함되어 있는 읍지역의 인구가 농촌인구로 간주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먼저 제기될 수 있는 논쟁점이 된다. 대체로 1970년대 이전에는 읍부인구나 면부인구가 인구구조는 물론 다른 여러 가지 특성면에서 서로 유사한 면이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는 읍부 인구의 성격이 면부보다는 오히려 시부인구의 성격과 비슷하게 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권태환, 1992: 41), 행정구역 상으로는 군부보다는 면부만을 농촌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수 있다. 그러나 농촌인구의 특성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을 찾아내고자 하는 일련의 연구에서 인구가동을 분석하거나, 인구센서스 자료이외에 각종 행정통계자료를 보조자료로 활용하고자할 경우는 자료이용의 제약으로 인해 부득이 군부인구를 농촌인구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 점을 고려하여 농촌인구의 특성의 변화를 분석하고자하는 본 연구에서는 편이상 두 형태의 농촌인구를 별도로 정의하여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인구가동과 도시화문제를 다루거나(제3장), 지역단위별 인구구조 및 특성의 차이를 나타내는 요인을 분석하고자하는 일련의 설명적인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분석주제(제5장)의 경우는 부득이 군부인구를 농촌인구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반해 농촌인구의 구조와 특성을 기술하고자하는 일련의 분석주제에서 농촌인구는 면부

인구만을 농촌인구로 간주하여 분석하기로 했다. 다만 농촌인구의 변화추이와 특성을 검토하기 위한 수단으로 필요한 경우 읍부인구와 시부인구를 보조자료로 활용하여 그 변동과 특성의 차이를 비교해 보기로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화의 진전과 더불어 도시적인 생활양식이 농촌지역으로 급속하게 확산됨에 따라 종래와는 달리 농촌지역사회도 급격하게 분화되기 시작한다. 1970년대말에 관찰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농촌은 대부분 비슷한 양상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음을 지적한다(권태환, 1992; 윤근섭·송정기, 1994). 즉 농촌마을을 단위로 고찰할 경우 농촌은 다양화와 획일화의 양상을 동시에 나타낸다. 다시 말해서 주로 공업화와 관련된 개별농촌의 지역적 입지에 따라 농촌은 다양한 모습을 나타내며 동시에 입지의 특성별로는 유사한 인구학적 특성을 보여준다. 이 사실은 특히 1995년 인구센서스자료를 이용하여 면단위 농촌인구의 구조와 특성을 분석하려고 하는 경우 비교의 틀을 고안하는 과정에서 특히 유의해볼 필요가 있는 정보가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의 대규모적인 행정구역개편으로 시·군의 개념이 크게 달라지게 되었다. 종래는 시는 일단 도시지역과 동일시해도 무리는 없었다. 그러나 행정구역개편이후 시의 개념은 크게 달라지게 된다. 즉, 광역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는 통합시의 형태로 개편되었으며, 일부광역시와 통합시는 종래 군단위에서만 존재했던 읍·면을 모두 포함하는 지역단위로 행정구역이 개편되었다. 따라서 한국에서 지역인구는 단순히 도시와 농촌의 두 지역인구로 분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 특별시 및 광역시인구, (2) 통합시의 동부인구, (3) 통합시의 읍부인구(일부 광역시에 포함된 읍부인구 포함), (4) 군의 읍부인구, (5) 통합시의 면부인구(일부 광역시에 포함된 면부인구 포함) 및 (6) 군의 면부인구 등 6개 인구로도 분류할수도 있다. 따라서 주로 1995년 센서스 자료를 기초로 농촌인구의 구조와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는 이 연구에서는 면부인구로 정의되는 농촌인구의 특성을 검토해 보기 위하여 도시로 분류되는 여러 유형의 인구를 비교의 준거틀로 이용하기로 했다. 동시에 농촌인구도 그 지역의 입지조건에 따라 다른 인구구조와 특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면부인구도 통합시의 면부인구와 군 단위의 면부인구를 분리하여 인구의 구조와 특성에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여부도 관찰해 보기로 하였다.

연구방법은 대체로 1변수 혹은 2변수에 대한 기술적 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다만, 인구성장수준과 지역특성의 연관성 분석(단원 5.2)에서만 다변수 분석기법중

판별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특히 판별분석기법을 선택한 이유는 이용가능한 자료가 크게 제한되어 있어 요인분석 모형(Causal model)을 구성하기 어려웠고 또한 분석의 목표도 주어진 자료한도 내에서 집단간 최대한으로 차별화 할 수 있는 변수를 찾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비율들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었다(Shryock et al., 1973: 654-656).

$$\text{총이동인구} = \text{시·도내이동인구} + \text{시·도간이동인구}$$

$$\text{이사인구비율} = \frac{\text{지역, 기간내 이사 인구수}}{\text{지역, 기간말 인구수}} * 100$$

$$\text{성비} = \frac{\text{남자 인구수}}{\text{여자 인구수}} * 100$$

$$\text{이동율} = \frac{\text{지역, 기간내 이동 인구수}}{\text{지역, 기간말 인구수}} * 100$$

$$A\text{지역 전입율} = \frac{A\text{지역, 기간내 전입인구}}{A\text{지역, 기간 평균인구}} * 100$$

$$A\text{지역 전출율} = \frac{A\text{지역, 기간내 전출인구}}{A\text{지역, 기간 평균인구}} * 100$$

$$A\text{지역순이동율} = A\text{지역 전입율} - A\text{지역 전출율}$$

$$A\text{와 } B\text{지역간의 이동효율} = \frac{A\text{와 } B\text{지역간 순이동인구}}{\text{지역간 총이동인구}} * 100$$

$$A\text{와 } B\text{지역간의 조인구교환율} = \frac{M_{ab} + M_{ba}}{A\text{지역인구} + B\text{지역인구}} * 100$$

단,  $M_{ab}$  = B에서 A로의 이동인구,  $M_{ba}$  = A에서 B로의 이동인구

$$\text{연평균 인구증가율: } r = \text{Antilog}((\log \frac{p_t}{p_0})/t) - 1$$

### 3. 인구가동과 도시화

지난 35년간 한국의 인구는 1960년 24,898천명에서 1995년 44,609천명으로 79%가 증가하였다. 또한 시부 인구비율은 1960년 28.0%에서 1995년 78.5%로 크게 변화하였고, 이제 인구의 3/4이상이 도시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이와같은 시부인구 비율의 증가요인은 인구가동 이외에도 자연증가, 시권역의 확대·변경, 읍·면에서 시로의 행정구역 승격 등을 들 수 있다. 1966-70년 기간에는 도시인구 증가의 대부분(73.2 ~ 77.0%)이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가동에 의한 변화였으나, 이후 농촌인구의 감소에 따라 도시인구 증가에서 인구가동의 비중이 차츰 감소해 가고 있으며(1980-85년 기간 36.8%), 자연증가와 시승격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최진호, 최병선, 1993: 11).

인구총조사의 5년전 거주지 자료에 의하면 5년 기간중 이사를 한 사람은 1985-90년과 1990-95 기간중 전체인구의 55.1%와 60.5%이었다. 이들 자료는 기간 내 2회 이상 이사한 경우 최종 이사만을 이사로 취급하였고, 이사회 다시 본래의 거처로 되돌아 온 경우는 이사한 것으로 취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약간의 차이는 있겠으나 대체로 5년간 1회 이상 이사를 하는 인구가 55% 이상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6대 도시와 경기도에서의 5년간 이사한 사람의 비율이 높았다. 인구가동의 분석에서 구·시·군 단위 내에서의 이동은 지역별 인구분포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인구총조사의 집계, 분석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이 이사인구에 관한 통계는 국민의 생활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으로 생각되어, 이 논문에서는 특별히 구·시·군내에서의 이동을 포함하는 모든 이동을 “이사”라는 용어로 일반 이동인구와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인구총조사의 예를 따라 구·시·군간의 이동만을 인구가동으로 정의하고, 지난 30년간(1965-95년)의 인구가동 추이를 검토하였다. 인구가동의 추정에는 인구주택총조사의 5년전 거주지 자료를 이용하였다.

#### 3.1 인구가동의 추정과 도시화

##### 3.1.1 인구가동의 추정

인구총조사의 5년전 거주지 자료에서 추정된 이동인구수(시·도내 및 시·도간

<표 3.1> 이사인구비율과 성비

| 시·도 | 이사인구비율  |         | 성비      |         |
|-----|---------|---------|---------|---------|
|     | 1985-90 | 1990-95 | 1985-90 | 1990-95 |
| 전국  | 55.1    | 60.5    | 96.1    | 96.8    |
| 서울  | 67.7    | 65.9    | 96.1    | 95.7    |
| 부산  | 60.2    | 60.7    | 94.2    | 95.0    |
| 대구  | 66.0    | 70.0    | 96.6    | 95.2    |
| 인천  | 69.4    | 68.3    | 97.7    | 99.9    |
| 광주  | 64.3    | 69.9    | 95.9    | 96.8    |
| 대전  | 61.5    | 71.7    | 96.0    | 98.7    |
| 경기  | 62.5    | 69.2    | 97.4    | 98.5    |
| 강원  | 44.5    | 52.1    | 96.0    | 99.0    |
| 충북  | 42.2    | 52.9    | 96.7    | 98.3    |
| 충남  | 29.7    | 40.8    | 92.1    | 98.0    |
| 전북  | 36.3    | 46.1    | 92.5    | 94.1    |
| 전남  | 29.8    | 38.5    | 97.5    | 94.1    |
| 경북  | 38.1    | 45.7    | 97.3    | 96.5    |
| 경남  | 50.8    | 57.4    | 96.6    | 97.8    |
| 제주  | 37.8    | 48.4    | 88.7    | 91.0    |

주: 이사인구란 5년간 1회이상 이사한 사람을 뜻하며, 이 기간중 이사한 경험이 있을지라도 5년전 거소가 현재의 거소와 같은 사람은 이동인구에서 제외됨  
 이사인구비율=(이사인구수/ 기간말 5세이상 인구수)\*100

자료: 통계청, 1990년 및 1995년 인구및주택 총조사 2% 표본

이동)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동율로 볼 때 총이동은 1965-70년 15.8%에서 1990-95년 24.1%로 증가하였고, 5년기간 별로는 1970년대 전반과 후반의 이동율이 3.7% 포인트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를 보였다.

시·도의 인구분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도내 인구이동율은 1975-80년 11.4%까지 계속 증가하였으나, 이후 약간 감소하여 9.9 ~10.9% 수준에서 안정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시·도간 이동율은 1965-70년 8.8%에서 1990-95년 13.5%로 소폭이지만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표 3.2 참조).

시·도내 이동율을 지역별로 보면 대체로 6대 도시에서 이동율이 훨씬 높았으며, 그 중 서울이 1975-80년 22.5%로서 가장 높은 이동율을 보인다. 1990-95년의 시·도내 이동율을 지역별로 비교하면, 6대 도시와 경기도가 9.5~17.2%로 그외의 도(3.0~7.0%)보다 훨씬 높은 시·도내 이동율을 보인다. 같은 기간 시·도내 이동율이 특히 높은 지역은 대구, 대전, 인천 등지이며 도에서는 경기와 경남에서 높았다.

최근 10년간 시·도내 이동율의 수준이 6대도시에서 현저히 높은 것은 이들 6대 도시에서 아직 상당한 도시공간 구조상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6대도시 중 서울을 제외한 모든 광역시에서 시·도내 인구이동율의 증가를 보였다. 그 중 특히 대전과 인천에서 증가율의 높은 증가를 보였다. 6대도시를 제외한 도에서는 1985-90년 기간까지 대부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1980-85년 경기와 경북, 1985-90년 충남과 전남의 이동율이 급격히 감소한 것은 대구와 인천, 그리고 광주와 대전 등이 도에서 분리, 직할시로 독립한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1990-95년 기간 경기와 전남을 제외한 모든 도에서 도내 인구이동율이 감소하였다. 이는 1995년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주변의 군을 통합한 통합시의 출현으로 일반시와 군의 수가 204개에서 165개로 크게 감소하여 시·군간 이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동이 이동으로 집계되지 않게 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기와 전남에서 같은 기간 시·도내 인구이동율이 증가 내지 정체한 것은 이 지역 인구의 이동성향이 증가한 데서 오는 영향도 있겠으나, 전술한 도·농 통합시의 비율이 경기 2/18, 전남 3/6으로 타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데서<sup>1)</sup> 오는 영향도 클 것으로 보인다.

<표 3.4>에서 1965-95년 시·도간 인구이동율의 추이를 보면 대체로 시·도내 이동율보다 높다. 지역별로 볼 때 가장 큰 특징은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전입율의 급격한 감소추세와 경기도 전입율의 급격한 증가추세를 들 수 있고, 경기도는 1985년 이후 가장 많은 이동인구를 흡입하는 이동의 제 1목적지가 되고 있다.

그외 도에서도 전입율이 완만하게나마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출율의 경우 제주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시·도에서 정체 내지는 완만한 증가를 보여 왔으나 1990-95년 기간에는 서울, 부산, 인천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전출율이 상당한 감소를 보이고 있다. 서울과 부산의 경우, 인구 전입율이 계속 감소하는 반면 전출율은 증가하여 서울은 1985-90년 기간부터 전출인구가 전입인구보다 더 많은 역전현상을 보이고, 부산의 경우도 1990-95년 기간부터 역전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대도시와 주변지역간의 기능적 의존심화와 거주지 교외화의 심화현상으로 파악되고 있다(최진호 외, 1993: 12).

1) 전국 67개 일반시 중 도농 통합시는 40개로 약 60%를 차지한다.

<표 3.2> 시·도내 및 시·도간 이동인구와 이동율, 1965-95.

(단위: 천명, %)

| 기 간     | 총이동            | 시도내 이동       | 시도간 이동       | 기타       |
|---------|----------------|--------------|--------------|----------|
| 1965-70 | 4,394 (100.0)  | 1,919 (43.7) | 2,455 (55.9) | 20 (0.5) |
| 1970-75 | 5,209 (100.0)  | 2,362 (45.3) | 2,839 (54.5) | 8 (0.2)  |
| 1975-80 | 7,658 (100.0)  | 3,879 (50.7) | 3,765 (49.2) | 14 (0.2) |
| 1980-85 | 8,402 (100.0)  | 3,656 (43.5) | 4,719 (56.2) | 27 (0.3) |
| 1985-90 | 9,871 (100.0)  | 4,380 (44.4) | 5,436 (55.1) | 55 (0.6) |
| 1990-95 | 10,183 (100.0) | 4,396 (43.2) | 5,691 (55.9) | 96 (0.9) |
|         | (이             | 동            | 율)           |          |
| 1965-70 | 15.8           | 6.9          | 8.8          | 0.1      |
| 1970-75 | 17.0           | 7.7          | 9.3          | 0.0      |
| 1975-80 | 22.4           | 11.4         | 11.0         | 0.0      |
| 1980-85 | 22.7           | 9.9          | 12.7         | 0.1      |
| 1985-90 | 24.5           | 10.9         | 13.5         | 0.1      |
| 1990-95 | 24.1           | 10.4         | 13.5         | 0.2      |

주: 5년전 거주지 미상은 제외됨

이동율=(이동 인구수/ (기간초 0세 이상인구 + 기간말 5세 이상인구)\*0.5)\*100

( )내는 구성비임.

자료: 경제기획원. 1970, 1985, 1990, 1995년 인구센서스보고서, 인구이동편  
통계청. 1990, 1995년 인구및주택 총조사보고서, 인구이동편

1965-90년 기간 중에는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도에서 전출인구가 전입인구보다 많았으나, 최근 1990-95년 기간에는 다소 변화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충북, 경남, 제주 등 지역에서 전입이 전출인구보다 더 많았으며, 그외 도에서는 아직 전출초과 상태이지만, 전입율은 증가한 반면 전출율이 크게 감소하여 순이동율이 크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지역간 인구이동의 추세의 큰 변동은 시부에서 군부로의 이동의 증가를 대표적인 특징으로 하고 있고, 서울과 부산에서의 순전출인구의 증가가 그 큰 몫(약 40%)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시 등의 행정구역 변경의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이며(김남일, 1997), 추세변동의 근본적인 원인은, 확실한 자료를 제시할 수는 없으나 농촌 지역에서의 인구 흡인력이 증가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3.3 > 시·도별 시·도내 구시군간 이동율, 1965-95

(단위: %)

| 시·도 | 기 간     |         |         |         |         |         |
|-----|---------|---------|---------|---------|---------|---------|
|     | 1965-70 | 1970-75 | 1975-80 | 1980-85 | 1985-90 | 1990-95 |
| 전국  | 6.9     | 7.7     | 11.4    | 9.9     | 10.9    | 10.4    |
| 서울  | 14.8    | 16.2    | 22.5    | 17.8    | 18.1    | 14.3    |
| 부산  | 7.4     | 9.3     | 14.3    | 11.9    | 12.8    | 14.2    |
| 대구  | -       | -       | -       | 13.4    | 15.1    | 17.2    |
| 인천  | -       | -       | -       | 6.1     | 10.3    | 15.6    |
| 광주  | -       | -       | -       | -       | 8.7     | 11.9    |
| 대전  | -       | -       | -       | -       | 9.6     | 15.9    |
| 경기  | 4.9     | 5.7     | 7.3     | 5.3     | 8.7     | 9.5     |
| 강원  | 6.4     | 5.7     | 6.3     | 6.5     | 7.1     | 6.2     |
| 충북  | 3.9     | 4.4     | 4.6     | 5.8     | 6.6     | 5.1     |
| 충남  | 3.7     | 3.7     | 5.1     | 6.4     | 3.6     | 3.0     |
| 전북  | 4.8     | 4.6     | 5.0     | 6.2     | 7.3     | 5.7     |
| 전남  | 5.4     | 4.9     | 7.3     | 9.7     | 4.3     | 4.3     |
| 경북  | 7.6     | 7.8     | 13.9    | 4.1     | 6.5     | 4.2     |
| 경남  | 4.4     | 4.9     | 6.7     | 7.3     | 9.5     | 7.0     |
| 제주  | 3.8     | 3.4     | 3.6     | 5.5     | 5.4     | 5.1     |

주: 이동율=(이동인구수/(기간초 인구수+기간말 5세이상 인구수)\*0.5)\*100  
 자료: <부록표 1>, <표 3.2> 참조

전남지역은 순전출율이 1990-95년 -8.7%로 6대도시를 제외할 때 이전 기간에 이어 계속 가장 높은 전출초과를 보이고 있다. 각 시도에서 경기도의 경우 전입율은 계속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출율은 최근 증가하고 있으나 전입율보다는 증가속도가 낮아 순이동율은 1985-90년 13.4%, 1990-95년 16.9%로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순인구이동율을 보이고 있다.

<표 3.4> 시·도간 이동인구의 이동율

(단위: %)

| 시·도 | 이동<br>구분 | 기 간     |         |         |         |         |         |
|-----|----------|---------|---------|---------|---------|---------|---------|
|     |          | 1965-70 | 1970-75 | 1975-80 | 1980-85 | 1985-90 | 1990-95 |
| 서울  | 전입       | 27.9    | 19.0    | 17.4    | 15.9    | 13.7    | 10.4    |
|     | 전출       | 5.8     | 9.1     | 10.4    | 12.6    | 14.1    | 19.2    |
|     | 순이동      | 22.1    | 9.9     | 7.0     | 3.3     | -0.4    | -8.7    |
| 부산  | 전입       | 20.5    | 19.0    | 20.5    | 13.4    | 10.6    | 6.3     |
|     | 전출       | 8.4     | 8.5     | 8.4     | 10.5    | 9.9     | 12.5    |
|     | 순이동      | 12.1    | 10.5    | 12.1    | 3.0     | 0.7     | -6.2    |
| 대구  | 전입       | -       | -       | -       | 19.2    | 14.3    | 11.0    |
|     | 전출       | -       | -       | -       | 10.7    | 10.4    | 10.1    |
|     | 순이동      | -       | -       | -       | 8.5     | 3.9     | 1.0     |
| 인천  | 전입       | -       | -       | -       | 28.0    | 27.2    | 22.5    |
|     | 전출       | -       | -       | -       | 11.7    | 11.5    | 12.1    |
|     | 순이동      | -       | -       | -       | 16.3    | 15.8    | 10.5    |
| 광주  | 전입       | -       | -       | -       | -       | 19.0    | 16.5    |
|     | 전출       | -       | -       | -       | -       | 12.5    | 11.3    |
|     | 순이동      | -       | -       | -       | -       | 6.5     | 5.2     |
| 대전  | 전입       | -       | -       | -       | -       | 21.7    | 23.8    |
|     | 전출       | -       | -       | -       | -       | 10.6    | 9.0     |
|     | 순이동      | -       | -       | -       | -       | 11.1    | 14.8    |
| 경기  | 전입       | 11.6    | 17.4    | 21.5    | 23.9    | 28.2    | 29.4    |
|     | 전출       | 10.8    | 9.7     | 10.4    | 11.8    | 14.0    | 11.5    |
|     | 순이동      | 0.8     | 7.7     | 11.1    | 12.1    | 14.1    | 17.8    |
| 강원  | 전입       | 6.1     | 5.0     | 6.1     | 7.5     | 7.7     | 9.6     |
|     | 전출       | 10.9    | 11.3    | 15.9    | 15.9    | 18.7    | 16.3    |
|     | 순이동      | -4.8    | -6.3    | -9.8    | -8.4    | -10.9   | -6.6    |

<표 3.4>(계속) 시·도간 이동인구의 이동율

| 시·도 | 이동<br>구분 | 기 간     |         |         |         |         |         |
|-----|----------|---------|---------|---------|---------|---------|---------|
|     |          | 1965-70 | 1970-75 | 1975-80 | 1980-85 | 1985-90 | 1990-95 |
| 충북  | 전입       | 4.0     | 4.9     | 5.2     | 7.7     | 9.0     | 12.4    |
|     | 전출       | 11.7    | 10.6    | 14.8    | 15.1    | 14.2    | 11.2    |
|     | 순이동      | -7.7    | -5.6    | -9.6    | -7.4    | -5.1    | 1.1     |
| 충남  | 전입       | 3.7     | 4.6     | 5.9     | 7.6     | 6.8     | 10.0    |
|     | 전출       | 11.6    | 10.4    | 11.8    | 14.2    | 16.2    | 14.0    |
|     | 순이동      | -7.9    | -5.9    | -5.9    | -6.5    | -9.4    | -3.9    |
| 전북  | 전입       | 2.4     | 2.9     | 2.9     | 4.0     | 4.0     | 6.1     |
|     | 전출       | 9.1     | 8.8     | 12.1    | 12.7    | 12.9    | 10.6    |
|     | 순이동      | -6.6    | -5.9    | -9.2    | -8.7    | -9.0    | -4.5    |
| 전남  | 전입       | 1.6     | 1.8     | 2.4     | 4.0     | 5.4     | 6.1     |
|     | 전출       | 7.5     | 8.6     | 11.6    | 13.3    | 16.9    | 14.9    |
|     | 순이동      | -6.0    | -6.8    | -9.2    | -9.3    | -11.5   | -8.7    |
| 경북  | 전입       | 3.5     | 4.6     | 5.7     | 5.3     | 8.6     | 9.7     |
|     | 전출       | 7.2     | 6.7     | 8.6     | 13.2    | 16.0    | 12.3    |
|     | 순이동      | -3.8    | -2.1    | -2.9    | -7.9    | -7.4    | -2.7    |
| 경남  | 전입       | 3.4     | 5.0     | 9.5     | 10.4    | 10.4    | 11.2    |
|     | 전출       | 10.6    | 10.0    | 12.3    | 11.5    | 10.8    | 8.7     |
|     | 순이동      | -7.2    | -5.0    | -2.8    | -1.1    | -0.3    | 2.5     |
| 제주  | 전입       | 4.7     | 5.6     | 5.1     | 5.5     | 6.0     | 6.5     |
|     | 전출       | 3.8     | 9.6     | 6.1     | 7.1     | 6.8     | 6.1     |
|     | 순이동      | 0.9     | -3.9    | -1.0    | -1.5    | -0.8    | 0.4     |

주: 1)이동율=(이동인구수/(기간초 인구 + 기간말 5세 이상인구)\*100  
 2)해외전입 인구 제외  
 자료: <부록표 2>, <표 3.2> 자료 참조

### 3.1.2 인구이동의 흐름

<표 3.5>는 이동인구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각 시·도 전출인구의 주요 목적지별 구성비를 정리한 것이다. 이 자료에 의하면 몇가지 흐름의 패턴을 볼 수 있다.

첫째는 1985년 기간까지는 경북-대구, 경남-부산 등 인접하고 있는 대도시와의 인구이동을 제외하고는 서울을 제 1목적지로 하고 있다. 또한 전체 전출인구의 48.1% 내지 28.8%가 서울을 목적지로 하고 있었다. 1985년 이후 이러한 패턴에

다소의 변화가 오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1985-90년 기간 부산-경남, 대구-경북 이외에도 인천 및 강원지역에서 전출인구 중 가장 많은 수가 서울이 아닌 인접 시·도와 경기도를 목적지로 하고 있으며, 그의 도에서는 아직 서울을 목적지로 한 전출인구가 가장 많으나 그 구성비는 크게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전국적으로 볼때도 전출인구의 제1목적지가 경기(26.5%)로 바뀌었다.

1990-95년 기간에는 이러한 추세가 심화되어 광주-전남, 충남-대전 등 도의 인접 대도시가 제 1목적지가 되었고, 서울을 제 1목적지로 하는 지역은 대전, 경기, 전북, 제주지역 뿐이었다. 전체 전출인구의 목적지로서의 비중도 경기가 33.2%로서 1위, 서울은 18.1%로서 2위로 나타났다. 또한 인천으로의 이동도 7.6%를 점하여 이 기간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전체 전출인구의 58.9%를 점하였다. 전기간에 걸쳐 볼 때 수도권으로 향하는 이동흐름의 비중에는 큰 차이가 없다.

<표 3.6>에서 전체 전입인구의 출발지별 구성을 보면 다소의 순위변동과 직할시 분리 등 행정구역 개편에서 다소 영향을 받고 있으나 전체전출 인구의 목적지별 구성과는 달리 전 기간에 걸쳐 큰 변화가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주요 출발지는 1990-95년에 경남이 부산으로 교체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기간에 걸쳐 서울, 경기, 전남, 경남, 경북 등이 전체전입인구의 61.2~61.9%를 차지하였다.

각 지역 전출인구의 목적지별 구성을 이동의 흐름으로 파악한다면 그 지역 전입인구의 출발지별 구성은 하나의 역흐름(Counter Stream)으로 볼 수 있다. 이 역흐름에서 가장 뚜렷한 패턴은 1965-70년 기간에는 인접지역간의 이동이 가장 주된 흐름을 구성하였으나, 1970년 이후 많은 지역에서 서울을 출발지로 하는 이동이 가장 큰 비중을 점하였다. 대도시와 이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도간의 이동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지역의 전입인구는 서울을 제 1출발지로 하였다. 서울을 포함하는 전체 전입인구의 출발지별 구성을 볼때는 1970-95년 기간중 서울이 출발지 순위에서 계속 1위였으며, 그 구성비는 1970-75년 18.4%에서 1990-95년 33.3%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위지역은 경기로서 기간에 따라 전체 전입인구의 11.4~13.2%를 점하였다.

전기간에 걸쳐 서울의 전입인구는 경기, 전남, 충남, 경북, 전북지역에서 온 이동인구가 전체의 65~75%를 차지하고 있다. 1980년 이후 이들 중 경북이 강원도로 대체된 것은 이 시기 대구가 직할시로 경북에서 분리된 데 원인이 있다. 전남의 경우 1985년 이후 광주직할시와 분리되었음에도 서울 전입인구의 출발지 순위에서 2위를 계속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 구성비는 15.1%에서 10.0%로 크게 감소하였다. 서울에서 경기지역에의 전입인구는 1985년 이후 그 구성비가 10% 포인트

나 증가하여 서울-경기지역 간의 전출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기간(1990-95년)에는 서울 전출인구 중 67.1%가 경기로, 9.2%가 인천으로 이동하여 수도권내로의 이동이 76.3%나 차지하였다. 이 서울에서의 전출인구는 경기전입 인구중 그 대부분이라 할 수 있는 67.4%를 차지하였고, 인천전입 인구중 40.2%가 서울을 출발지로 하고 있다.

<표 3.5> 시도간 전출인구의 주요 목적지별 구성비, 1975-95.

| 전출지 | 기간      | 순 위 별 목 적 지  |              |              |              |             | 그외   | 총전출인구                |
|-----|---------|--------------|--------------|--------------|--------------|-------------|------|----------------------|
|     |         | 1            | 2            | 3            | 4            | 5           |      |                      |
| 서울  | 1975-80 | 57.9<br>(경기) | 7.7<br>(경북)  | 7.5<br>(부산)  | 6.7<br>(충남)  | 5.7<br>(경남) | 14.5 | (100.0)<br>752,825   |
|     | 1985-90 | 59.9<br>(경기) | 11.6<br>(인천) | 3.5<br>(부산)  | 3.3<br>(경남)  | 3.1<br>(강원) | 18.5 | (100.0)<br>1,376,544 |
|     | 1990-95 | 67.1<br>(서울) | 9.2<br>(인천)  | 3.0<br>(대전)  | 2.7<br>(강원)  | 5.7<br>(충남) | 15.3 | (100.0)<br>1,928,219 |
| 부산  | 1975-80 | 37.5<br>(경남) | 26.0<br>(서울) | 16.0<br>(경북) | 9.2<br>(경기)  | 3.3<br>(전남) | 7.9  | (100.0)<br>220,969   |
|     | 1985-90 | 39.9<br>(경남) | 20.0<br>(서울) | 10.8<br>(경기) | 7.6<br>(경북)  | 5.5<br>(대구) | 16.3 | (100.0)<br>348,166   |
|     | 1990-95 | 47.6<br>(경남) | 14.6<br>(서울) | 10.6<br>(경기) | 6.7<br>(경북)  | 4.5<br>(대구) | 16.0 | (100.0)<br>460,352   |
| 대구  | 1985-90 | 38.9<br>(경북) | 18.3<br>(서울) | 12.3<br>(경남) | 10.8<br>(경기) | 8.7<br>(부산) | 10.9 | (100.0)<br>213,639   |
|     | 1990-95 | 42.1<br>(경북) | 15.7<br>(서울) | 11.8<br>(경남) | 11.0<br>(경기) | 6.1<br>(부산) | 13.3 | (100.0)<br>226,188   |
| 인천  | 1985-90 | 37.7<br>(경기) | 37.1<br>(서울) | 3.2<br>(충남)  | 3.1<br>(충북)  | 3.0<br>(경남) | 16.0 | (100.0)<br>173,899   |
|     | 1990-95 | 41.9<br>(경기) | 27.5<br>(서울) | 5.0<br>(충남)  | 3.5<br>(충북)  | 3.4<br>(강원) | 18.6 | (100.0)<br>236,115   |
| 광주  | 1985-90 | 32.6<br>(서울) | 27.3<br>(전남) | 15.6<br>(경기) | 4.2<br>(인천)  | 4.1<br>(전북) | 16.2 | (100.0)<br>122,102   |
|     | 1990-95 | 30.6<br>(전남) | 28.4<br>(서울) | 17.7<br>(경기) | 5.1<br>(전북)  | 4.1<br>(인천) | 14.0 | (100.0)<br>129,265   |
| 대전  | 1985-90 | 26.2<br>(서울) | 19.4<br>(경기) | 17.8<br>(충남) | 9.6<br>(충북)  | 4.8<br>(인천) | 22.2 | (100.0)<br>96,516    |
|     | 1990-95 | 24.5<br>(서울) | 21.4<br>(경기) | 19.1<br>(충남) | 9.5<br>(충북)  | 4.7<br>(인천) | 20.8 | (100.0)<br>100,430   |
| 경기  | 1975-80 | 71.1<br>(서울) | 5.6<br>(충남)  | 5.4<br>(경북)  | 4.2<br>(경남)  | 4.0<br>(부산) | 9.8  | (100.0)<br>437,051   |
|     | 1985-90 | 60.5<br>(서울) | 14.0<br>(인천) | 3.5<br>(강원)  | 3.4<br>(충남)  | 2.9<br>(충북) | 15.7 | (100.0)<br>727,292   |
|     | 1990-95 | 47.7<br>(서울) | 17.1<br>(인천) | 5.5<br>(충남)  | 5.0<br>(충북)  | 4.5<br>(강원) | 20.2 | (100.0)<br>753,759   |
| 강원  | 1975-80 | 36.5<br>(서울) | 26.6<br>(경기) | 11.3<br>(경북) | 8.2<br>(부산)  | 7.3<br>(경남) | 10.1 | (100.0)<br>275,077   |
|     | 1985-90 | 29.0<br>(경기) | 29.0<br>(서울) | 7.6<br>(인천)  | 6.3<br>(경북)  | 6.2<br>(경남) | 21.9 | (100.0)<br>299,136   |
|     | 1990-95 | 31.4<br>(경기) | 25.0<br>(서울) | 8.5<br>(인천)  | 6.2<br>(경북)  | 6.1<br>(충북) | 22.8 | (100.0)<br>240,093   |

<표 3.5>(계속) 시도간 전출인구의 주요 목적지별 구성비, 1975-95.

| 전출지 | 기간      | 순 위 별 목 적 지  |              |              |              |              | 그외   | 총전출인구                 |
|-----|---------|--------------|--------------|--------------|--------------|--------------|------|-----------------------|
|     |         | 1            | 2            | 3            | 4            | 5            |      |                       |
| 충북  | 1975-80 | 35.9<br>(서울) | 22.5<br>(경기) | 14.8<br>(충남) | 8.7<br>(경북)  | 5.7<br>(부산)  | 12.5 | (100.0)<br>207,997    |
|     | 1985-90 | 28.4<br>(서울) | 26.3<br>(경기) | 11.7<br>(대전) | 6.2<br>(인천)  | 5.2<br>(경북)  | 22.2 | (100.0)<br>189,606    |
|     | 1990-95 | 25.7<br>(경기) | 23.4<br>(서울) | 16.7<br>(대전) | 6.8<br>(충남)  | 5.5<br>(인천)  | 21.9 | (100.0)<br>150,862    |
| 충남  | 1975-80 | 47.1<br>(서울) | 30.8<br>(경기) | 4.5<br>(경북)  | 4.1<br>(부산)  | 3.9<br>(충북)  | 9.6  | (100.0)<br>331,857    |
|     | 1985-90 | 28.2<br>(서울) | 27.8<br>(경기) | 20.5<br>(대전) | 8.2<br>(인천)  | 3.9<br>(충북)  | 11.4 | (100.0)<br>325,857    |
|     | 1990-95 | 27.7<br>(대전) | 25.6<br>(경기) | 22.0<br>(서울) | 8.3<br>(인천)  | 5.2<br>(충북)  | 11.7 | (100.0)<br>255,923    |
| 전북  | 1975-80 | 49.1<br>(서울) | 20.6<br>(경기) | 8.2<br>(부산)  | 6.1<br>(충남)  | 5.6<br>(전남)  | 10.5 | (100.0)<br>274,449    |
|     | 1985-90 | 41.6<br>(서울) | 25.3<br>(경기) | 6.0<br>(인천)  | 4.1<br>(대전)  | 4.0<br>(광주)  | 19.0 | (100.0)<br>267,817    |
|     | 1990-95 | 34.7<br>(서울) | 27.7<br>(경기) | 7.0<br>(대전)  | 6.5<br>(인천)  | 5.0<br>(광주)  | 19.1 | (100.0)<br>204,104    |
| 전남  | 1975-80 | 47.4<br>(서울) | 19.6<br>(경기) | 15.2<br>(부산) | 5.4<br>(경남)  | 3.8<br>(전북)  | 8.5  | (100.0)<br>428,851    |
|     | 1985-90 | 30.4<br>(서울) | 27.8<br>(광주) | 17.2<br>(경기) | 6.8<br>(부산)  | 5.0<br>(인천)  | 12.8 | (100.0)<br>437,511    |
|     | 1990-95 | 31.9<br>(광주) | 24.7<br>(서울) | 19.8<br>(경기) | 5.4<br>(인천)  | 3.8<br>(전북)  | 14.4 | (100.0)<br>329,765    |
| 경북  | 1975-80 | 32.0<br>(서울) | 25.5<br>(부산) | 17.3<br>(경남) | 13.0<br>(경기) | 4.9<br>(강원)  | 7.3  | (100.0)<br>400,354    |
|     | 1985-90 | 37.9<br>(대구) | 16.5<br>(서울) | 11.1<br>(경남) | 10.6<br>(경기) | 9.7<br>(부산)  | 14.2 | (100.0)<br>453,511    |
|     | 1990-95 | 38.0<br>(대구) | 15.5<br>(서울) | 13.2<br>(경기) | 10.9<br>(경남) | 6.3<br>(부산)  | 16.1 | (100.0)<br>330,286    |
| 경남  | 1975-80 | 57.5<br>(부산) | 15.2<br>(서울) | 14.7<br>(경북) | 6.7<br>(경기)  | 2.0<br>(전남)  | 4.0  | (100.0)<br>385,373    |
|     | 1985-90 | 41.8<br>(부산) | 15.6<br>(서울) | 10.8<br>(경기) | 8.9<br>(대구)  | 8.3<br>(경북)  | 14.7 | (100.0)<br>372,055    |
|     | 1990-95 | 31.8<br>(부산) | 15.9<br>(서울) | 12.5<br>(경기) | 9.8<br>(경북)  | 9.4<br>(대구)  | 20.5 | (100.0)<br>313,821    |
| 제주  | 1975-80 | 32.3<br>(서울) | 20.1<br>(부산) | 13.7<br>(경기) | 10.6<br>(경남) | 10.5<br>(전남) | 12.8 | (100.0)<br>24,662     |
|     | 1985-90 | 31.7<br>(서울) | 16.7<br>(부산) | 15.6<br>(경기) | 10.4<br>(경남) | 5.5<br>(전남)  | 20.1 | (100.0)<br>33,235     |
|     | 1990-95 | 31.1<br>(서울) | 17.7<br>(경기) | 9.8<br>(부산)  | 7.1<br>(경남)  | 6.3<br>(전남)  | 28.1 | (100.0)<br>30,424     |
| 전국  | 1975-80 | 33.2<br>(서울) | 23.9<br>(경기) | 14.3<br>(부산) | 7.8<br>(경남)  | 7.0<br>(경북)  | 13.8 | (100.0)<br>3,779,341* |
|     | 1985-90 | 26.5<br>(경기) | 24.3<br>(서울) | 7.5<br>(인천)  | 6.8<br>(부산)  | 6.6<br>(경남)  | 28.3 | (100.0)<br>5,492,242* |
|     | 1990-95 | 33.2<br>(경기) | 18.1<br>(서울) | 7.6<br>(인천)  | 7.0<br>(경남)  | 4.6<br>(대전)  | 29.5 | (100.0)<br>5,785,825  |

자료: 경제기획원, 1980년 인구및주택 센서스보고서, 인구이동 편  
 통계청, 1990, 1995년 인구및주택 총조사보고서, 인구이동편  
 \* 외국, 미상 포함함.

<표 3.6> 시도간 전입인구의 주요 출발지별 구성비, 1975-95.

| 전입지 |         | 순 위 별 출 발 지  |              |              |              |              | 그외   | 총전입인구                |
|-----|---------|--------------|--------------|--------------|--------------|--------------|------|----------------------|
|     |         | 1            | 2            | 3            | 4            | 5            |      |                      |
| 서울  | 1975-80 | 24.8<br>(경기) | 16.2<br>(전남) | 12.4<br>(충남) | 10.7<br>(전북) | 10.2<br>(경북) | 25.7 | (100.0)<br>1,255,181 |
|     | 1985-90 | 33.0<br>(경기) | 10.0<br>(전남) | 8.4<br>(전북)  | 6.9<br>(충남)  | 6.5<br>(강원)  | 35.2 | (100.0)<br>1,332,787 |
|     | 1990-95 | 34.3<br>(경기) | 7.8<br>(전남)  | 6.7<br>(전북)  | 6.4<br>(부산)  | 6.2<br>(인천)  | 38.6 | (100.0)<br>1,049,199 |
| 부산  | 1975-80 | 41.1<br>(경남) | 18.9<br>(경북) | 12.1<br>(전남) | 10.5<br>(서울) | 4.2<br>(강원)  | 13.2 | (100.0)<br>539,145   |
|     | 1985-90 | 41.6<br>(경남) | 13.0<br>(서울) | 11.8<br>(경북) | 7.9<br>(전남)  | 5.0<br>(대구)  | 20.6 | (100.0)<br>373,496   |
|     | 1990-95 | 42.8<br>(경남) | 15.6<br>(서울) | 9.0<br>(경북)  | 6.6<br>(경기)  | 5.9<br>(대구)  | 20.1 | (100.0)<br>233,050   |
| 대구  | 1985-90 | 58.7<br>(경북) | 11.3<br>(경남) | 8.5<br>(서울)  | 6.5<br>(부산)  | 3.8<br>(경기)  | 11.1 | (100.0)<br>292,667   |
|     | 1990-95 | 50.6<br>(경북) | 11.9<br>(경남) | 11.1<br>(서울) | 8.3<br>(부산)  | 5.9<br>(경기)  | 12.2 | (100.0)<br>248,236   |
| 인천  | 1985-90 | 38.7<br>(서울) | 24.8<br>(경기) | 6.5<br>(충남)  | 5.5<br>(강원)  | 5.3<br>(전남)  | 19.3 | (100.0)<br>412,804   |
|     | 1990-95 | 40.2<br>(서울) | 29.2<br>(경기) | 4.8<br>(충남)  | 4.6<br>(강원)  | 4.0<br>(전남)  | 17.1 | (100.0)<br>441,494   |
| 광주  | 1985-90 | 65.4<br>(전남) | 12.8<br>(서울) | 5.7<br>(전북)  | 4.5<br>(경기)  | 3.0<br>(부산)  | 8.6  | (100.0)<br>186,369   |
|     | 1990-95 | 55.8<br>(전남) | 17.7<br>(서울) | 7.2<br>(경기)  | 5.4<br>(전북)  | 3.5<br>(부산)  | 10.5 | (100.0)<br>188,901   |
| 대전  | 1985-90 | 33.5<br>(충남) | 19.3<br>(서울) | 11.1<br>(충북) | 8.6<br>(경기)  | 5.5<br>(전북)  | 21.9 | (100.0)<br>199,265   |
|     | 1990-95 | 26.4<br>(충남) | 21.6<br>(서울) | 11.8<br>(경기) | 9.6<br>(충북)  | 5.4<br>(전북)  | 25.1 | (100.0)<br>263,715   |
| 경기  | 1975-80 | 48.2<br>(서울) | 11.3<br>(충남) | 9.3<br>(전남)  | 8.1<br>(강원)  | 6.3<br>(전북)  | 16.8 | (100.0)<br>904,716   |
|     | 1985-90 | 56.6<br>(서울) | 6.2<br>(충남)  | 5.9<br>(강원)  | 5.2<br>(전남)  | 4.6<br>(전북)  | 21.5 | (100.0)<br>1,457,696 |
|     | 1990-95 | 67.4<br>(서울) | 5.2<br>(인천)  | 3.9<br>(강원)  | 3.4<br>(충남)  | 3.3<br>(전남)  | 16.7 | (100.0)<br>1,921,142 |
| 강원  | 1975-80 | 30.6<br>(서울) | 18.7<br>(경북) | 16.3<br>(경기) | 10.3<br>(충북) | 5.9<br>(충남)  | 18.2 | (100.0)<br>104,935   |
|     | 1985-90 | 34.7<br>(서울) | 20.5<br>(경기) | 8.1<br>(경북)  | 6.7<br>(충북)  | 5.9<br>(경남)  | 24.0 | (100.0)<br>123,595   |
|     | 1990-95 | 37.1<br>(서울) | 23.8<br>(경기) | 6.1<br>(경북)  | 5.7<br>(인천)  | 5.0<br>(부산)  | 22.4 | (100.0)<br>141,948   |

<표 3.6>(계속) 시도간 전입인구의 주요 출발지별 구성비, 1975-95.

| 전입지 | 순 위 별 출 발 지 |              |              |              |              |              | 총전입인구                        |
|-----|-------------|--------------|--------------|--------------|--------------|--------------|------------------------------|
|     | 1           | 2            | 3            | 4            | 5            | 그외           |                              |
| 충북  | 1975-80     | 25.9<br>(서울) | 17.8<br>(충남) | 16.8<br>(강원) | 13.9<br>(경기) | 12.0<br>(경북) | 13.7<br>(100.0)<br>73,143    |
|     | 1985-90     | 26.0<br>(서울) | 17.1<br>(경기) | 11.2<br>(강원) | 10.4<br>(충남) | 7.6<br>(대전)  | 27.6<br>(100.0)<br>121,392   |
|     | 1990-95     | 27.1<br>(서울) | 22.6<br>(경기) | 8.8<br>(강원)  | 7.9<br>(충남)  | 5.8<br>(대전)  | 27.8<br>(100.0)<br>165,974   |
| 충남  | 1975-80     | 30.4<br>(서울) | 18.5<br>(충북) | 14.7<br>(경기) | 10.1<br>(전북) | 7.5<br>(경북)  | 18.9<br>(100.0)<br>166,198   |
|     | 1985-90     | 27.6<br>(서울) | 18.4<br>(경기) | 12.6<br>(대전) | 6.6<br>(충북)  | 5.9<br>(전북)  | 29.0<br>(100.0)<br>136,061   |
|     | 1990-95     | 28.0<br>(서울) | 22.4<br>(경기) | 10.4<br>(대전) | 6.5<br>(인천)  | 5.6<br>(충북)  | 27.1<br>(100.0)<br>184,066   |
| 전북  | 1975-80     | 30.6<br>(서울) | 25.0<br>(전남) | 15.5<br>(충남) | 9.8<br>(경기)  | 4.2<br>(경북)  | 14.8<br>(100.0)<br>65,628    |
|     | 1985-90     | 32.6<br>(서울) | 14.2<br>(전남) | 12.3<br>(경기) | 8.4<br>(충남)  | 6.2<br>(광주)  | 26.3<br>(100.0)<br>81,729    |
|     | 1990-95     | 32.3<br>(서울) | 17.1<br>(경기) | 10.6<br>(전남) | 6.4<br>(충남)  | 5.9<br>(경남)  | 27.8<br>(100.0)<br>117,066   |
| 전남  | 1975-80     | 37.2<br>(서울) | 17.2<br>(전북) | 9.0<br>(경기)  | 8.6<br>(경남)  | 8.3<br>(부산)  | 19.7<br>(100.0)<br>88,618    |
|     | 1985-90     | 23.7<br>(광주) | 21.1<br>(서울) | 12.8<br>(경북) | 8.2<br>(부산)  | 7.4<br>(전북)  | 26.8<br>(100.0)<br>140,212   |
|     | 1990-95     | 29.0<br>(광주) | 22.8<br>(서울) | 9.8<br>(부산)  | 9.7<br>(경기)  | 6.4<br>(경남)  | 22.2<br>(100.0)<br>136,272   |
| 경북  | 1975-80     | 21.8<br>(서울) | 21.4<br>(경남) | 13.4<br>(부산) | 11.7<br>(강원) | 9.0<br>(경기)  | 22.7<br>(100.0)<br>264,140   |
|     | 1985-90     | 33.9<br>(대구) | 13.9<br>(서울) | 12.5<br>(경남) | 10.8<br>(부산) | 7.7<br>(강원)  | 21.1<br>(100.0)<br>245,104   |
|     | 1990-95     | 36.8<br>(대구) | 12.6<br>(서울) | 12.0<br>(부산) | 11.9<br>(경남) | 7.5<br>(경기)  | 19.2<br>(100.0)<br>258,828   |
| 경남  | 1975-80     | 28.0<br>(부산) | 23.4<br>(경북) | 14.5<br>(서울) | 7.8<br>(전남)  | 6.8<br>(강원)  | 19.5<br>(100.0)<br>296,163   |
|     | 1985-90     | 38.6<br>(부산) | 14.0<br>(경북) | 12.6<br>(서울) | 7.3<br>(대구)  | 5.7<br>(경기)  | 21.9<br>(100.0)<br>359,958   |
|     | 1990-95     | 54.2<br>(부산) | 10.5<br>(서울) | 8.9<br>(경북)  | 6.6<br>(대구)  | 5.2<br>(경기)  | 14.5<br>(100.0)<br>403,871   |
| 제주  | 1975-80     | 28.5<br>(전남) | 23.4<br>(서울) | 10.2<br>(부산) | 6.5<br>(경북)  | 6.2<br>(경남)  | 25.3<br>(100.0)<br>21,474    |
|     | 1985-90     | 29.0<br>(서울) | 17.6<br>(부산) | 12.0<br>(전남) | 8.4<br>(경기)  | 6.2<br>(경남)  | 26.7<br>(100.0)<br>29,107    |
|     | 1990-95     | 28.4<br>(서울) | 18.2<br>(부산) | 11.8<br>(경기) | 7.3<br>(경남)  | 6.5<br>(전남)  | 27.8<br>(100.0)<br>21,124    |
| 전국  | 1975-80     | 19.9<br>(서울) | 11.6<br>(경기) | 11.3<br>(전남) | 10.6<br>(경북) | 10.2<br>(경남) | 36.4<br>(100.0)<br>3,779,341 |
|     | 1985-90     | 25.1<br>(서울) | 13.2<br>(경기) | 8.3<br>(경북)  | 8.0<br>(전남)  | 6.8<br>(경남)  | 38.6<br>(100.0)<br>5,492,242 |
|     | 1990-95     | 33.3<br>(서울) | 13.0<br>(경기) | 8.0<br>(부산)  | 5.7<br>(경북)  | 5.7<br>(전남)  | 34.3<br>(100.0)<br>5,785,825 |

자료: 경제기획원, 1980년 인구및주택 센서스보고서, 인구이동 편  
통계청, 1990, 1995년 인구및주택 총조사보고서, 인구이동편

이들 서울에서의 수도권 다른 지역으로의 인구이동이 전체이동의 1/4이상을 차지하여 모든 이동흐름 중 가장 큰 비중을 점하고 있다. 부산의 경우 1965년 이후 전기간에 걸쳐 경남, 경북(대구포함), 서울, 전남, 강원 지역에서 온 전입인구가 전체 전입인구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표 3.7>은 각 시·도간의 개별 이동흐름(1990-95년 105개 흐름)을 이동의 크기와 이동의 효율면에서 비교한 것이다. 먼저 인구규모를 감안했을 때의 이동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라 할 수 있는 조인구교환율(Gross Rate of Population Interchange)은 관련 두 지역인구의 크기에 대한 두 지역간 총이동인구의 비율로 나타낸 것으로, <표 3.7>은 조인구교환율이 1% 이상인 이동흐름만을 택하여 제시한 것이다. 기간이 지남에 따라 총이동 인구수는 증가하였으나, 표에 제시된 지역간 이동의 흐름은 감소하였으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동의 크기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조인구교환율이 특히 높은 이동흐름은 1990-95년의 경우 서울-경기,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경남, 대전-충남, 인천-경기, 서울-인천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 흐름중 특히 서울-경기간의 이동은 10.1%로서 두 지역인구수를 감안했을 때 다음 순위 이동흐름의 2배이상의 규모임을 볼 수 있다. 광주, 대구, 부산 등 대도시와 그 인접도와의 조인구교환율은 각각 4.7%, 4.6%, 4.5%로서 이동의 크기가 다음 순위로 높아 각 인접지역간의 의존도가 대전, 인천 등 다른 대도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80-85년과 1985-90년의 경우 대체로 1990-95년과 대동소이한 추세를 보이지만 서울-경기의 조인구교환율이 각각 7.2%와 8.2%로 다소 낮은 반면, 대구-경북은 6.0% 및 5.4%로 약간 높은 율을 보였다.

두 지역간 순이동의 총이동에 대한 비율로 나타내는 이동의 효율은 각 기간별 각 이동흐름별로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인다. 최근 기간 충남-대전, 서울-경기 등의 이동흐름에서 모두 56%이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인다. 대도시와 그 인접도간의 이동은 대구와 경북의 13.7%를 제외하고는 37.4~56.8%로서 대체로 높은 편이다. 이와같이 높은 이동효율은 이동의 흐름이 한쪽 방향으로 치우쳐 있음을 뜻하며, 나아가서는 사회경제적 기능 연계가 한쪽이 다른 한쪽에 높은 의존도를 가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대도시의 경우 대부분 인접지역의 대도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을 보여준다. 대구와 그 인접도 간에는 상당히 높은 상호의존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다른 대도시와 구별이 된다.

<표 3.7> 주요 이동 흐름별 이동효율과 조인구 교환율, 1980-95

(단위 : %)

| 이동흐름  | 1990~95 |        | 1985~90 |        |        | 1980~85 |        |        |
|-------|---------|--------|---------|--------|--------|---------|--------|--------|
|       | 조인구교환율  | 이동효율   | 이동흐름    | 조인구교환율 | 이동효율   | 이동흐름    | 조인구교환율 | 이동효율   |
| 서울-경기 | 10.09   | 56.51  | 서울-경기   | 8.22   | 30.42  | 서울-경기   | 7.23   | 27.67  |
| 광주-전남 | 4.69    | -45.42 | 대구-경북   | 5.38   | -34.77 | 대구-경북   | 5.98   | -54.28 |
| 대구-경북 | 4.64    | 13.73  | 광주-전남   | 4.56   | -57.09 | 부산-경남   | 4.72   | -16.19 |
| 부산-경남 | 4.51    | 37.40  | 부산-경남   | 4.26   | -5.63  | 인천-경기   | 2.16   | -15.96 |
| 대전-충남 | 3.51    | -56.84 | 대전-충남   | 2.94   | -59.17 | 서울-전남   | 2.04   | -65.12 |
| 인천-경기 | 2.53    | -13.21 | 서울-인천   | 1.96   | 42.54  | 서울-충남   | 1.84   | -45.14 |
| 서울-인천 | 2.09    | 46.45  | 경기-강원   | 1.59   | -54.72 | 서울-인천   | 1.71   | 39.49  |
| 대전-충북 | 1.41    | -45.02 | 서울-전남   | 1.34   | -63.67 | 경기-충남   | 1.61   | -54.18 |
| 경기-강원 | 1.32    | -38.15 | 경북-경남   | 1.34   | 24.12  | 서울-전북   | 1.50   | -64.02 |
| 경기-충남 | 1.25    | -22.65 | 경기-충남   | 1.55   | -56.67 | 경기-강원   | 1.43   | -51.35 |
| 경북-경남 | 1.11    | 7.74   | 대전-충북   | 1.39   | -41.06 | 부산-경북   | 1.41   | -41.55 |
| 서울-강원 | 1.04    | -6.55  | 서울-전북   | 1.18   | -61.47 | 서울-강원   | 1.31   | -39.97 |
|       |         |        | 부산-경북   | 1.14   | -25.05 | 경북-경남   | 1.25   | 32.97  |
|       |         |        | 서울-충남   | 1.10   | -41.94 | 충북-충남   | 1.18   | 21.20  |
|       |         |        | 대구-경남   | 1.09   | -11.35 | 대구-경남   | 1.13   | -18.72 |
|       |         |        | 경기-전남   | 1.08   | -76.38 | 경기-전남   | 1.12   | 72.55  |
|       |         |        | 경기-전북   | 1.04   | -74.17 | 서울-부산   | 1.10   | -22.18 |
|       |         |        | 경기-충북   | 1.03   | -41.15 | 경기-충북   | 1.05   | -50.38 |
|       |         |        |         |        |        | 서울-경북   | 1.04   | -49.50 |

### 3.1.3 도시화와 군부 인구의 감소

1960년 시부인구는 6,997천명이었고, 35년이 지난 1995년에는 시부인구가 5배가 증가한 34,992천명으로 전국인구 44,554천명의 78.5%를 차지하였다. 반대로 군부 인구는 1960년 전국인구의 72%인 17,992천명에서 1995년에는 그 절반에 가까운 9,562천명으로 감소하였고 구성비는 21.5%로 감소하였다. <표 3.8>에서 시부의 연평균 인구증가율과 전국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의 차로서 나타내는 도시화속도를 보면 1960년부터 1980년까지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었고, 1966-70년 기간에 가장 높은 도시화속도를 보였다. 1980년 이후 도시화의 속도가 차츰 낮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1990-95년 기간의 도시화속도는 1.07%로서 이전 기간에 비해 1.6%포인트가 감소되었다. 1960년에서 1990년까지 30년간 매 5년 단위로 계산된 시부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4%를 상회하여 왔으나 1990-95년 기간에는 1.62%로서 그 연평균 증가율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이 기간 중 군수는 137에서 98로 39개군이 줄어들었다.

<표 3.9>에서 도시규모별 인구의 증가추이를 보면 도시화의 속도가 가장 높았던 1966-70년 기간에는 주로 서울과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 높은 인구증가율을 보였고, 1970-75년 기간에는 인구 10만에서 100만 사이의 중소도시에서 높은 인구증가율을 보였다. 1980년 이후에는 서울의 인구증가율은 계속 크게 감소하는 반면 50만 이상의 중대도시에서 높은 인구증가율을 보였다. 1980-90년 기간 중 10만 이하의 소도시에서 특히 높은 인구증가율을 보인 것은 일부 읍의 시승격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군부인구의 감소추이를 보면, 1966년 이후부터 군부의 절대인구 감소가 계속 되어왔다. 이 군부인구 감소에는 일부 읍의 시승격과 시 행정구역확장 등이 큰 영향을 주었다. 즉 1970년에는 전국의 31개시가 있었으나 이후 1975년 35개시, 1980년 40개시, 1985년 45개시, 1990년 73개시 등으로 1970년 이후 42개의 새로운 시가 생겨났고, 이에 따라 군의 인구가 크게 감소하였다. 1995년에는 시수에는 변화가 없었으나 군수는 137개군에서 98개군으로 줄어 40개군의 인구가 읍, 면의 이름으로 인접시에 통합되어 통합시를 형성하였다. 1975년 이후 군부인구의 연평균감소율이 이전기간 -0.65%에서 -2.20% ~ -4.54%로 크게 증가한 것은 그 상당부분이 위에서 언급한 시승격과 시구역확대의 영향일 것으로 생각된다.

<표 3.10>은 전국을 시부와 군부로 구분하여 각 지역의 전입·전출 및 순이동 인구를 구한 것이다. 1965년에서 1990년까지 매 5년간의 시·군부간 인구이동을

<표 3.8> 시·군부의 연평균 증가율

(단위: 천인, %)

|                  | 1960   | 1966   | 1970   | 1975   | 1980   | 1985   | 1990   | 1995                 |
|------------------|--------|--------|--------|--------|--------|--------|--------|----------------------|
| ( 인 구 수 )        |        |        |        |        |        |        |        |                      |
| 전국 <sup>1)</sup> | 24,989 | 29,160 | 31,435 | 34,679 | 37,407 | 40,420 | 43,390 | 44,554               |
| 시부               | 6,997  | 9,780  | 12,929 | 16,770 | 21,409 | 26,418 | 32,290 | 34,992 <sup>2)</sup> |
| 군부               | 17,992 | 19,379 | 18,506 | 17,909 | 15,998 | 14,002 | 11,100 | 9,562                |
| ( 구 성 비 )        |        |        |        |        |        |        |        |                      |
| 시부               | 28.0   | 33.5   | 41.1   | 48.4   | 57.2   | 65.4   | 74.4   | 78.5                 |
| 군부               | 72.0   | 66.5   | 58.9   | 51.6   | 42.8   | 34.6   | 25.6   | 21.5                 |
| ( 연평균 인구 증가율 )   |        |        |        |        |        |        |        |                      |
| 전국               | -      | 2.69   | 1.90   | 1.98   | 1.50   | 1.56   | 1.43   | 0.53                 |
| 시부               | -      | 5.91   | 7.23   | 5.34   | 4.92   | 4.29   | 4.10   | 1.62 <sup>2)</sup>   |
| 군부               | -      | 1.29   | -1.15  | -0.65  | -2.20  | -2.63  | -4.54  | -2.94                |
| 도시화<br>속도        | -      | 3.22   | 5.33   | 3.36   | 3.42   | 2.73   | 2.67   | 1.07                 |
| ( 행 정 단 위 수 )    |        |        |        |        |        |        |        |                      |
| 시부               | 27     | 32     | 32     | 35     | 40     | 45     | 73     | 73                   |
| 군부               | 134    | 139    | 140    | 138    | 139    | 139    | 137    | 98                   |

주: 1) 외국인 제외

2) 광역시와 통합시의 읍·면 인구수 3,210천인이 군부 인구에 포함됨.

자료: 경제기획원,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년 인구및주택 센서스보고서  
통계청, 1990, 1995, 인구및주택 총조사보고서

보면 시부에서는 매 5년마다 1,196천~1,843천명이 증가하였고, 군부에서는 같은 수만큼 인구이동에 의해 인구가 감소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1990-95년 기간에는 순이동인구수가 190천명으로 갑자기 감소하였다. 이 기간동안 총이동인구수(시도내 및 시도간 이동인구)가 4,395천명에서 10,087천명으로 2.3배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시부의 인구이동에 의한 증가인구수는 크지 않았다. 이는 시부 전입인구보다 전출인구가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시부에서의 순이동 인구수는 기간별로 큰 기복이 없으나 1975-80년 기간중에 가장 많은 1,843천명이 순전입 하였고, 1990-95년 기간에는 순전입인구수가 190천명으로 가장 작았다. 1990-95년 기간의 시부 순전입인구수가 이전기간의 12% 수준으로 크게 감소한

<표 3.9> 도시 규모별 연평균 증가율과 그 구성비

(단위: 천인, %)

|                 | 1960       | 1966       | 1970       | 1975       | 1980       | 1985       | 1990       | 1995                 |
|-----------------|------------|------------|------------|------------|------------|------------|------------|----------------------|
| 서울              | 2,445      | 3,793      | 5,525      | 6,879      | 8,351      | 9,626      | 10,603     | 10,217               |
| 100만 이상         | 1,164      | 1,426      | 2,957      | 3,759      | 5,843      | 6,925      | 10,028     | 11,087               |
| 50-100만         | 677        | 1,371      | 1,145      | 1,910      | 1,379      | 2,322      | 3,052      | 6,588                |
| 10-50만          | 1,421      | 2,135      | 2,205      | 3,680      | 5,396      | 6,525      | 6,317      | 9,529                |
| 10만 이하          | 1,290      | 1,055      | 1,096      | 542        | 441        | 1,020      | 2,278      | 781                  |
| 계 <sup>1)</sup> | 6,997      | 9,780      | 12,928     | 16,770     | 21,410     | 26,418     | 32,278     | 38,202 <sup>2)</sup> |
| ( 구성비와 시수 )     |            |            |            |            |            |            |            |                      |
| 서울              | 34.9       | 38.8       | 42.7       | 41.0       | 39.0       | 36.4       | 32.8       | 26.7                 |
| 100만 이상         | 16.6 (1)   | 14.6 (1)   | 22.9 (2)   | 22.4 (2)   | 27.3 (3)   | 26.2 (3)   | 31.1 (5)   | 29.0 (5)             |
| 50-100만         | 9.7 (1)    | 14.0 (2)   | 8.9 (2)    | 11.4 (3)   | 6.4 (2)    | 8.8 (3)    | 9.5 (5)    | 17.2 (10)            |
| 10-50만          | 20.3 (6)   | 21.8 (13)  | 17.1 (13)  | 21.9 (22)  | 25.2 (28)  | 24.7 (29)  | 19.6 (29)  | 24.9 (47)            |
| 10만 이하          | 18.4 (18)  | 10.8 (15)  | 8.5 (14)   | 3.2 (7)    | 2.1 (6)    | 3.9 (14)   | 7.1 (33)   | 2.0 (10)             |
| 계               | 100.0 (27) | 100.0 (32) | 100.0 (32) | 100.0 (35) | 100.0 (40) | 100.0 (50) | 100.0 (73) | 100.0 (73)           |
| ( 증 가 율 )       |            |            |            |            |            |            |            |                      |
| 서울              | -          | 7.82       | 9.86       | 4.48       | 3.89       | 2.88       | 1.95       | -0.74                |
| 100만 이상         | -          | 3.55       | 20.00      | 4.92       | 9.06       | 3.46       | 7.68       | 2.03                 |
| 50-100만         | -          | 12.87      | -4.40      | 10.77      | -6.21      | 10.99      | 5.62       | 16.63                |
| 10-50만          | -          | 7.23       | 0.81       | 10.78      | 7.82       | 3.87       | -0.65      | 8.57                 |
| 10만 이하          | -          | -3.39      | 0.95       | -13.14     | -3.95      | 18.25      | 17.43      | -19.28               |
| 계               | -          | 5.91       | 7.23       | 5.34       | 4.92       | 4.29       | 4.10       | 3.43 <sup>2)</sup>   |

( )는 해당하는 시의 수임

주: 1)외국인 제외

2) 광역시와 통합시의 읍·면 인구수 포함

<표 3.10> 기간별 시·군부간 전입, 전출 및 순이동인구와 이동율

(단위: 천명, %)

| 기 간                   | 시 부   |       |       | 군 부               |       |        |
|-----------------------|-------|-------|-------|-------------------|-------|--------|
|                       | 전입    | 전출    | 순이동   | 전입                | 전출    | 순이동    |
| 1965-70               | 3,359 | 1,919 | 1,440 | 1,037             | 2,476 | -1,440 |
| 1970-75               | 4,029 | 2,833 | 1,196 | 1,122             | 2,318 | -1,196 |
| 1975-80               | 6,379 | 4,536 | 1,843 | 1,239             | 3,082 | -1,843 |
| 1980-85               | 7,008 | 5,472 | 1,535 | 1,358             | 2,893 | -1,535 |
| 1985-90               | 8,705 | 7,119 | 1,586 | 1,111             | 2,697 | -1,586 |
| 1990-95               | 8,893 | 8,703 | 190   | 1,194             | 1,384 | -190   |
|                       |       | ( 이   | 동     | 율 ) <sup>1)</sup> |       |        |
| 1965-70               | 29.8  | 17.0  | 12.8  | 6.5               | 15.6  | -9.1   |
| 1970-75               | 27.4  | 19.3  | 8.1   | 7.1               | 14.7  | -7.6   |
| 1975-80               | 33.3  | 23.7  | 9.6   | 8.6               | 21.3  | -12.7  |
| 1980-85               | 29.3  | 22.9  | 6.4   | 10.6              | 22.5  | -12.0  |
| 1985-90               | 29.4  | 24.0  | 5.3   | 10.6              | 25.8  | -15.2  |
| 1990-95 <sup>2)</sup> | 27.7  | 27.1  | 0.6   | 13.3              | 15.4  | -2.1   |

주: 1) 이동율=(기간 이동인구수/기간말 지역 5세이상 인구수)\*100

2) 이동인구 조사에서 통합시의 읍·면은 시부로 취급되고 있으므로 분포인구인 시부 인구는, 통합시의 읍·면 인구를 포함하는, 32,157 천명으로 함.

것은 시부에서 군부로 전출인구가 크게 증가한 반면 군부에서 시부로 전입인구는 이 기간에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이동율로 볼 때 시부전입율(시부전입인구/시부인구)은 1975-80년 가장 높았던 33.3%에서 1990-95년 27.7%로 감소하였고 시부에서의 전출율은 반대로 1965-70년 17.0%에서 1990-95년 27.1%로 지속적인 상승경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시부의 순전입율은 1965-70년 12.8%에서 1990-95년 0.6%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1990-95년에는 이전 5년 기간의 5.3%에서 0.6%로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군부의 순이동율이 -9.1%에서 1985-90년 -15.2%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왔음은 그간의 인구재배치 정책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군부 순인구이동율이 최근 -15.2%에서 -2.0%로 급락하고 있다. 이는 시부 군부간 인구

이동 추세에 갑작스럽고도 큰 변화가 있었음을 뜻하는 것으로 여러 측면에서의 심층연구가 필요하다.

이것은 1995년의 시·군 통합시 혹은 시구역확장 등으로 군의 수가 137에서 98로 감소한 데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이러한 시·군부간 인구이동의 추세변동은 1995년의 대규모 행정구역 확장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1990년 인구총조사 자료를 이용,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한 영향을 측정한 것을 보면(김남일, 1997), 1985-90년 기간의 인구이동에서 1995년의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영향은 총이동율을 24.1%에서 23.6%로 0.5%포인트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상한 대로 시도간 이동보다는 시도내 이동율을 더 크게 감소시켰다. 이동형태별로는 시부→시부 이동을 절대수에서 10%정도 증가시킨 반면 군부→군부 이동은 50%이상, 그리고 시부→군부 이동과 군부→시부 이동은 각각 22%와 24%씩을 감소시켰다. 그러나 이동형태별 이동율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시부→시부 이동의 경우 절대수 증가와는 달리 이동율은 21.9%에서 21.6%로 0.3%포인트, 군부→군부 이동은 3.0%에서 2.5%로, 시부→군부 이동은 2.5%에서 1.7%로 각각 감소시키는 영향이 있었으며, 군부→시부 이동의 경우 20.2%에서 22.4%로 2.2%포인트 증가시키는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할 때 1995년 행정구역의 변경은 최근의 인구이동 추세변동과는 반대방향의 영향을 미치고 있어 최근의 추세변동이 행정구역 변경과는 관계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1990-95년 기간중 서울의 순전출인구가 879천명에 달하였으므로 이것이 시·군부간 인구이동 추세의 변화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각 지역의 시군부간 이동의 변화가 군부순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1985-90년과 1990-95년 인구이동을 비교함으로써 측정하였다. 결과를 보면, 이 기간중 군부순이동율이 13% 포인트 감소하였고 이에 대한 서울의 기여율은 25.3%로 나타났으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전체의 기여율은 43.6%로 나타났다. 이 기여율은 서울이나 수도권 전체의 인구구성비와 비교할 때 높다 할 수 없다. 다시말해 시군부간 인구이동 추세의 급격한 변화는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내의 인구추세 변동으로 인한 것 만이라 할 수 없으며, 하나의 전국적인 시군부간 인구이동 추세변동의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3.11>에서 이동형태별 구성비를 보면 1970년까지는 군부에서 시부로의 이동이 전체의 41.6%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였으나 이후 계속 감소하고, 시부에서 시부로의 이동은 5배나 증가하여 구성비 면에서 1965-70년 34.9%에서 1990-95년 76.5%로 크게 증가하였다. 시부에서 군부로의 이동의 경우 구성비에 큰 변동이

없으나, 군부에서 군부로 이동은 구성비가 1965-70년 14.8%에서 1990-95년 2.1%로 크게 감소하였다. 최근(1990-95년)의 이동형태별 구성을 보면 시부→시부 이동이 전체이동의 76.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군부→시부 이동이 11.6%를 차지하였다.

<표 3.12>에서 보면 1965-95년의 30년 기간동안 도시에의 순전입 인구수는 7,790천명으로서 이는 시부인구가 인구이동에 의해 매년 평균 278천명 증가하고 있음을 뜻한다. 30년 기간 중 군부 절대 감소 인구수가 10,033천이므로 인구이동에 의한 감소는 전체 감소 인구의 80%를 점한다. 물론 총감소 인구에는 행정구역 개편 등에 따른 인구감소가 포함되어 있고, 5년 기간중 인구의 자연증가분은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비율은 정확한 비율이라 할 수 없으나 인구이동이 군부인구 감소에 대부분의 책임이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전술한 바 군부의 순인구 이동율이 1990년 까지 증가하여 왔음에도 <표 3.12>에서 군부 감소인구에 대한 순이동 인구의 비율이 1975년 이후 급격한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은 군부인구 감소의 상당부분이 시승격, 행정구역 개편 등의 영향에 의한 것임을 보여준다. 1990-95년의 경우 1995년의 대규모 행정구역 개편과 함께 시·군부간의 인구이동 추세변동으로 인해 감소인구에 대한 순이동 인구의 비율이 전기간의 54.7%에서 12.4%로 크게 감소하였다.

<표 3.13>은 이동형태별로 시·도간 전입인구와 전출인구의 지역별 구성비를 보여준다. 이 표는 1995년 인구총조사의 2% 표본테잎에서 집계하였다. 집계에는 승수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이동인구수의 추정치들은 직접사용할 수 없으나 표에 나와있지 않은 다른 비율을 계산하는데 필요하므로 함께 제시하였다.

시부에서 타시·도의 시부로 이동인구를 가장 많이 내보내고 있는 지역은 서울(40.3%)이며 타시·도의 시부에서 이동인구를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지역은 서울(28.6%)과 경기(25.1%)이었다. 군부→시부 이동인구를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지역 역시 서울(19.1%)과 경기(18.7%)이었고, 많이 내보내고 있는 지역은 전남(19.3%)과 경기(18.2%)이었으나 지역간 상당히 분산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서울의 경우 시부에서의 전입인구가 군부에서 전입해오는 인구보다 10배나 많았다. 군부로 전입하는 인구를 보면, 타시·도의 시부에서 오는 인구의 31.3%가 경기도로, 16.7%가 경남으로 전입하였고, 타시·도의 군부에서 오는 인구의 26.9%는 경기도로, 13.3%는 충남으로 전입하여 전체군부로 오는 인구의 30.6% (6915/22633)를 경기도 군부에서 수용하였다. 시부에서 타시·도의 군부로 가는 전출인구의 24.8%가 서울에서 전출하였고, 15.8%는 경기 시부에서 전출하였다. 타시·도의

<표 3.11> 기간 및 이동형태별 총이동인구와 이동율

(단위: 천명)

| 기 간                     | 군부→시부        | 시부→시부        | 시부→군부      | 군부→군부      | 계 <sup>1)</sup> |
|-------------------------|--------------|--------------|------------|------------|-----------------|
| 1965-70                 | 1,827 (41.6) | 1,532 (34.9) | 387 (8.8)  | 649 (14.8) | 4,395 (100.0)   |
| 1970-75                 | 1,754 (34.1) | 2,275 (44.2) | 558 (10.8) | 563 (10.9) | 5,151 (100.0)   |
| 1975-80                 | 2,524 (33.1) | 3,855 (50.6) | 681 (8.9)  | 558 (7.3)  | 7,618 (100.0)   |
| 1980-85                 | 2,424 (29.0) | 4,584 (54.8) | 889 (10.6) | 469 (5.6)  | 8,366 (100.0)   |
| 1985-90                 | 2,329 (23.7) | 6,376 (65.0) | 743 (7.6)  | 368 (3.7)  | 9,816 (100.0)   |
| 1990-95                 | 1,173 (11.6) | 7,720 (76.5) | 983 (9.7)  | 211 (2.1)  | 10,087 (100.0)  |
| ( 이 동 율 ) <sup>2)</sup> |              |              |            |            |                 |
| 1965-70                 | 11.5         | 13.6         | 3.4        | 4.1        | 16.2            |
| 1970-75                 | 11.1         | 15.5         | 3.8        | 3.6        | 16.9            |
| 1975-80                 | 17.4         | 20.1         | 3.6        | 3.9        | 22.7            |
| 1980-85                 | 18.9         | 19.2         | 3.7        | 3.7        | 22.8            |
| 1985-90                 | 22.3         | 21.5         | 2.5        | 3.5        | 24.5            |
| 1990-95 <sup>3)</sup>   | 13.1         | 24.0         | 3.1        | 2.4        | 24.5            |

( )내는 구성비임.

주: 1) 해외전입인구, 5년전 거주지 미상 제외.

2) 이동율=(기간 이동인구수/기간말 5세이상 출발지역 인구수)\*100

3) <표 3.10>의 주석 2) 참조

<표 3.12> 시·군부 인구변동 중 순인구이동의 비중, 1965-95

(단위: 천인, %)

| 센서스<br>연 도         | 시부인구   | 군부인구   | 센서스간 인구변동 |         | 시·군부간<br>순이동인구<br>(시부) | 인구변동중<br>순인구이동의 구성비 |       |
|--------------------|--------|--------|-----------|---------|------------------------|---------------------|-------|
|                    |        |        | 시부인구      | 군부인구    |                        | 시부                  | 군부    |
| 1965 <sup>1)</sup> | 9,022  | 19,595 | -         | -       | -                      | -                   | -     |
| 1970               | 12,929 | 18,506 | 3,907     | -1,089  | 1,440                  | 36.9                | 132.2 |
| 1975               | 16,770 | 17,909 | 3,841     | -597    | 1,196                  | 31.1                | 200.3 |
| 1980               | 21,409 | 15,997 | 4,639     | -1,912  | 1,843                  | 39.7                | 96.4  |
| 1985               | 26,418 | 14,002 | 5,009     | -1,995  | 1,535                  | 30.6                | 76.9  |
| 1990               | 32,290 | 11,100 | 5,872     | -2,902  | 1,586                  | 27.0                | 54.7  |
| 1995               | 34,992 | 9,562  | 2,702     | -1,538  | 190                    | 7.0                 | 12.4  |
| 계                  | -      | -      | 25,970    | -10,033 | 7,790                  | 30.0                | 77.6  |

주: 보간법에 의한 1965. 10. 1의 추정치임

자료: <표 3.8> <표 3.12>

군부에서 오는 전출인구 중 25.8%가 경기 군부에서 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형태별 이동인구의 구성에서, 인구수가 많은 서울과 경기가 자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종합하면 서울의 경우 전체 전입인구의 24.2%, 전체 시부로 전입인구의 27.4%를 받아들이고, 그 중 91.0%를 타시·도의 시부에서, 9%를 군부에서 받고 있다. 그리고 전입인구보다 38.3%가 더 많은 전출인구 (전체 전출인구의 33.5%, 전체 시부전출인구의 38.6%)를 그 93%는 시부로 7%는 군부로 내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전체 전출의 13.7%를 타시·도로 내보내고, 전출인구보다 82%가 더 많고, 전체 전입인구의 25.0%가 되는 전입인구를 받았다.

이를 시부와 군부로 구분하면, 경기 시부는 전체 시부전입의 24.3%, 전체 시부전출의 12.9%를 점하고, 경기 군부는 전체 군부전입의 30.6%, 전체 군부전출의 19.3%를 점하고 있다. 경기 시부는 경기 전체전입의 86.1%, 전체전출의 81.4%를 점하여 경기도 인구이동의 대부분이 시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표 3.13> 이동형태별 전입 및 전출 지역 구성비, 총이동인구, 1990-95

| 지역 | 시 부 → 시 부 |         |        |         | 시 부 → 군 부 |         |       |         |
|----|-----------|---------|--------|---------|-----------|---------|-------|---------|
|    | 전입인구      |         | 전출인구   |         | 전입인구      |         | 전출인구  |         |
| 서울 | 43817     | (28.6)  | 61893  | (40.4)  | -         |         | 4676  | (24.8)  |
| 부산 | 13469     | (8.8)   | 16730  | (10.9)  | 290       | (1.5)   | 2476  | (13.1)  |
| 대구 | 10658     | (7.0)   | 10547  | (6.9)   | 525       | (2.8)   | 1369  | (7.3)   |
| 인천 | 13520     | (8.8)   | 10276  | (6.7)   | 171       | (0.9)   | 750   | (4.0)   |
| 광주 | 4851      | (3.2)   | 4679   | (3.1)   | -         |         | 707   | (3.8)   |
| 대전 | 7018      | (4.6)   | 5084   | (3.3)   | -         |         | 479   | (2.5)   |
| 경기 | 38467     | (25.1)  | 19251  | (12.6)  | 5903      | (31.3)  | 2974  | (15.8)  |
| 강원 | 2094      | (1.4)   | 2832   | (1.9)   | 1104      | (5.9)   | 683   | (3.6)   |
| 충북 | 1931      | (1.3)   | 1747   | (1.1)   | 1160      | (6.2)   | 478   | (2.5)   |
| 충남 | 1506      | (1.0)   | 2150   | (1.4)   | 2092      | (11.1)  | 490   | (2.6)   |
| 전북 | 2569      | (1.7)   | 3482   | (2.3)   | 565       | (3.0)   | 574   | (3.0)   |
| 전남 | 1902      | (1.2)   | 2686   | (1.8)   | 1411      | (7.5)   | 514   | (2.7)   |
| 경북 | 3197      | (2.1)   | 4760   | (3.1)   | 2272      | (12.0)  | 1048  | (5.6)   |
| 경남 | 7818      | (5.1)   | 6774   | (4.4)   | 3143      | (16.7)  | 1505  | (8.0)   |
| 제주 | 582       | (0.4)   | 508    | (0.3)   | 236       | (1.3)   | 149   | (0.8)   |
| 계  | 153399    | (100.0) | 153399 | (100.0) | 18872     | (100.0) | 18872 | (100.0) |

| 지역 | 군 부 → 시 부 |         |       |         | 군 부 → 군 부 |         |      |         |
|----|-----------|---------|-------|---------|-----------|---------|------|---------|
|    | 전입인구      |         | 전출인구  |         | 전입인구      |         | 전출인구 |         |
| 서울 | 4307      | (19.1)  | -     |         | -         |         | -    |         |
| 부산 | 1101      | (4.9)   | 54    | (0.2)   | 32        | (0.9)   | 40   | (1.1)   |
| 대구 | 1634      | (7.3)   | 290   | (1.3)   | 48        | (1.3)   | 55   | (1.5)   |
| 인천 | 1263      | (5.6)   | 0     | (0.00)  | 45        | (1.2)   | 0    | (0.0)   |
| 광주 | 1684      | (7.5)   | -     |         | -         |         | -    |         |
| 대전 | 1531      | (6.8)   | -     |         | -         |         | -    |         |
| 경기 | 4218      | (18.7)  | 4095  | (18.2)  | 1012      | (26.9)  | 973  | (25.9)  |
| 강원 | 946       | (4.2)   | 2482  | (11.0)  | 387       | (10.3)  | 523  | (13.9)  |
| 충북 | 1135      | (5.0)   | 1832  | (8.1)   | 402       | (10.7)  | 356  | (9.5)   |
| 충남 | 453       | (2.0)   | 2799  | (12.4)  | 502       | (13.4)  | 478  | (12.7)  |
| 전북 | 886       | (3.9)   | 1645  | (7.3)   | 117       | (3.1)   | 150  | (4.0)   |
| 전남 | 842       | (3.7)   | 4354  | (19.3)  | 333       | (8.9)   | 430  | (11.4)  |
| 경북 | 734       | (3.3)   | 2354  | (10.4)  | 406       | (10.8)  | 331  | (8.8)   |
| 경남 | 1441      | (6.4)   | 2188  | (9.7)   | 439       | (11.7)  | 389  | (10.3)  |
| 제주 | 365       | (1.6)   | 447   | (2.0)   | 38        | (1.0)   | 36   | (1.0)   |
| 계  | 22540     | (100.0) | 22540 | (100.0) | 3761      | (100.0) | 3761 | (100.0) |

주: ( )내는 구성비 임.  
 자료: 통계청, 1995년 인구및주택 총조사 2% 표본

### 3.1.4 시도별 인구변화와 분포의 불균형

<표 3.14>에서 1960년부터 1995년까지 35년간의 시도별 인구분포의 변화를 보면, 서울은 1960년 9.8%에서 1990년 24.4%로 구성비가 30년간 14.6%포인트나 증가하였으나 1995년에는 22.9%로 감소하였고, 부산은 1960년 4.7%에서 1990년 8.7%까지 계속 증가하여 왔으나 1995년에 8.6%로 감소하고 있다. 그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대도시의 인구구성비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경기도는 1960년 인구구성비가 9.4%로서 전남, 경북, 경남, 서울, 전북에 이어 6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이었으나 1995년 17.1%로 구성비가 급격히 증가하여 시·도의 인구 규모 순위에서 서울에 이어 2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이 되었다. 특히 1985년 이후에는 과거 서울을 향해 모이던 이동인구가 경기도를 제 1목적지로 전입하고 있어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외의 도에서는 제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인구 구성비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특히 전남은 1960년 13.0%로 가장 인구 규모가 큰 지역이었으나 1995년에는 4.6%로 인구규모 9위에 해당하며 지난 35년간 인구구성비의 변화가 가장 컸던 지역으로 나타났다.

<표 3.15>에서 시·도별 인구 변화를 개괄하면, 서울은 1960년부터 1990년 까지 기간별로 전국 인구증가분의 32.9~47.8%를 흡수하였으나 1990-95년 기간에는 386천명(-33.2%)의 절대인구 감소를 보였다, 이는 시·도간 인구가동에서 879천명이 순감소 하였기 때문이다. 부산은 1960-80년 기간에는 10년 단위로 각각 전국 인구증가분의 11.1%와 21.4%를 흡수하여 두 번째로 많은 증가인구를 흡수하였으나 1980년 이후 인구증가가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는 1960-70년 기간에는 전국인구증가분의 5.6%, 1990-95년 기간에는 127.5%를 흡수하여 그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1990-95년 기간에는 전국인구증가분을 27.5%나 초과한 수만명의 이동인구를 타시도로부터 받아들이고 있다. 서울을 제외한 대도시에서 전국인구증가분의 91.1%를 흡수하고 있고, 부산의 경우 그 흡수 비율이 1970-80년 기간 21.4%에서 1990-95년 1.2%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나 그 외 대도시의 경우 흡수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인천의 경우 1990-95년기간 흡수비율이 41.9%로 크게 증가하여 경기와 함께 수도권 주변지역으로의 인구집중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경남은 다른 도와 달리 흡수비율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990-95년기간에는 14.6%로 이전 기간의 3배에 가까운 증가인구 흡수비율의 큰 증가를 보였다. 대도시와 경기도, 경남 및 충북을 제외한 여타 도에서는 모두 “-”흡수비율로 그 지역 절대인구의 감소경향을 나타

내고 있으며, 특히 전남에서는 흡수비율이 전국증가인구의 -37.9%로서 가장 큰 감소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3.16>에서 1970년에서 1995년까지 25년간의 시·도별 인구분포의 변화에 미친 인구이동의 영향을 보기 위하여 시도별 순이동 인구의 인구변화분에 대한 비율을 보면, 1970-80년 기간에는 서울, 부산, 경기에서 전출보다 전입인구가 더 많아 “+”의 순이동인구를 보였다. 순이동의 증가인구에 대한 비율은 이들 지역에서 각각 37.9%, 41.2%, 46.4%로서 증가인구의 상당부분이 순이동인구에 의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같은 기간 충남, 경북, 경남, 제주 등에서는 “-”의 순이동이 있었으나, 이들 지역의 절대인구는 증가하였다. 이 기간 중 시·도의 행정구역에 변경이 없었으므로 이들 지역 인구의 자연증가가 순전출 인구를 채우고도 남았음을 알 수 있다. 그외 강원, 충북, 전북, 전남 등에서는 “-”순이동이 있었고, 인구의 절대수도 감소하였다. 이들 지역에서는 자연증가인구가 순전출인구를 다 채우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80-90년 기간에는 6대도시와 경기에서 전출인구보다 전입인구가 많았고, 그외 지역에서는 모두 전출인구가 전입인구보다 많았다. 6대도시와 경기에서 증가인구 중 순이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인천이 가장 높은 23.6%였고, 부산이 다음으로 18.6%였다. 전체적으로 순이동의 비중이 1970-80년 기간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인구재배치 결과는 수도권과 대도시 인구집중 현상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인구의 불균형 분포를 심화시킨다. <표 3.17>에서 보면 Duncan지수와 Gini 계수는 각각 1970년 30.3과 41.5에서 1995년 50.5와 62.3으로 지속적으로 큰 증가를 보이고 있다. 같은 표에서 Duncan 지수에 대한 구성비는 각 시·도가 전체인구 불균형 분포에서 갖는 책임량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사용될 수 있다. 1970년에는 6대도시만이 인구가 상대적으로 과대분포된 지역이었으나 1990년부터는 경기도를 포함하여 7개지역에서 인구가 상대적으로 과대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 상대적으로 인구가 과소분포된 지역은 강원도와 경북을 비롯하여 8개 도였다. 각 시·도의 불균형 분포상의 비중을 보면 과대분포된 지역에서는 서울이 그비중이 1970년부터 차츰 감소하고 있으나 1995년 44.2%로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부산은 1980년 이후 그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1995년 15.5%로 2위, 경기가 1990년 이후 비중이 갑자기 증가하여 13.7%로서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인구가 상대적으로 과소분포된 지역은 그 심한 정도가 강원, 경북, 전남 순이었다.

<표 3.14> 시·도별 인구분포 변화와 그 구성비

(단위: 천명)

| 시·도     | 1960   | 1970   | 1980   | 1985   | 1990   | 1995   |
|---------|--------|--------|--------|--------|--------|--------|
| 전국      | 24,989 | 31,435 | 37,407 | 40,420 | 43,390 | 44,554 |
| 서울      | 2,445  | 5,525  | 8,351  | 9,626  | 10,603 | 10,217 |
| 부산      | 1,164  | 1,876  | 3,157  | 3,512  | 3,796  | 3,810  |
| 대구      | 677    | 1,081  | 1,604  | 2,028  | 2,228  | 2,445  |
| 인천      | 401    | 643    | 1,082  | 1,385  | 1,816  | 2,304  |
| 광주      | 314    | 502    | 727    | 906    | 1,139  | 1,257  |
| 대전      | 229    | 414    | 651    | 866    | 1,049  | 1,271  |
| 경기      | 2,347  | 2,710  | 3,849  | 4,793  | 6,154  | 7,638  |
| 강원      | 1,637  | 1,865  | 1,790  | 1,724  | 1,580  | 1,465  |
| 충북      | 1,370  | 1,480  | 1,423  | 1,390  | 1,389  | 1,395  |
| 충남      | 2,299  | 2,444  | 2,303  | 2,134  | 2,013  | 1,765  |
| 전북      | 2,395  | 2,432  | 2,287  | 2,201  | 2,069  | 1,901  |
| 전남      | 3,239  | 3,503  | 3,052  | 2,842  | 2,507  | 2,066  |
| 경북      | 3,172  | 3,475  | 3,348  | 3,010  | 2,860  | 2,672  |
| 경남      | 3,018  | 3,119  | 3,321  | 3,515  | 3,672  | 3,842  |
| 제주      | 282    | 365    | 463    | 488    | 514    | 505    |
| ( 구성비 ) |        |        |        |        |        |        |
| 전국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서울      | 9.8    | 17.6   | 22.3   | 23.8   | 24.4   | 22.9   |
| 부산      | 4.7    | 6.0    | 8.4    | 8.7    | 8.7    | 8.6    |
| 대구      | 2.7    | 3.4    | 4.3    | 5.0    | 5.1    | 5.5    |
| 인천      | 1.6    | 2.0    | 2.9    | 3.4    | 4.2    | 5.2    |
| 광주      | 1.3    | 1.6    | 1.9    | 2.2    | 2.6    | 2.8    |
| 대전      | 0.9    | 1.3    | 1.7    | 2.1    | 2.4    | 2.9    |
| 경기      | 9.4    | 8.6    | 10.3   | 11.9   | 14.2   | 17.1   |
| 강원      | 6.5    | 5.9    | 4.8    | 4.3    | 3.6    | 3.3    |
| 충북      | 5.5    | 4.7    | 3.8    | 3.4    | 3.2    | 3.1    |
| 충남      | 9.2    | 7.8    | 6.2    | 5.3    | 4.6    | 4.0    |
| 전북      | 9.6    | 7.7    | 6.1    | 5.4    | 4.8    | 4.3    |
| 전남      | 13.0   | 11.1   | 8.2    | 7.0    | 5.8    | 4.6    |
| 경북      | 12.7   | 11.1   | 9.0    | 7.4    | 6.6    | 6.0    |
| 경남      | 12.1   | 9.9    | 8.9    | 8.7    | 8.5    | 8.6    |
| 제주      | 1.1    | 1.2    | 1.2    | 1.2    | 1.2    | 1.1    |

\* 외국인 제외.

<표 3.15> 전국 인구 증가분의 시·도별 비중

(단위: %)

| 시·도 | 1960-70 | 1970-80 | 1980-85 | 1985-90 | 1990-95 |
|-----|---------|---------|---------|---------|---------|
| 전국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서울  | 47.8    | 47.3    | 42.3    | 32.9    | -33.2   |
| 부산  | 11.1    | 21.4    | 11.8    | 9.6     | 1.2     |
| 대구  | 6.3     | 8.8     | 14.1    | 6.7     | 18.7    |
| 인천  | 3.8     | 7.3     | 10.1    | 14.5    | 41.9    |
| 광주  | 2.9     | 3.8     | 5.9     | 7.8     | 10.2    |
| 대전  | 2.9     | 4.0     | 7.1     | 6.2     | 19.1    |
| 경기  | 5.6     | 19.1    | 31.3    | 45.8    | 127.5   |
| 강원  | 3.5     | -1.3    | -2.2    | -4.9    | -9.8    |
| 충북  | 1.7     | -1.0    | -1.1    | -0.0    | 0.5     |
| 충남  | 2.3     | -2.4    | -5.6    | -4.1    | -21.3   |
| 전북  | 0.6     | -2.4    | -2.8    | -4.4    | -14.5   |
| 전남  | 4.1     | -7.6    | -7.0    | -11.3   | -37.9   |
| 경북  | 4.7     | -2.1    | -11.2   | -5.0    | -16.1   |
| 경남  | 1.6     | 3.4     | 6.4     | 5.3     | 14.6    |
| 제주  | 1.3     | 1.6     | 0.9     | 0.9     | -0.8    |

<표 3.16> 시·도별 증가인구와 순이동인구의 비교, 1970-95.

(단위: 천인, %)

| 시·도 | 1970-80 |       |        | 1980-90 |       |       | 1990-95 |       |         |
|-----|---------|-------|--------|---------|-------|-------|---------|-------|---------|
|     | 증가인구    | 순이동   | 비율     | 증가인구    | 순이동   | 비율    | 증가인구    | 순이동   | 비율      |
| 서울  | 2,825   | 1,072 | 37.9   | 2,253   | 242   | 10.7  | -386    | -879  | 227.7   |
| 부산  | 1,281   | 528   | 41.2   | 639     | 119   | 18.6  | 14      | -227  | -1653.8 |
| 대구  | -       | -     | -      | 624     | 226   | 36.2  | 217     | 22    | 10.1    |
| 인천  | -       | -     | -      | 734     | 428   | 58.3  | 488     | 205   | 42.0    |
| 광주  | -       | -     | -      | 233*    | 64*   | 27.5* | 118     | 60    | 50.7    |
| 대전  | -       | -     | -      | 183*    | 102*  | 55.3* | 222     | 164   | 74.0    |
| 경기  | 1,577   | 731   | 46.4   | 2,306   | 1,287 | 55.8  | 1,484   | 1,167 | 78.7    |
| 강원  | -75     | -279  | 371.0  | -210    | -316  | 150.2 | -115    | -98   | 85.5    |
| 충북  | -57     | -214  | 375.7  | -34     | -169  | 494.8 | 6       | 15    | 240.5   |
| 충남  | 96      | -324  | -335.9 | -290    | -351  | 121.0 | -248    | -72   | 29.0    |
| 전북  | -145    | -341  | 234.9  | -217    | -374  | 172.1 | -169    | -87   | 51.5    |
| 전남  | -226    | -592  | 261.9  | -545    | -595  | 109.2 | -441    | -194  | 44.0    |
| 경북  | 396     | -227  | -57.3  | -488    | -514  | 105.3 | -188    | -71   | 37.8    |
| 경남  | 202     | -237  | -117.4 | 351     | -48   | -13.7 | 170     | 90    | 52.9    |
| 제주  | 98      | -18   | -18.5  | 512     | -11   | -21.2 | -9      | 2     | -21.4   |
| 전국  | 5,972   | -     | -      | 5,984   | -     | -     | 1,163   | -     | -       |

\* 1985-90년 기간의 인구증가와 순이동임.

<표 3.17> 시·도별 인구 불균형 분포의 측정, 1970-95.

(단위 : %)

| 시도           | Duncan 지수에 대한 구성비 <sup>1)</sup> |       |       |       | 완전균형 분포를 위해 필요한<br>인구감소 혹은 증가 비율 |        |        |        |
|--------------|---------------------------------|-------|-------|-------|----------------------------------|--------|--------|--------|
|              | 1970                            | 1980  | 1990  | 1995  | 1970                             | 1980   | 1990   | 1995   |
| 강원           | -36.7                           | -30.8 | -27.9 | -27.0 | -187.3                           | -256.6 | -367.5 | -414.0 |
| 경북           | -28.1                           | -27.5 | -27.1 | -26.1 | -76.9                            | -122.3 | -197.2 | -219.4 |
| 전남           | -3.1                            | -9.8  | -12.8 | -14.5 | -8.4                             | -48.0  | -106.0 | -157.5 |
| 충북           | -9.5                            | -9.3  | -9.0  | -8.6  | -61.1                            | -49.1  | -134.0 | -139.2 |
| 충남           | -3.3                            | -6.6  | -7.8  | -8.8  | -13.0                            | -42.9  | -80.6  | -112.7 |
| 전북           | -1.6                            | -5.1  | -7.0  | -7.6  | -6.2                             | -32.9  | -69.9  | -89.9  |
| 제주           | -2.3                            | -1.5  | -1.4  | -1.4  | -60.7                            | -49.1  | -55.1  | -62.3  |
| 경남           | -7.5                            | -7.8  | -7.1  | -6.0  | -22.9                            | -34.8  | -40.2  | -35.0  |
| 경기           | -7.9                            | -1.7  | 7.0   | 13.7  | -6.2                             | -6.7   | 23.5   | 40.3   |
| 대전           | 4.1                             | 4.1   | 3.9   | 4.6   | 93.2                             | 94.9   | 77.6   | 80.9   |
| 인천           | 6.2                             | 6.7   | 8.1   | 8.3   | 91.7                             | 93.0   | 92.4   | 81.4   |
| 광주           | 4.6                             | 4.3   | 4.4   | 4.6   | 86.3                             | 88.9   | 80.8   | 82.1   |
| 대구           | 10.8                            | 10.3  | 9.8   | 9.1   | 94.7                             | 95.8   | 91.1   | 83.7   |
| 부산           | 18.5                            | 20.1  | 17.2  | 15.5  | 93.6                             | 94.8   | 94.0   | 91.2   |
| 서울           | 56.0                            | 54.4  | 49.7  | 44.2  | 96.4                             | 97.3   | 97.5   | 97.3   |
| Duncan지<br>수 | 30.3                            | 39.9  | 47.9  | 50.5  | -                                | -      | -      | -      |
| Gini 계수      | 41.5                            | 51.1  | 60.2  | 62.3  | -                                | -      | -      | -      |

주:1) 불균형 분포에 대한 지역별 책임의 정도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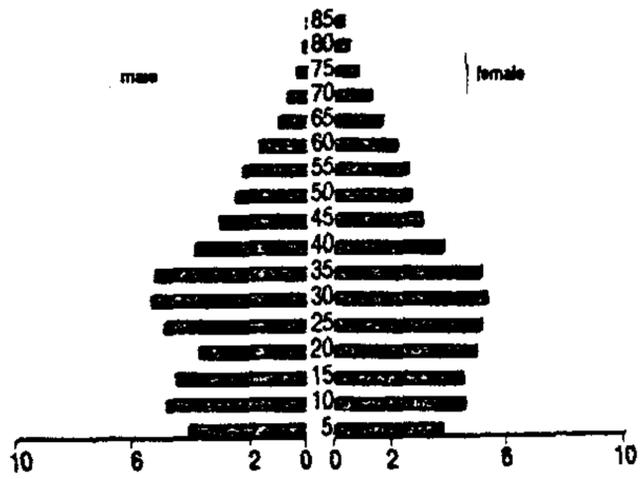
### 3.2 이동인구의 특성에 관한 분석

이동인구와 총인구의 연령구조를 비교하면 이동인구는 대체로 소년인구(5-14세 인구)와 노인인구(65세 이상 인구)가 작고 노동력 인구(15-64세)의 구성비는 크다. 1990-95년 기간의 경우 소년인구의 구성비는 별 차이가 없었으나 노동력인구는 79% 대 76%로서 이동인구의 구성비가 높고, 노인인구는 3.3% 대 6.6%로서 이동인구의 구성비가 훨씬 낮았다. 이동인구와 총인구의 연령을 좀 더 세분하여 연령별 구성비를 보면 10-19세 계층에서는 이동인구의 구성비가 5.2% 포인트 낮고, 20-39세 계층에서는 이동인구가 58.5%로 총인구보다 18.8% 포인트나 더 높다. 40세 이상 인구의 구성비는 이동인구에서 19.6%로서 14.5%포인트가 더 낮다. 이는 20-39세 연령 계층에서의 이동성향이 매우 높고 10-19세와 40세 이상 인구에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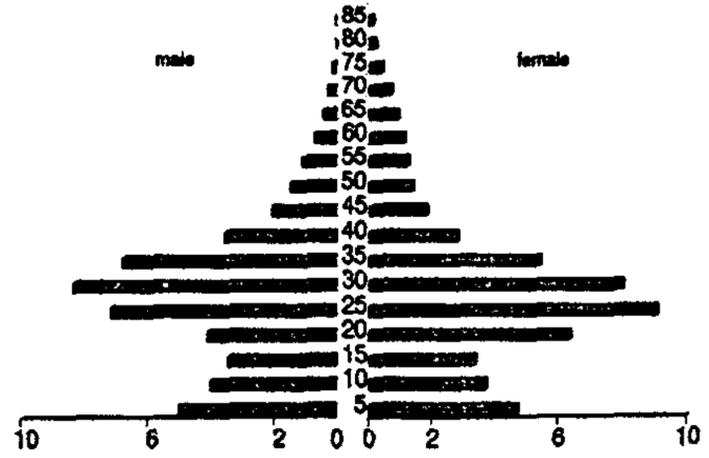
이동성향이 상대적으로 더 낮음을 보여준다. <도표 3.1>은 이동인구의 성 및 연령 구조를 총인구와 대비하여 인구 피라미드로 나타내었다. 전체적인 피라미트의 형태를 볼 때 인구가 이동의 연령선택성이 상당히 강함을 알 수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시도간 이동에서 연령선택성이 더 강함을 볼 수 있다. <도표 3.2>는 연령별 이동율을 성별로 대비한 것으로 대체적인 성 및 연령별 이동성향을 알 수 있다.

시·도내 이동의 경우 연령계층별로 이동율이 가장 높은 연령은 남자 30-34세, 여자 25-29세이며 남자의 경우 20-24세에서 이동율이 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5세 이상에서는 남녀 모두 아주 낮고 안정된 이동율을 보인다. 시·도간 이동의 경우 전 연령층에서 시도내 이동보다는 이동율이 다소 높았으며, 남녀 모두 25-29세에서 이동율이 가장 높았고, 30-34세 연령층에서도 높은 이동율을 보여준다. 또한 45세 이상에서는 남녀 모두 아주 낮고 안정된 이동율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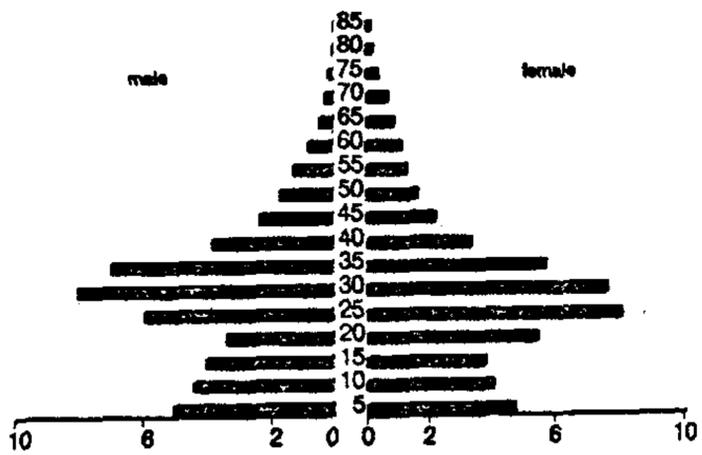
전 연령의 성별 구조는 시·도내 이동과 시·도간 이동 간에 다소의 차이를 보인다. 1990-95년 기간 시·도내 이동인구 95.6, 시·도간 이동인구 95.7로 1995년 전체인구(5세 이상)의 95.3에 비해 별차이가 없다. 시·도간 이동의 경우 연령계층별 소년인구와 노동력 인구에서는 107.1과 96.2로서 총인구의 108.7과 96.4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노인인구는 47.3으로서 전체 노인인구 58.9에 비해 11.6 포인트가 낮아 노인인구에서는 여자의 이동성향이 남자보다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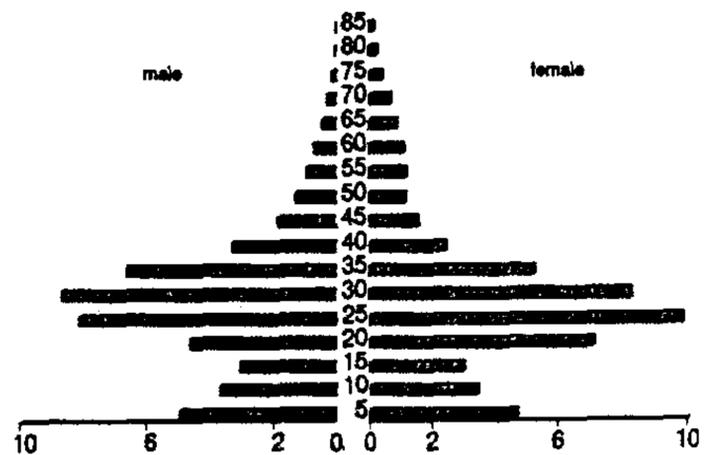
총인구



총이동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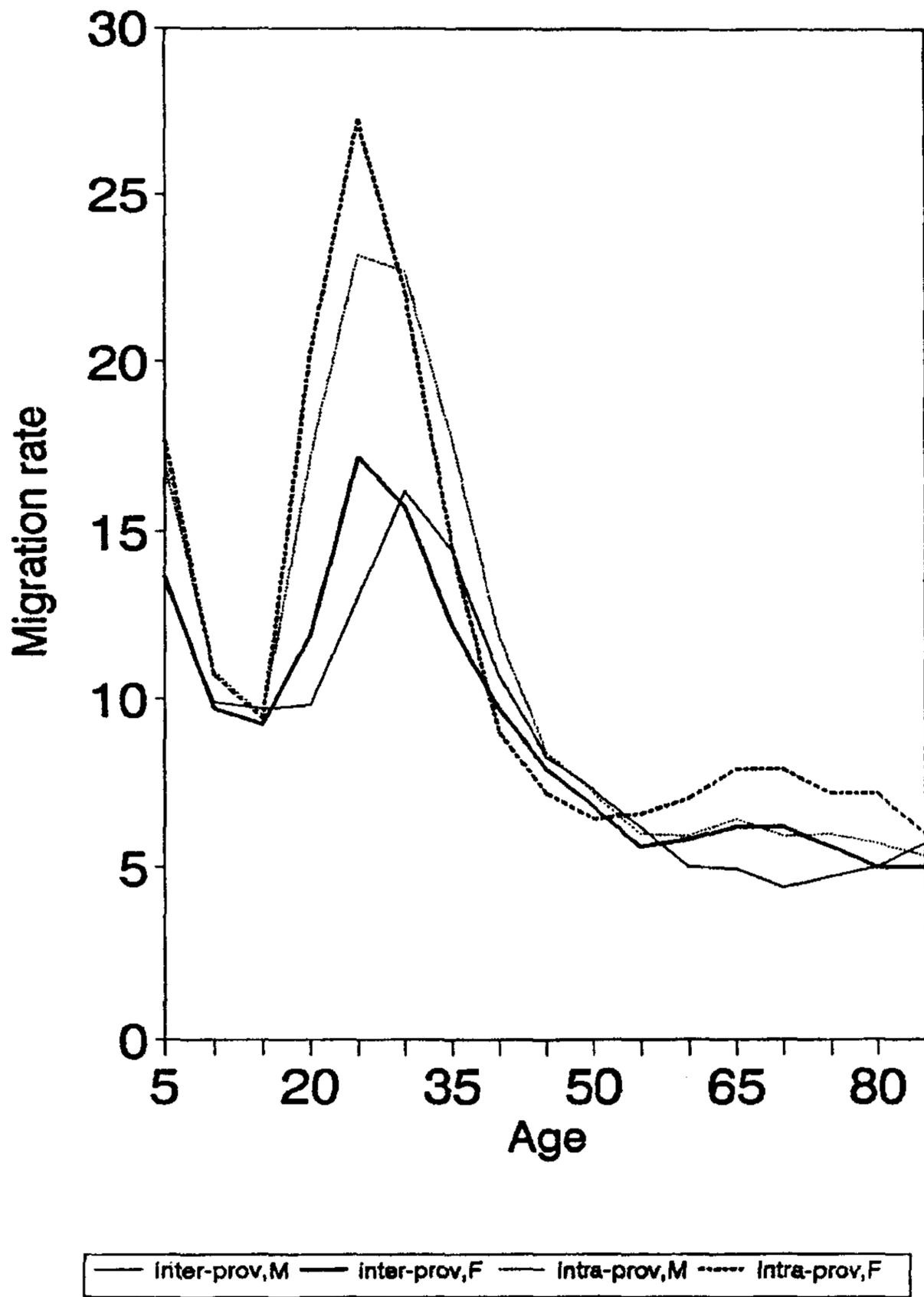


시·도내 이동인구



시·도간 이동인구

<도표 3.1> 총인구(1995년)와 이동인구(1990-95년) 인구피라밋



<도표 3.2 > 성 및 연령별 이동율, 1990-95  
 자료: 통계청,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표 3.18> 이동인구의 특성별 분포, 1990-95

| 특 성                        | 총인구   | 총이동인구 | 시·도내이동인구 | 시·도간이동인구 |
|----------------------------|-------|-------|----------|----------|
| <b>&lt;성 비&gt;</b>         |       |       |          |          |
| 5-14                       | 108.7 | 108.0 | 109.1    | 107.1    |
| 15-19                      | 101.8 | 104.5 | 106.3    | 102.7    |
| 20-24                      | 76.6  | 64.2  | 62.8     | 65.0     |
| 25-29                      | 96.5  | 79.0  | 73.7     | 82.3     |
| 30-34                      | 101.3 | 104.4 | 104.3    | 104.4    |
| 35-54                      | 102.6 | 121.2 | 115.7    | 126.6    |
| 55+                        | 73.6  | 64.4  | 67.7     | 61.8     |
| 계                          | 95.3  | 95.7  | 95.6     | 95.7     |
| <b>&lt;남자 연령구성비&gt;</b>    |       |       |          |          |
| 5-14                       | 8.9   | 9.0   | 9.5      | 8.7      |
| 15-19                      | 4.5   | 3.5   | 4.0      | 3.0      |
| 20-24                      | 3.8   | 4.1   | 3.4      | 4.6      |
| 25-29                      | 4.9   | 7.2   | 5.9      | 8.1      |
| 30-34                      | 5.4   | 8.3   | 8.0      | 8.6      |
| 35-54                      | 14.8  | 13.8  | 14.9     | 13.1     |
| 55+                        | 6.5   | 2.9   | 3.2      | 2.8      |
| 계                          | 48.8  | 48.9  | 48.9     | 48.9     |
| <b>&lt;여자 연령구성비&gt;</b>    |       |       |          |          |
| 5-14                       | 8.2   | 8.4   | 8.7      | 8.1      |
| 15-19                      | 4.5   | 3.3   | 3.8      | 3.0      |
| 20-24                      | 4.9   | 6.4   | 5.4      | 7.1      |
| 25-29                      | 5.1   | 9.1   | 8.1      | 9.9      |
| 30-34                      | 5.3   | 8.0   | 7.6      | 8.3      |
| 35-54                      | 14.4  | 11.4  | 12.8     | 10.3     |
| 55+                        | 8.8   | 4.6   | 4.7      | 4.5      |
| 계                          | 51.2  | 51.1  | 51.1     | 51.1     |
| <b>&lt;교육정도별 구성비&gt;</b>   |       |       |          |          |
| 고등학교                       | 29.4  | 35.1  | 34.5     | 35.5     |
| 대학교 이상                     | 14.5  | 22.6  | 20.3     | 24.4     |
| 재학, 휴학                     | 25.1  | 22.6  | 24.2     | 21.4     |
| <b>&lt;결혼여부&gt;</b>        |       |       |          |          |
| 미 혼                        | 28.0  | 27.2  | 26.2     | 27.9     |
| 유배우                        | 63.1  | 66.5  | 66.9     | 66.3     |
| 그 외                        | 8.9   | 6.3   | 6.9      | 5.8      |
| <b>&lt;경제활동인구 비율&gt;</b>   |       |       |          |          |
| 남 자                        | 77.5  | 82.7  | 81.1     | 83.8     |
| 여 자                        | 38.9  | 35.3  | 35.9     | 34.8     |
| <b>&lt;산업별 취업자 구성비&gt;</b> |       |       |          |          |
| 광 공 업                      | 23.4  | 28.4  | 26.9     | 29.5     |
| 서비스업                       | 60.4  | 69.4  | 71.4     | 67.9     |
| <b>&lt;주택소유자 비율&gt;</b>    |       |       |          |          |
| 자기집                        | 52.5  | 30.5  | 34.4     | 27.7     |
| 월 세                        | 15.8  | 12.2  | 23.9     | 22.7     |
| <b>1인가구 비율</b>             |       |       |          |          |
| 1인가구 비율                    | 12.7  | 16.3  | 12.8     | 18.9     |
| <b>평균가구원수</b>              |       |       |          |          |
| 평균가구원수                     | 3.3   | 3.1   | 3.2      | 3.0      |

자료: 통계청, 1995년 인구및주택 총조사 2% 표본.

<표 3.18>에서 15세이상 총 이동인구의 혼인 상태별 구성비는 총인구와 비교할 때 미혼이 27.2% 대 28.0%, 유배우는 66.5% 대 63.1%, 그 외 사별과 이혼은 6.3% 대 8.9%이었다. 총 이동인구의 미혼인구 비율이 총인구보다 더 높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기대와는 달리 미혼인구 구성비는 별차이가 없었으나, 유배우의 구성비는 총 이동인구에서 다소 높았고, 사별과 이혼의 구성비는 이동인구에서 약간 낮았다. 이와 같은 예상밖의 내용은 혼인상태 자료가 이동당시의 혼인상태가 아니고 이동후 조사시점의 자료라는 점, 이동인구 중에는 혼인과 관련된 이동 및 결혼후의 거주지 이동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동인구와 총인구의 연령구조상의 차이 등이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동인구와 총인구의 가구원수별 가구 분포를 비교하면 가구원이 2-4인 가구의 경우 구성비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11.6%와 17.0%로서 이동인구쪽이 5.4% 포인트 낮았다. 가구원 5인 이상의 큰 가구일 때 이동성향이 다소 낮음을 알 수 있다. 가구원수에 관한 자료 역시 이동후의 자료임을 감안할 때 이동당시의 구성비에서는 더 큰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1인가구의 경우 총인구 12.7%, 이동인구 16.3%로 이동인구에서 더 높았고 평균가구원수는 총인구 3.3명, 이동인구 3.1명으로 이동인구에서 다소 낮았다.

이동인구와 전체인구의 학력 수준을 비교하면 고등학교와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의 구성비만을 비교할 때 57.7% 대 43.9%로서 이동인구 쪽의 교육수준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만을 선택하여 주택 소유여부를 비교하면, 자기집에서 사는 사람의 구성비가 이동인구의 경우 30.5%인데 비해 전체인구의 경우 52.5%로서 22% 포인트의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주택 소유여부는 이동 후 조사시점 현재의 주택 소유에 관한 자료이므로 이 자료만으로는 자기집이 없는 계층의 이동성향이 높다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가구주의 연령이 주택소유의 중요요인중 하나일 뿐만아니라 또한 이동인구와 전체 인구의 대도시 및 시부와 군부의 구성, 연령별 구조차이가 주택소유 구성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sup>2)</sup>.

이동가구의 세대 구성비는 1세대 가구가 13.0%로서 총가구의 1세대 가구 15.4%보다 다소 낮아 기대와는 차이가 있었으며, 2세대 가구는 이동가구 61.6%, 총가구의 56.1%로서 5.5% 포인트가 높았다. 특히 부부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2세대 가

2) 시·도별 전출입 인구의 주택 소유관계 자료의 분석에서는 자기집 마련이 상당히 중요한 이동 사유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의 구성비는 이동가구 50.5%, 총가구 43.0%로서 이동가구가 7.5% 포인트 높아, 여러 세대 구성형태중 이동 가구와 총가구간에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세대 구성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면 성별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남자는 이동인구에서 더 참가율이 더 높고, 여자는 총인구에서 더 높았다. 여자 이동인구의 경우 출산의 전성기에 있는 25-34세 연령계층의 구성비가 높아 출산과 관련 취업을 자제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산업별 취업자의 구성비를 보면 이동인구는 광공업과 서비스업의 구성비가 총인구의 경우보다 더 높았다.

이동인구중 취업자의 직업별 구성을 볼 때 전체인구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직종은 농림 어업근로자의 구성비 2.0% 대 15.9%로서 전체인구 쪽의 구성비가 훨씬 높다. 이것은 시부로의 이동인구가 군부로의 이동인구 보다 8배나 많고(표 3.8참조), 직업에 관한 자료가 이동후의 직업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외에 기술공, 준전문가와 사무직원은 전체인구 22.5%인데 비해 이동인구 30.1%, 입법자 고위 임직원과 전문가는 전체인구에서 10.0%인데 비해 이동인구 13.7%로서 모두 이동인구에서 그 구성비가 상당히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종사상의 지위를 보면 임금근로자의 구성비가 이동인구에서 75%로 전체인구의 60%보다 훨씬 높고, 사업주의 구성비는 비슷하나 자영업주와 무급의 가족종사자는 이동인구에서 그 구성비가 훨씬 낮다. 이는 군부의 농업자영주와 그 가족종사자가 도시로의 이동 후 상당부분이 임금봉급근로자로 바뀌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가구주의 직업과 종사상의 지위를 비교할 경우에도 구성비에는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인 경향은 가구원을 포함할 때와 큰 차이가 없다.

인구이동성향과 관련하여 인구특성별 추이를 종합 정리하면, 성 및 연령별로 볼 때 노인인구 특히 남자 55세 이상 노인인구에서 이동성향이 다소 낮은 것을 볼 수 있었다. 그외 이동인구와 총인구의 구성비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특성으로는 학력수준, 주택 소유여부이었다. 학력수준에서는 고등학교와 대학교육을 받은 경우 이동성향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이며, 단정할 수는 없으나 자기집 소유 가구주는 이동성향이 훨씬 낮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가구의 세대별 구성에서는 2세대 가구중 특히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의 구성비가 이동가구와 총가구간에 상당히 큰 차이가 있고, 직업별 또는 종사상의 지위별 구성비에서도 상당히 큰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경우 이동 당시의 세대구성이나 직업을 알 수 없으므로 이동성향의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는 단정할 수는 없다.

혼인상태별로는 미혼이나 사별, 이혼보다 유배우의 구성비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동성향의 차이보다는 이동인구의 연령구성에서 오는 차이일 가능성이 높다. 가구원수별로 5인 이상의 큰 가구에서 이동성향이 다소 낮았다.

시·도내와 시·도간 이동인구 특성상의 차이점을 보면 연령계층별 성비는 대체로 비슷하며, 연령별 인구구성비는 남자의 경우 20-29세 계층에서 시·도내 이동 19.2%, 시·도간 이동 26.0%로 시·도간 이동에서 상당히 높으며 35-39세 계층에서는 시·도내 이동에서 다소 높은 구성비를 보여, 중년이후 단거리 이동이 더 활발함을 보여준다. 여자의 경우 대체로 남자와 같이 20-34세 계층에서는 시·도간 이동이 많고 35세 이후는 시·도내 이동인구의 구성비가 더 높으나, 20-29세 연령계층의 구성비는 모든 이동인구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았다.

교육정도별 구성비를 보면 고등학교 이상의 구성비가 시·도내 이동 54.8%, 시·도간 이동 59.9%로서 시·도간 이동에서 학력수준이 더 높고, 재학 및 휴학생의 구성비는 시·도내 이동에서 다소 더 높았으나 총인구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혼인상태별 구성에서는 시·도간 이동에서 미혼인구의 구성비가 다소 높았다.

경제활동 참가율에는 별 큰 차이가 없었으나 산업별 취업자의 구성비는 시·도간 이동인구의 경우 광공업 취업자의 구성비가 다소 높았고, 시·도내 이동의 경우 서비스업 취업자의 구성비가 다소 높았다. 또한 시·도내 이동의 경우 주택소유자 비율과 월세(담보, 무담보, 사글세 포함)가 모두 높았고, 시·도간 이동에서는 전세의 비율이 높았다. 또한 시·도간 이동에서 평균가구원수가 3.0명으로 시·도내 이동의 3.2명 보다 약간 낮았으며, 1인가구의 비율은 시·도간 이동의 경우 18.9%로 시·도내 이동 12.8%보다 상당히 높았다.

<표 3.19>에서 각 시·도별로 전입인구와 전출인구간의 연령계층별 성비를 비교하면, 소년인구에서 특별히 큰 차이를 보이는 시·도는 대구와 충남, 전남과 제주로서, 대구와 충남은 전입인구 성비가 136과 124로서 전출인구의 104와 102에 비해 훨씬 높고, 전남과 제주에서는 전입인구 89와 79에 비해 전출인구 111과 114로서 전입인구가 훨씬 낮은 성비를 보였다. 15세 이상 인구를 15-24세, 25-39세, 40세 이상 등 연령계층별로 나누어 보면, 전입과 전출인구의 성비에서 뚜렷한 지역별 패턴을 볼 수 있다. 즉, 25-39세의 경우 전입인구는 대구를 제외한 대도시와 경기의 성비가 대체로 높고 (100.2~103.8) 충남과 제주를 제외한 그 외의 도에서 성비가 대체로 낮았으며 (91.1~97.1), 이러한 추이는 전출과는 상반되는 것이었다.

40세 이상에서는 25-39세와는 정반대되는 현상으로 전입의 경우 대도시와 경기

에서는 성비가 낮고 (87.2~102.2) 그 외 도에서는 성비가 높았으며 (103.4~120.8), 전출의 경우 반대로 대전을 제외한 대도시와 경기에서는 성비가 높고 (98.4~112.1), 그 외 도에서는 성비가 낮았다(74.3~95.1). 이러한 전입·전출인구의 성별 패턴은 시부→군부 이동인구와 군부→시부 이동인구의 성별 패턴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이러한 5년간 이동인구가 이들 각 시·도의 연령별 성비에 주는 영향을 보면, 15-24세의 경우 서울 -5.1%, 충북 8.0%, 충남 15.2%, 전북 7.4%, 전남 10.1% 등으로 성비를 증가 혹은 감소시키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5-39세의 경우에는 강원과 전남에서 각각 -11.6%와 -4.6%씩 감소시키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도별 전입인구과 전출인구의 연령구조를 대비하면 독특한 패턴을 볼 수 있다. 즉 서울, 인천, 경기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전출인구의 소년인구 구성비가 전입인구보다 높았고, 이 이외의 지역에서는 소년인구의 구성비가 전출인구보다 전입인구에서 높았다. 또한, 6대 도시와 경기 지역에서 15-24세 인구구성비는 모두 높았으며, 25-39세 인구의 구성비는 모두 낮았다. 이와는 반대로 강원도를 비롯한 그 외의 도에서는 15-24세의 구성비는 전입인구에서 훨씬 낮고, 25-39세의 구성비는 전입인구에서 모두 높았다.

이들 이동인구가 각 지역의 인구 연령구조에 주는 영향을 보면 15-24세의 경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에서 5년간 4.9%~16.0%정도 구성비를 증가시켰고,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등지에서 이 연령계층의 구성비가 5년 동안에 10.3%~29.3% 정도씩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의 경우 15-24세 연령계층의 구성비가 인구이동에 의해 5년동안 거의 30% 감소하는 큰 영향을 받고 있다.

25-39세의 경우 서울, 부산과 강원의 구성비가 5년간 인구이동에 의해 7.2%~9.8% 감소하는 영향을 받았고, 인천, 대전, 경기에서 5년간 7.4~9.8% 증가하는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40세 이상에서는 서울의 이 연령층 구성비가 5년간 인구이동에 의해 6.8% 감소하였고, 인천, 대전, 경기에서는 각각 5.2%~10.9% 증가하는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조사시점에서 전입인구와 전출인구의 혼인상태별 구성을 보면 매우 일관성 있는 패턴을 볼 수 있는 바, 서울을 포함한 6대도시와 경기도는 미혼인구의 구성비가 전입인구에서 훨씬 크고, 유배우 구성비는 반대로 전입인구에서 훨씬 작다. 이들 미혼인구의 구성비가 높은 지역은 서울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입인구가 전출인구보다 많은 지역이다.

이동인구가 각 지역인구의 혼인상태별 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서울과 부산을 제외하고는 대도시와 경기의 경우 미혼인구비율을 증가시키는 영향을 주며, 특히 인천과 대전에서 5년간 7.9%와 9.8%를 증가시키는 큰 영향이 있었고, 그 외도에서는 특히 전남에서 5년간 -25.6%, 그리고 강원, 충남, 경북 및 전북 등에서 5년간 -9.7%~-14.3% 정도로 미혼인구비율을 낮추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출입 인구의 학력수준을 보면 각 지역 일반인구의 학력수준보다 대체로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의 구성비만을 보면 각 지역 일반인구의 경우 가장 낮은 전남의 28.1%와 가장 높은 서울의 52.6% 사이에 그 외 시·도들이 분포되어 있으며, 6대도시와 경기도의 경우 모두 44%이상으로 그 외도보다 교육수준이 높다. 이에 비교하여, 각시·도의 전입인구는 가장 낮은 광주광역시의 50.2%와 가장 높은 서울의 62.2%사이에 분포하고 있으며 대전을 제외한 6대도시의 경우 다른 도에 비하여 훨씬 낮은 구성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서울, 경기, 제주, 전남, 경남 등은 전입자중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의 구성비가 모두 62% 이상으로서 특히 높았다.

각 시·도의 전출인구중에서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의 구성비가 가장 낮은 도는 전남의 52.9%이고 가장 높은 시·도는 광주광역시의 66.3%이었다. 이 구성비의 지역적 특성은 대체로 전입인구와는 상반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즉, 6대도시에서의 전출인구는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의 비율이 높고, 그 외도에서는 이 비율이 낮았다. 이는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인력이 대도시에서 여타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으로, 대학을 비롯한 학교시설이 대도시 중심으로 되어 있고 졸업과 직장으로 배치되거나 대도시에서 교육을 받고 귀향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으로 유추된다.

이와같은 측면을 나타내는 통계로 전입과 전출인구 중의 재·휴학생의 비율에서 큰 차이가 나는 지역으로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충북, 전북 등은 재학생의 비율이 전입인구에서 훨씬 높다. 반면 경기,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지역에서는 전출인구에서 재학생의 비율이 훨씬 높아 외지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여 볼 때 인구가 이동의 결과 휴·재학생의 구성비가 크게 증가하는 지역으로는 대전, 경기, 광주, 인천, 대구, 충북 등을 들 수 있다. 다만 상당히 큰 교육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과 부산에서 인구가 이동이 재학생의 수를 감소시키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좀 더 규명해 보아야 할 과제로 생각된다.

각 시·도의 전입인구와 전출인구의 직업별 구성에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이들은 일반인구의 직업별 구성과도 차이가 있다. 종사상의 지위별 구성을 보면 임금 봉급근로자의 구성비가 전국적으로는 이동인구에서 일반인구보다 높다. 그러나 지역별로는 전출인구의 경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도 등에서 임금 봉급근로자의 비율이 전입인구보다 높고 그외 지역에서는 훨씬 낮은 구성비를 가지고 있다. 전출인구의 고용원 없는 자영자의 구성비는 반대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도에서 전입인구보다 낮고 그외 지역에서는 훨씬 높다.

각 시·도별로 가구원수별 분포를 비교하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에서만 전출가구보다 전입가구의 1인 가구의 구성비가 높다. 이동인구의 각 지역 1인 가구 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부산을 제외한 대도시와 경기도 및 경남에서 1인 가구 비율을 증가시키는 영향이 있음을 볼 수 있다. 6대도시 중 부산이 빠지고 경남이 포함된 것은 이 두 인접지역 사이 전출입인구의 어떤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동인구가 각 지역 평균가구원수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대체로 순전출인구를 기록하고 있는 서울, 부산을 제외한 대도시와 경기, 경남, 제주, 충북에서 평균 가구원수를 증가시키는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소유상황을 보면 모든 시·도의 전출·전입가구에서 그 지역 전체가구의 주택 소유비율보다 훨씬 낮은 비율을 보인다. 다만 서울에서의 전출가구만이 서울 전체가구의 주택 소유비율 38.8%보다 3.3% 포인트 높은 42.1%로 나타났다. 또한 경기 및 인천 전입인구는 타지역보다는 훨씬 높은 주택 소유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서울 전출인구의 76.3%가 경기와 인천을 목적지로 하고 있고 경기와 인천 전입인구중 서울을 출발지로 한 이동인구가 67.4%와 40.2%를 각각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서울 전출인구의 높은 주택 소유비율의 영향인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 서울에서 인천, 서울에서 경기로 가는 전출가구의 주택소유비율은 46.4%와 49.2%로서 관련지역 일반가구의 주택소유비율보다 높아, 서울에서 주변 수도권으로의 전출이동은 주택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표 3.19> 시·도 및 특성별 전출입인구 구조와 순이동이 인구구조에 미치는 영향, 1990-95.  
( 시도간 이동인구 )

1. 연령별 성비

(단위: %)

| 시·도 | 전체    |       |      | 전입    |       |       | 전출    |       |       | 순이동의 영향 |       |      |
|-----|-------|-------|------|-------|-------|-------|-------|-------|-------|---------|-------|------|
|     | 15-24 | 25-39 | 40+  | 15-24 | 25-39 | 40+   | 15-24 | 25-39 | 40+   | 15-24   | 25-39 | 40+  |
| 서울  | 85.5  | 100.5 | 91.3 | 59.4  | 103.8 | 87.2  | 90.6  | 98.0  | 99.6  | -5.1    | 1.4   | -1.7 |
| 부산  | 85.6  | 95.6  | 90.4 | 62.0  | 100.2 | 99.5  | 76.6  | 92.1  | 104.7 | -1.1    | 1.4   | -0.6 |
| 대구  | 83.7  | 96.9  | 87.9 | 63.8  | 95.0  | 87.7  | 68.3  | 87.5  | 83.8  | -1.9    | 1.5   | 0.2  |
| 인천  | 91.2  | 104.0 | 92.1 | 77.8  | 102.6 | 92.0  | 70.0  | 97.4  | 112.1 | -0.8    | 0.6   | -1.1 |
| 광주  | 90.8  | 99.2  | 91.1 | 79.6  | 100.5 | 97.8  | 76.2  | 97.4  | 98.4  | -0.7    | 0.6   | 0.2  |
| 대전  | 88.6  | 100.5 | 92.0 | 84.3  | 101.6 | 102.6 | 65.2  | 94.7  | 105.7 | 0.9     | 1.0   | 0.7  |
| 경기  | 88.8  | 102.3 | 93.8 | 84.7  | 100.7 | 94.2  | 73.5  | 96.9  | 109.1 | 0.2     | 0.3   | -0.6 |
| 강원  | 95.9  | 101.5 | 88.8 | 87.3  | 94.6  | 120.2 | 83.8  | 144.8 | 93.9  | 3.1     | -11.6 | 1.0  |
| 충북  | 103.1 | 100.4 | 87.9 | 107.1 | 96.9  | 105.8 | 66.4  | 103.6 | 84.1  | 8.0     | -1.3  | 1.2  |
| 충남  | 94.4  | 103.7 | 84.8 | 112.0 | 103.7 | 115.7 | 68.5  | 116.1 | 74.3  | 15.2    | -2.7  | 2.0  |
| 전북  | 93.9  | 98.1  | 83.0 | 106.4 | 94.4  | 116.4 | 69.7  | 104.8 | 76.5  | 7.4     | -1.8  | 1.2  |
| 전남  | 91.9  | 99.9  | 80.3 | 62.3  | 91.9  | 120.8 | 73.3  | 113.4 | 77.7  | 10.1    | -4.6  | 1.4  |
| 경북  | 89.4  | 101.4 | 83.0 | 77.1  | 97.1  | 103.4 | 71.8  | 102.0 | 83.1  | 4.6     | -1.0  | 0.9  |
| 경남  | 88.1  | 98.5  | 86.1 | 83.7  | 94.6  | 107.6 | 63.9  | 101.4 | 93.8  | 3.2     | -1.1  | 0.9  |
| 제주  | 85.9  | 103.4 | 73.2 | 58.0  | 101.5 | 114.6 | 96.9  | 105.9 | 95.1  | -2.7    | -0.5  | 0.8  |

2. 연령별 구성비

(단위: %)

| 시·도 | 전체    |       |      | 전입    |       |      | 전출    |       |      | 순이동의 영향 |       |      |
|-----|-------|-------|------|-------|-------|------|-------|-------|------|---------|-------|------|
|     | 15-24 | 25-39 | 40+  | 15-24 | 25-39 | 40+  | 15-24 | 25-39 | 40+  | 15-24   | 25-39 | 40+  |
| 서울  | 19.6  | 32.3  | 32.4 | 26.4  | 54.5  | 19.0 | 15.3  | 55.7  | 29.0 | -0.6    | -9.8  | -6.8 |
| 부산  | 19.2  | 29.9  | 34.0 | 24.6  | 54.2  | 21.1 | 17.6  | 62.2  | 20.2 | -2.4    | -9.0  | -2.0 |
| 대구  | 19.6  | 31.7  | 31.6 | 27.3  | 52.7  | 20.0 | 15.7  | 66.0  | 18.3 | 4.9     | -1.4  | 0.7  |
| 인천  | 16.1  | 36.5  | 28.7 | 17.9  | 59.9  | 22.2 | 14.3  | 66.5  | 19.2 | 9.4     | 7.4   | 5.2  |
| 광주  | 20.8  | 30.0  | 30.2 | 30.7  | 48.8  | 20.5 | 22.3  | 60.8  | 16.9 | 7.0     | 1.2   | 2.4  |
| 대전  | 19.9  | 32.3  | 30.0 | 26.2  | 53.2  | 20.6 | 20.0  | 62.8  | 17.1 | 13.1    | 10.2  | 5.7  |
| 경기  | 15.7  | 36.4  | 29.4 | 19.1  | 53.2  | 27.6 | 15.8  | 65.4  | 18.8 | 16.0    | 10.9  | 10.9 |
| 강원  | 17.1  | 26.9  | 38.9 | 19.5  | 59.0  | 21.5 | 29.7  | 51.1  | 19.2 | -13.7   | -7.2  | -1.6 |
| 충북  | 17.9  | 27.6  | 37.6 | 21.6  | 59.1  | 19.3 | 28.7  | 53.4  | 17.9 | -3.1    | 1.8   | 0.3  |
| 충남  | 16.5  | 23.9  | 42.8 | 20.2  | 61.3  | 18.6 | 37.9  | 43.5  | 18.6 | -16.6   | -0.6  | -1.0 |
| 전북  | 18.1  | 24.3  | 40.5 | 21.7  | 60.5  | 17.8 | 34.3  | 47.2  | 18.5 | -10.3   | -4.7  | -1.3 |
| 전남  | 15.3  | 23.1  | 44.4 | 13.7  | 67.1  | 19.2 | 41.4  | 37.9  | 20.7 | -29.3   | -4.3  | -2.2 |
| 경북  | 15.3  | 26.0  | 42.3 | 17.1  | 62.0  | 20.8 | 31.6  | 48.8  | 19.6 | -12.8   | -1.4  | -0.7 |
| 경남  | 16.0  | 31.7  | 33.9 | 15.8  | 64.6  | 19.5 | 25.4  | 56.0  | 18.6 | -1.4    | 4.8   | 1.1  |
| 제주  | 18.5  | 29.4  | 35.1 | 13.8  | 68.2  | 18.0 | 26.3  | 57.2  | 16.5 | -2.3    | 2.8   | 0.4  |

3. 혼인 상태별 구성비

(단위 : %)

| 시·도 | 전 체  |      | 전 입  |      | 전 출  |      | 순이동의 영향 |      |
|-----|------|------|------|------|------|------|---------|------|
|     | 미혼   | 유배우  | 미혼   | 유배우  | 미혼   | 유배우  | 미혼      | 유배우  |
| 서울  | 32.9 | 59.9 | 36.6 | 57.4 | 21.8 | 72.6 | -0.8    | -6.1 |
| 부산  | 30.6 | 60.7 | 31.0 | 61.8 | 22.7 | 72.0 | -2.1    | -3.6 |
| 대구  | 30.4 | 61.2 | 32.0 | 61.2 | 23.5 | 70.7 | 2.7     | -0.2 |
| 인천  | 26.5 | 65.8 | 24.0 | 69.8 | 20.0 | 74.4 | 7.9     | 3.3  |
| 광주  | 32.0 | 60.4 | 35.1 | 59.1 | 30.4 | 64.9 | 4.3     | 1.2  |
| 대전  | 30.5 | 62.2 | 31.3 | 63.5 | 27.8 | 67.4 | 9.8     | 4.6  |
| 경기  | 25.6 | 66.8 | 25.8 | 68.4 | 22.1 | 72.3 | 13.8    | 5.2  |
| 강원  | 25.8 | 63.8 | 24.0 | 70.1 | 40.2 | 54.4 | -14.3   | -1.5 |
| 충북  | 26.4 | 63.9 | 26.2 | 69.2 | 35.3 | 58.7 | -2.9    | 0.8  |
| 충남  | 23.9 | 65.0 | 24.8 | 71.0 | 44.0 | 49.8 | -14.2   | -0.1 |
| 전북  | 26.7 | 62.2 | 26.6 | 68.8 | 42.8 | 49.8 | -9.7    | -1.0 |
| 전남  | 22.0 | 64.8 | 17.1 | 78.2 | 46.6 | 47.0 | -25.6   | -1.3 |
| 경북  | 22.7 | 65.3 | 22.2 | 71.7 | 37.8 | 55.2 | -10.8   | -0.3 |
| 경남  | 24.5 | 65.5 | 21.3 | 73.3 | 31.2 | 62.7 | -0.6    | 1.7  |
| 제주  | 29.7 | 57.8 | 24.1 | 69.8 | 35.8 | 57.2 | -1.1    | 1.1  |

4. 교육정도 구성비

(단위 : %)

| 시·도 | 전 체  |      | 전 입  |      | 전 출  |      | 순이동의 영향 |       |
|-----|------|------|------|------|------|------|---------|-------|
|     | 고졸이상 | 휴·재학 | 고졸이상 | 휴·재학 | 고졸이상 | 휴·재학 | 고졸이상    | 휴·재학  |
| 서울  | 52.6 | 25.2 | 62.2 | 21.7 | 61.4 | 20.2 | -5.5    | -5.3  |
| 부산  | 45.0 | 26.5 | 56.4 | 23.8 | 61.3 | 19.0 | -5.3    | -2.5  |
| 대구  | 44.3 | 26.8 | 54.8 | 26.0 | 64.7 | 17.4 | -0.2    | 3.3   |
| 인천  | 48.4 | 24.1 | 59.7 | 18.8 | 60.8 | 21.7 | 5.7     | 4.6   |
| 광주  | 44.4 | 30.3 | 50.2 | 32.4 | 66.3 | 18.7 | 0.9     | 7.2   |
| 대전  | 45.0 | 28.2 | 53.7 | 28.5 | 65.5 | 19.3 | 7.2     | 11.5  |
| 경기  | 49.0 | 23.2 | 62.0 | 19.5 | 58.6 | 22.5 | 10.1    | 9.3   |
| 강원  | 34.3 | 25.9 | 55.3 | 23.7 | 56.7 | 22.5 | -8.5    | -4.4  |
| 충북  | 35.4 | 26.0 | 53.6 | 27.6 | 60.2 | 20.2 | -0.5    | 3.2   |
| 충남  | 29.8 | 24.2 | 59.0 | 22.5 | 55.6 | 23.5 | -4.6    | -3.4  |
| 전북  | 33.0 | 27.1 | 53.6 | 26.4 | 59.4 | 19.9 | -6.9    | -1.5  |
| 전남  | 28.1 | 24.4 | 62.3 | 16.9 | 52.9 | 26.5 | -11.3   | -10.1 |
| 경북  | 32.7 | 23.3 | 59.8 | 18.8 | 57.1 | 24.1 | -4.0    | -4.9  |
| 경남  | 41.6 | 24.6 | 63.4 | 17.1 | 58.2 | 24.2 | 3.2     | -0.3  |
| 제주  | 39.8 | 25.6 | 62.7 | 17.1 | 54.7 | 24.8 | 1.9     | -0.7  |

5. 산업별 취업자의 구성비

(단위 : %)

| 시·도 | 전 체  |      | 전 입  |      | 전 출  |      | 순이동의 영향 |      |
|-----|------|------|------|------|------|------|---------|------|
|     | 광공업  | 서비스업 | 광공업  | 서비스업 | 광공업  | 서비스업 | 광공업     | 서비스업 |
| 서울  | 23.9 | 75.7 | 25.9 | 73.8 | 26.9 | 70.8 | -8.1    | -2.0 |
| 부산  | 28.4 | 68.6 | 30.2 | 68.1 | 32.8 | 63.6 | -6.7    | -2.1 |
| 대구  | 30.0 | 66.9 | 30.9 | 68.2 | 29.5 | 66.4 | 1.9     | 0.5  |
| 인천  | 35.7 | 60.3 | 37.7 | 61.6 | 33.1 | 64.3 | 7.8     | 3.8  |
| 광주  | 16.3 | 78.1 | 15.7 | 82.9 | 22.5 | 73.5 | -4.3    | 0.7  |
| 대전  | 15.1 | 81.7 | 15.2 | 84.1 | 28.0 | 68.3 | 2.8     | 2.4  |
| 경기  | 31.2 | 60.3 | 32.4 | 66.2 | 29.4 | 68.6 | 12.7    | 6.8  |
| 강원  | 10.7 | 62.6 | 12.5 | 79.5 | 34.8 | 62.5 | -53.4   | -3.3 |
| 충북  | 19.8 | 50.0 | 33.6 | 59.0 | 32.2 | 66.1 | -0.0    | -1.2 |
| 충남  | 14.3 | 38.7 | 33.7 | 58.0 | 32.7 | 65.0 | -8.3    | -5.9 |
| 전북  | 11.9 | 48.0 | 26.2 | 65.7 | 31.0 | 67.1 | -17.6   | -5.1 |
| 전남  | 8.6  | 38.5 | 17.0 | 72.0 | 29.1 | 69.0 | -35.6   | -9.3 |
| 경북  | 17.4 | 40.2 | 29.9 | 61.0 | 34.5 | 63.4 | -8.4    | -4.0 |
| 경남  | 28.2 | 47.4 | 37.8 | 58.4 | 33.0 | 64.2 | 4.6     | 1.9  |
| 제주  | 4.0  | 60.7 | 4.5  | 86.5 | 21.8 | 72.7 | -21.0   | 1.7  |

6. 종사상의 지위별 구성비

(단위 : %)

| 시·도 | 전 체  |             | 전 입  |             | 전 출  |             | 순이동의 영향 |             |
|-----|------|-------------|------|-------------|------|-------------|---------|-------------|
|     | 피고용자 | 무고용<br>자영업주 | 피고용자 | 무고용<br>자영업주 | 피고용자 | 무고용<br>자영업주 | 피고용자    | 무고용<br>자영업주 |
| 서울  | 70.0 | 15.2        | 82.6 | 8.7         | 71.1 | 13.4        | -2.2    | -9.9        |
| 부산  | 69.7 | 16.6        | 79.2 | 10.6        | 74.7 | 12.8        | -2.4    | -5.6        |
| 대구  | 66.3 | 18.8        | 77.4 | 11.5        | 73.9 | 12.1        | 0.6     | 0.3         |
| 인천  | 71.7 | 15.3        | 78.3 | 11.1        | 76.1 | 11.8        | 3.1     | 5.8         |
| 광주  | 66.2 | 18.8        | 74.8 | 13.2        | 79.5 | 8.9         | 0.2     | 3.6         |
| 대전  | 68.4 | 17.6        | 74.7 | 13.5        | 80.3 | 9.8         | 3.6     | 9.4         |
| 경기  | 68.1 | 17.5        | 76.4 | 10.9        | 73.2 | 13.3        | 5.7     | 7.8         |
| 강원  | 50.7 | 28.4        | 66.1 | 17.8        | 86.4 | 7.4         | -12.6   | 0.5         |
| 충북  | 50.0 | 27.9        | 69.4 | 16.3        | 83.9 | 8.8         | -2.2    | 2.1         |
| 충남  | 37.1 | 35.3        | 73.7 | 12.0        | 84.2 | 8.3         | -8.6    | 0.0         |
| 전북  | 41.1 | 32.6        | 67.2 | 15.2        | 83.3 | 8.6         | -9.9    | -0.4        |
| 전남  | 32.0 | 38.1        | 67.7 | 14.7        | 84.9 | 8.6         | -19.0   | -0.5        |
| 경북  | 41.4 | 33.4        | 69.9 | 14.7        | 82.0 | 9.5         | -6.3    | 0.3         |
| 경남  | 56.8 | 24.8        | 75.5 | 12.5        | 80.2 | 10.6        | 1.8     | 1.9         |
| 제주  | 47.4 | 28.9        | 68.2 | 11.4        | 81.2 | 9.2         | 0.9     | 0.9         |

## 7. 1인가구 비율 및 평균 가구원수

(단위 : %)

| 시·도 | 전 체  |        | 전 입  |        | 전 출  |        | 순이동의 영향 |        |
|-----|------|--------|------|--------|------|--------|---------|--------|
|     | 1인가구 | 평균가구원수 | 1인가구 | 평균가구원수 | 1인가구 | 평균가구원수 | 1인가구    | 평균가구원수 |
| 서울  | 12.7 | 4.3    | 24.9 | 3.7    | 13.2 | 2.1    | 1.3     | -13.9  |
| 부산  | 10.5 | 4.4    | 25.1 | 3.8    | 17.8 | 1.9    | -6.2    | -8.0   |
| 대구  | 12.1 | 4.3    | 24.9 | 3.8    | 21.8 | 4.4    | 6.0     | 1.6    |
| 인천  | 10.6 | 4.4    | 16.2 | 4.1    | 15.5 | 7.4    | 14.8    | 8.0    |
| 광주  | 12.5 | 4.4    | 22.9 | 4.0    | 23.8 | 5.5    | 7.3     | 4.7    |
| 대전  | 12.2 | 4.3    | 20.0 | 4.0    | 23.3 | 9.7    | 19.0    | 11.2   |
| 경기  | 10.5 | 4.4    | 12.7 | 4.2    | 17.2 | 10.0   | 13.9    | 12.6   |
| 강원  | 15.2 | 4.1    | 25.7 | 3.8    | 24.4 | 2.3    | -9.9    | -8.4   |
| 충북  | 13.1 | 4.2    | 20.8 | 3.9    | 26.7 | 4.4    | -2.6    | 2.1    |
| 충남  | 13.7 | 4.1    | 17.5 | 4.0    | 27.6 | 2.9    | -15.7   | -3.2   |
| 전북  | 14.7 | 4.2    | 24.9 | 3.9    | 28.0 | 2.4    | -8.8    | -3.8   |
| 전남  | 17.0 | 4.0    | 18.1 | 4.0    | 26.4 | 1.9    | -14.8   | -9.7   |
| 경북  | 17.0 | 4.0    | 21.7 | 3.8    | 26.3 | 2.9    | -7.3    | -3.2   |
| 경남  | 14.2 | 4.2    | 18.2 | 4.0    | 21.5 | 5.3    | 1.7     | 3.1    |
| 제주  | 17.8 | 4.1    | 21.6 | 3.9    | 27.6 | 4.7    | -0.6    | 1.7    |

## 8. 주택 소유자 비율

(단위 : %)

| 시·도 | 전 체  |      | 전 입  |      | 전 출  |      | 순이동의 영향 |       |
|-----|------|------|------|------|------|------|---------|-------|
|     | 소유자  | 월세   | 소유자  | 월세   | 소유자  | 월세   | 소유자     | 월세    |
| 서울  | 38.8 | 16.3 | 14.9 | 23.9 | 42.1 | 17.2 | -13.1   | -4.4  |
| 부산  | 44.1 | 24.6 | 15.4 | 37.0 | 23.7 | 25.3 | -3.0    | -2.9  |
| 대구  | 42.4 | 20.0 | 14.3 | 30.2 | 24.3 | 23.1 | -1.1    | 5.4   |
| 인천  | 56.8 | 12.5 | 38.9 | 17.2 | 24.5 | 21.1 | 4.3     | 8.9   |
| 광주  | 47.0 | 16.2 | 20.7 | 24.8 | 19.0 | 20.5 | 1.4     | 9.5   |
| 대전  | 49.3 | 17.5 | 24.5 | 24.6 | 18.1 | 24.3 | 4.3     | 16.9  |
| 경기  | 50.1 | 15.1 | 39.4 | 16.9 | 22.9 | 23.4 | 8.0     | 11.5  |
| 강원  | 62.9 | 16.3 | 23.2 | 30.6 | 17.2 | 28.2 | -0.4    | -9.8  |
| 충북  | 64.6 | 13.5 | 26.3 | 24.5 | 15.0 | 26.8 | 1.0     | 0.8   |
| 충남  | 71.1 | 10.2 | 24.6 | 22.4 | 18.2 | 26.3 | -0.0    | -14.3 |
| 전북  | 68.8 | 12.6 | 24.2 | 31.6 | 12.8 | 28.0 | 0.1     | -6.9  |
| 전남  | 73.4 | 7.8  | 26.6 | 18.8 | 16.6 | 28.4 | -0.2    | -38.6 |
| 경북  | 68.0 | 12.6 | 26.5 | 26.6 | 16.8 | 29.5 | 0.2     | -9.8  |
| 경남  | 58.9 | 16.7 | 24.3 | 27.4 | 19.7 | 30.5 | 0.8     | 2.9   |
| 제주  | 55.4 | 26.8 | 11.8 | 48.9 | 18.7 | 35.6 | -0.3    | 4.2   |

### 3.3 도시 농촌간 전출 및 전입인구의 특성 비교분석

이 단원에서는 1995년 인구총조사의 2% 표본자료를 이용하여 시부와 군부의 인구분포 및 인구특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1990-95년 기간의 “시부에서 시부”, “군부에서 군부”로의 이동인구 및 “시부에서 군부”로의 이동인구와 시부-군부간 순이동 인구의 주요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먼저 성비는 ‘군부→시부’이동이 95.6, ‘시부→군부’ 이동이 98.1, 시·군부간 순이동인구가 83.7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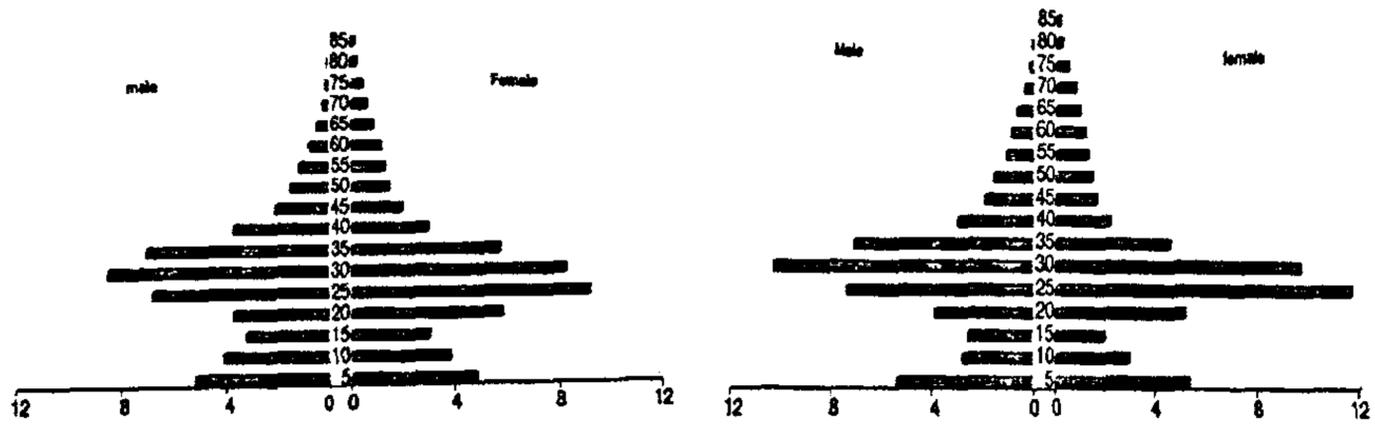
<도표 3.3>은 이들 두 이동형태별 이동인구의 성 및 연령별 구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그 구조가 총이동 인구와는 현저하게 다른 모습을 보인다. 두 이동형태만을 비교할 때는 ‘시부→군부’ 이동에서 성 및 연령의 선택적 경향이 더 높다.

<도표 3.4>는 군부 순이동인구의 성 및 연령별 이동율이다. 특히 20-24세 및 25-29세 계층에서 이동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성별로도 현저한 차이를 보여 인구이동이 연령계층의 군부인구 성비 및 인구구성비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령별 성비는 모든 이동형태별 이동에서 대체로 비슷하지만, 25-29세 연령계층 군부→시부 이동의 경우 141.9의 매우 높은 성비를 보였고, 30-34세 연령계층에서는 군부에서의 이동이 성비 118내외로 시부에서의 이동의 성비 103과 107보다 훨씬 높았으며, 35-54세 계층에서는 시부나 군부에서 군부로 오는 이동의 경우 성비가 144와 135로 다른 이동형태에 비할 때 성비가 매우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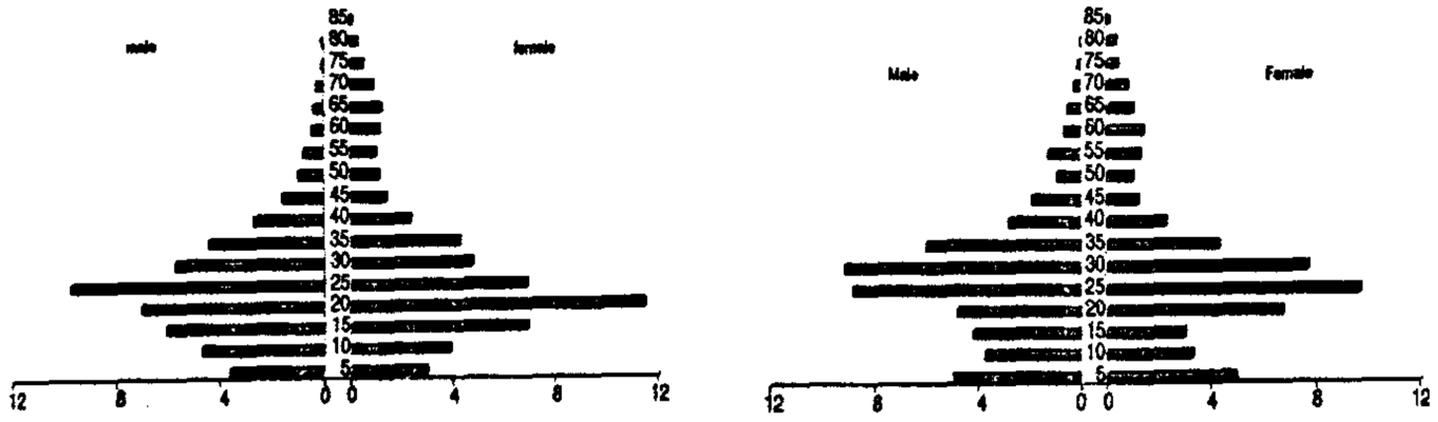
이들 성 및 연령구성상의 특징은 ‘시부→군부’ 이동에서는 남자의 경우 30-34세, 25-29세에서 구성비가 높은데 비해 여자의 경우 25-29세와 30-34세에서 구성비가 높다. 한편 ‘군부→시부’ 이동에서는 남자 25-29세, 20-24세, 15-19세 연령계층에서 구성비가 높았다. 이러한 이동형태별 이동인구의 연령구성 차이는 군부에서 시부로 전입하는 이동인구의 69.8%가 수도권과 대도시로 집중하고 있고, 시부에서 군부로 전출하는 이동인구의 71.2%가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군부로 전출하고 있음을 볼 때 이들이 대도시에서 취학, 구직, 직장에서의 이동, 여자의 혼인을 위한 귀향 등 일련의 생애주기와 관련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15-24세 연령계층의 구성비가 시부→군부 13.5%, 군부→시부 21.5%로서 현저한 차이가 난다는 점, 교육정도별 인구구성에서 휴학 및 재학생의 구성비가 시부→군부 17.7%, 군부→시부 26.9%로서 큰 차이가 나는 점 등은 이를 뒷받침 해주는 자료가 될 것이다. 또 한가지 이들 이동형태의 학력별 구성에서 특이한 점은 이동인구중 대학 졸업자들의 구성비가 시부→시부 이동에서 23.9%로 가장 높았다. 또한



시부 → 시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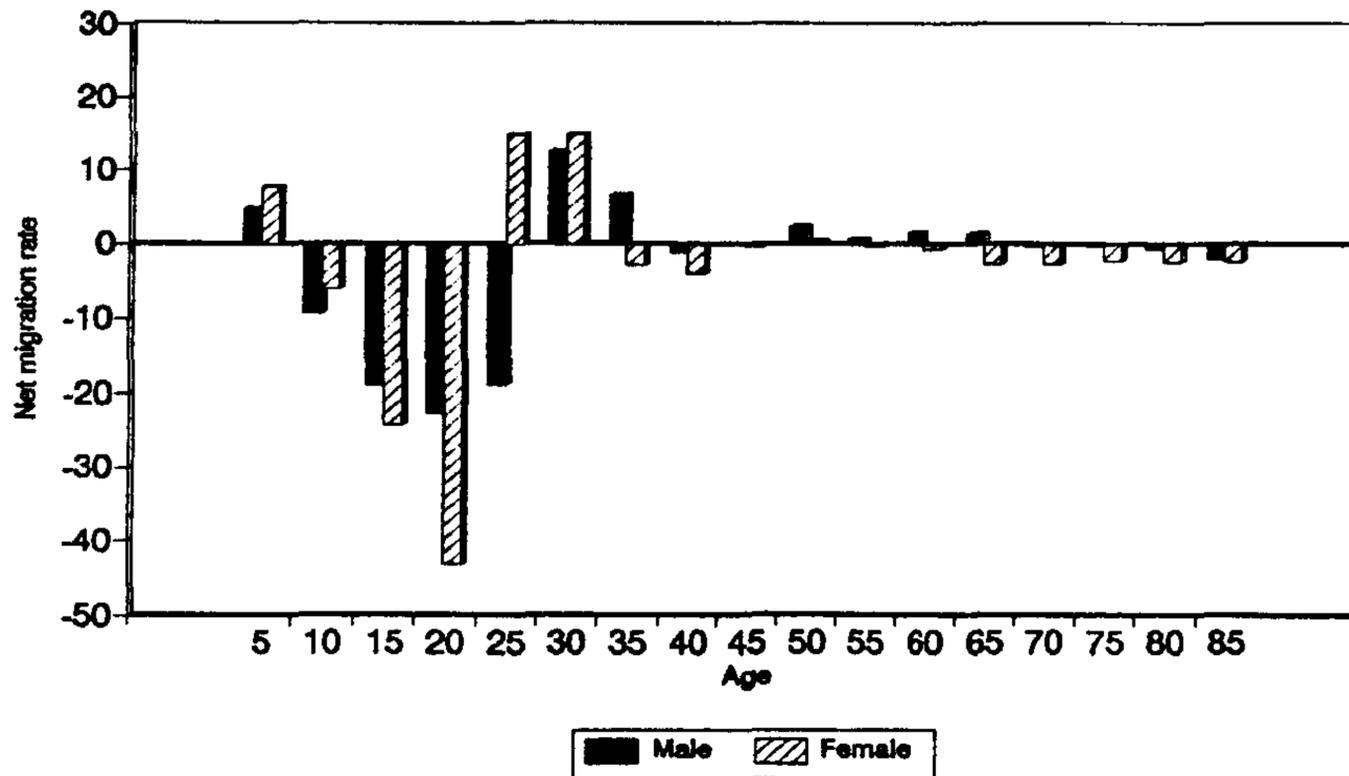
시부 → 군부



군부 → 시부

군부 → 군부

<도표 3.3> 시·군부간 전출 및 전입인구의 성 및 연령별 구성비, 1990-95.



<도표 3.4> 성 및 연령별 군부 순이동율, 1990-95

시부→군부 이동은 21.0%로서 일반 시부인구, 군부→시부 이동인구 13.7%보다 훨씬 높다는 점이다.

가구원수별 가구의 분포를 보면 군부→시부이동에서 1인 및 2인 가구와 5인 이상의 가구의 구성비가 높고 3~4인 가구는 시부→군부이동에서 54.5%로 12.0%포인트나 더 높다. 이는 시부→군부 이동에서 유배우 인구비율이 훨씬 높은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구성은 시부 및 군부의 일반가구 분포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가구원수별 가구의 구성은 가구의 세대구성이나 목표지역의 주택사정, 이동형태별 이동사유 등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사현재시점에서 주택소유자의 구성비는 시부→군부 34.0%, 시부→시부 31.8%, 군부→군부 26.3%, 군부→시부 19.2%로서 시부에서 출발하는 이동의 경우 주택소유 비율이 더 높았다. 이는 대도시에서의 주택마련을 위한 이동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는 이동가구가 일반가구보다 훨씬 낮은 주택소유율을 보여준다. 특히 불안정한 주택형태로 볼 수 있는 무보증 월세와 사글세의 경우 시부→군부 이동인구 15.0%에 비해 군부→시부 이동인구 24.7%로서 9.7%포인트나 높은 구성비를 보여 주었다.

<표 3.20>에서 마지막 란의 군부 순이동의 영향은 시·군부간 인구이동의 결과가 군부 인구구조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과 대체적인 크기를 측정코저 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계산되었다.

○ 군부인구 연령구성비에 미치는 영향, %

$$\frac{\frac{P_x + NM_x}{P + NM_x} - \frac{P_x}{P}}{\frac{P_x}{P}} \times 100$$

이때, P: 군부 총인구  
 $P_x$ : 군부 x세 인구  
 $NM_x$ : x세 군부 순이동인구

○ 성비 등에 미치는 영향, %

$$\frac{\frac{M_x + NM_x}{F_x + NF_x} - \frac{M_x}{F_x}}{\frac{M_x}{F_x}} \times 100$$

이때,  $M_x$ : x세 남자수  
 $F_x$ : x세 여자수  
 $NM_x, NF_x$ : x세 남자, 여자 순이동

○ 이동율에 미치는 영향, %

$$\frac{\frac{M_x + NM_x}{P_x + NM_x} - \frac{M_x}{P_x}}{\frac{M_x}{P_x}} \times 100$$

이때,  $P_x$ : 군부 x세 인구  
 $M_x$ : 군부 x세 이동인구  
 $NM_x$ : 군부 x세 순이동인구

○ 평균 가구원수 등에 미치는 영향, %

$$\frac{\frac{\sum M_i (H_i + NH_i)}{H + \sum_i NH_i} - \frac{\sum M_i * H_i}{H}}{\frac{\sum M_i * H_i}{H}} \times 100$$

이때,  $H$  : 군부 총가구수  
 $H_i$  : 군부  $i$ 계층의 가구수  
 $M_i$  :  $i$  가구원수 계층의 중앙값  
 $NH_i$  :  $i$ 계층의 순전입 가구수

결과를 보면 성비의 경우 5년간 순이동 인구는 군부 전체인구의 성비를 1.2% 높이는 영향을 주었고, 특히 20-24세와 25-29세 연령계층의 경우 5년간 인구이동이 해당 연령의 성비에 미친 영향이 35.8%와 -29.3%로 매우 높았다. 연령별 구성비는 군부남자 15-29세 연령계층의 경우 인구이동으로 인하여 매 5년마다 그 구성비가 16.4~21.9% 정도씩 감소되었으며, 남자 30-34세 연령층의 구성비는 5년마다 11.2% 정도 증가하는 영향을 주었다.

여자의 경우 인구이동의 연령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군부 25-34세 연령층의 구성비를 12.8%와 14.7%정도 증가시키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른 연령층에서는 모두 인구이동이 해당 연령층의 구성비를 감소시키는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자 20-24세의 경우 5년간 인구이동에 의한 영향이 이 연령의 구성비를 41.7% 정도나 감소시키는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이동이 교육정도별 구성비에 주는 영향은 군부의 재학·휴학생의 구성비를 감소시키고 대학이상교육의 구성비는 5년간에 10.9% 정도 높이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년간 인구이동에 의해 1인가구 비율은 12.5%가 감소하고, 주택소유자의 비율은 약간 증가하며, 평균 가구원수는 1.7% 정도 감소하는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0> 이동형태별 이동인구의 특성 분포, 1990-95

| 특 성                     | 시부→시부 | 시부→군부 | 군부→시부 | 군부→군부 | 군부 순이동의<br>영향 <sup>1)</sup> , % |
|-------------------------|-------|-------|-------|-------|---------------------------------|
| <b>&lt;성비&gt;</b>       |       |       |       |       |                                 |
| 15-19                   | 106.4 | 137.7 | 88.4  | 138.6 | 6.8                             |
| 20-24                   | 63.9  | 75.9  | 60.6  | 71.4  | 35.8                            |
| 25-29                   | 74.3  | 63.4  | 141.9 | 90.4  | -29.3                           |
| 30-34                   | 102.9 | 106.8 | 118.7 | 117.6 | -2.0                            |
| 35-54                   | 120.1 | 144.2 | 106.6 | 134.8 | 4.1                             |
| 55+                     | 66.1  | 75.1  | 46.7  | 60.8  | 2.3                             |
| 계                       | 95.2  | 98.1  | 95.6  | 102.0 | 1.2                             |
| <b>&lt;남자 연령구성비&gt;</b> |       |       |       |       |                                 |
| 5-14                    | 9.2   | 8.2   | 8.3   | 8.6   | -2.3                            |
| 15-19                   | 3.2   | 2.6   | 6.1   | 4.2   | -17.5                           |
| 20-24                   | 3.7   | 3.9   | 7.0   | 4.8   | -21.9                           |
| 25-29                   | 6.8   | 7.4   | 9.7   | 8.8   | -16.4                           |
| 30-34                   | 8.5   | 10.3  | 5.7   | 9.1   | 11.2                            |
| 35-54                   | 14.4  | 13.7  | 9.7   | 11.8  | 1.8                             |
| 55+                     | 3.0   | 3.4   | 2.3   | 3.2   | 0.8                             |
| 계                       | 48.8  | 49.5  | 48.9  | 50.5  | -                               |
| <b>&lt;여자 연령구성비&gt;</b> |       |       |       |       |                                 |
| 5-14                    | 8.6   | 8.2   | 6.9   | 8.3   | -0.7                            |
| 15-19                   | 3.0   | 1.9   | 6.9   | 3.0   | -22.8                           |
| 20-24                   | 5.8   | 5.1   | 11.5  | 6.7   | -41.7                           |
| 25-29                   | 9.1   | 11.6  | 6.9   | 9.7   | 14.7                            |
| 30-34                   | 8.2   | 9.6   | 4.8   | 7.7   | 12.8                            |
| 35-54                   | 12.0  | 9.5   | 9.1   | 8.8   | -1.2                            |
| 55+                     | 4.5   | 4.5   | 5.0   | 5.3   | -1.0                            |
| 계                       | 51.2  | 50.5  | 51.1  | 49.5  | -                               |
| <b>&lt;교육정도별구성비&gt;</b> |       |       |       |       |                                 |
| 고등학교                    | 34.6  | 37.5  | 38.1  | 37.0  | -4.6                            |
| 대학교 이상                  | 23.9  | 21.1  | 13.7  | 14.8  | 10.9                            |
| 재학, 휴학                  | 22.6  | 17.7  | 26.9  | 21.9  | -8.3                            |
| <b>&lt;주택소유자 비율&gt;</b> |       |       |       |       |                                 |
| 자기집                     | 31.8  | 34.0  | 19.2  | 26.3  | 0.5                             |
| 월세                      | 22.9  | 20.5  | 28.3  | 25.9  | -25.6                           |
| 1인가구 비율                 | 14.8  | 16.3  | 25.5  | 19.7  | -12.5                           |
| 평균가구원수                  | 3.1   | 3.0   | 2.8   | 2.9   | -1.7                            |

주: 1) 군부 순이동인구의 군부 인구구조에 미치는 영향

$$x\text{세 구성비에 미치는 영향} = \frac{\frac{P_x + NM_x}{P + NM_x} - \frac{P_x}{P}}{\frac{P_x}{P}} \times 100$$

이때, P: 군부 총인구       $P_x$ : 군부 x세 인구

$NM_x$ : x세 군부 순이동인구

자료: 통계청, 1995 인구및주택 총조사 2% 표본

## 4. 인구구조의 변화

한국은 1960년이래 도시화가 산업화와 더불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도시산업부문의 급속한 팽창과 더불어 괄목할 만큼 도시의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이 기간중 관찰되는 두드러진 인구학적 특징은 도시인구가 급격하게 팽창했으며, 이와는 대조적으로 농촌인구의 절대수는 급격하게 감소했다는 사실이다.

<표 4.1>은 도시와 농촌간 인구분포의 변화추세를 보여준다. 1960년 당시만해도 한국에서 농촌인구(면부인구)는 전국인구 약 2,500만명중 63%(읍부인구까지 포함하면 군부인구는 72%나 됨)가 되는 1,570만명이나 되었다. 그러나 한국에서 전형적인 농촌인구로 간주되는 면부인구는 1970년대초를 기점으로 전체인구가운데 50%를 밑도는 비율로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후 한국에서 농촌인구는 비율뿐만 아니라 절대수까지 급격하게 감소하여 1990년에는 전체인구의 20%가 안되는 750만 명으로 줄었으며, 1995년의 면부인구는 1960년에 비해 무려 61.4%나 되는 970만 명이 준 600여만명밖에 되지 않는다.

<표 4.1> 행정구역별 인구분포

| 행정구역  | 1960   | 1970   | 1975   | 1980   | 1985   | 1990   | 1995   |
|-------|--------|--------|--------|--------|--------|--------|--------|
| 총인구   | 24,987 | 31,435 | 34,679 | 37,436 | 40,448 | 43,411 | 44,554 |
| 면     | 15,734 | 15,654 | 14,185 | 11,463 | 9,188  | 7,498  | 6,081  |
| 읍     | 2,259  | 2,850  | 3,724  | 4,540  | 4,817  | 3,604  | 3,481  |
| 시     | 6,997  | 12,929 | 16,770 | 21,434 | 26,443 | 32,309 | 34,992 |
| 구성비:% |        |        |        |        |        |        |        |
| 면     | 63.0   | 49.8   | 40.9   | 30.6   | 22.7   | 17.3   | 13.6   |
| 읍     | 9.0    | 9.1    | 10.7   | 12.1   | 11.9   | 8.3    | 7.9    |
| 시     | 28.0   | 41.1   | 48.4   | 57.3   | 65.4   | 74.4   | 78.5   |

자료: 경제기획원, 1960, 1970, 1975, 1980, 1985년 인구및주택 센서스보고서  
통계청, 1990, 1995년 인구및주택 총조사보고서

이처럼 한국에서 면부인구가 크게 줄게된 가장 근원적인 원인은 대체로 면부인구의 도시로의 이주와 시부지역의 확대, 그리고 면부지역의 읍으로의 승격 등 세 요인이 된다. 이 사실은 <표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부인구의 절대수가 총인

구의 증가수를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최근에 이르면서 주변지역을 흡수하여 시경계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종래는 행정구역상 읍으로 분류되던 읍수가 1960년의 85개이던 것이 1985년에는 200개로 증가했으며, 1990년의 경우에도 아직 180개가 읍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사실(최진호·최병선, 1993:5-6)로부터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다. 동시에 면부인구로 대표되는 한국의 농촌인구가 주로 이들 세 요인에 의해 크게 감소했으며, 특히 도시인구의 성장과정에서는 이들 세 요인중에서 면부인구의 전입에 따른 효과가 가장 컸다는 사실이 면부인구가 도시인구와는 구성과 특성면에서 크게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 4.1. 성·연령별 인구구조

<표 4.1>에 의하면 한국의 경우, 시부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가 되는 시점은 대충 1975-1980년間に 해당한다. 또한 읍인구를 도시인구로 간주하는 경우 도시인구가 처음으로 50%가 되었던 시점은 1970년대초가 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도시인구가 전체인구의 반이상인 된다는 사실은 어느 사회에서나 자원의 배분체계를 도시중심으로 재편할수밖에 없게 해준다. 이에 따라 농촌은 정부의 각급 정책입안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며,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은 기회를 찾아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주하게 된다. 이와같은 일련의 과정이 반복됨에 따라 농촌인구는 도시인구와는 다른 독특한 구조와 특성을 나타내게 된다. 이 점을 감안하면 도시인구가 전체인구중 반이 되는 시점은 아주 중요한 시점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읍인구를 도시인구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편이상 시부인구가 50%에 가까웠던 1975년을 기준 시점으로 최근 20년간 농촌인구(면부인구)의 구조와 특성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기로 하였다.

<표 4.2>는 1975-1995년의 20년간 면부지역인구의 성비의 변동추세를 보여준다. 이 표를 보면 농촌지역의 성비는 1975년에 103명이던 것이 그 이후 매 인구 센서스기간별로 조금씩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다시말해서 여자인구100명에 대한 남자인구의 비로 계산되는 성비는 1975년이래 점차 낮아져서 1995년에는 98.8명으로서 여자인구가 조금 더 많아진다. 이와같은 경향은 1975년에 99.6이던 성비가 1985년 99.2, 1990년에는 100.6, 그리고 1995년에는 101.2로 조금씩 높아지는 도시의 경우와는 대조적인 변동유형을 보여준다. 이에 반해 읍부지역은 조금씩 차이를 나타내고는 있으나 1975년이래 일관성있는 경향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성비의 변동은 면부인구의 경우도 연령에 따라서는 매우 다른 유형으로 변화하고 있다. 주로 최근 5년간의 출산추세를 반영하는 0-4세인구의 성비는 1985년 이후 급격히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즉 1985년에 106.5이던 0-5세 인구의 성비는 1990년에는 110.4, 그리고 1995년에는 114.0이 된다. 각 연도별 인구센서스 보고서에 따르면 0-4세인구의 성비의 변동은 면부는 물론, 시부와 읍부도 동일한 유형으로 변동하고 있으며, 각 연도별로 시부와 읍부, 그리고 면부간에 큰 차이가 없는 비슷한 수준의 성비를 보여준다.

0-4세인구와 마찬가지로 면부지역에서 20대와 30대의 젊은 경제활동인구는 최근에 이르면서 성비가 크게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낸다. 특히 1975년 이래 매 센서스 연도별로 새로 진입하는 20-29세 연령층인구의 높은 성비는 최근에 이르면서 성비면에서 남초현상을 나타내는 연령층이 점차적으로 높아져서 1975년에는 남초현상을 나타내던 연령층이 30세미만의 연령층까지였으나, 1995년에는 40-44세 인구까지 남초현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45-49세연령의 성비도 98.5로서 100에 근접하고 있다. 그러나 주로 주변지역의 인구유입으로 형성되는 시부와 읍부인구에서는 이와같은 규칙성있는 변화를 찾아볼 수 없다. 이와같은 일련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 보게 된다. 즉 지금까지 젊은 연령층의 경제활동인구의 경우 여성이 선택적으로 이촌현상을 나타내고 있었지는 않았는가? 그리고 이러한 종래의 경향이 최근 달라지고 있음을 반영한 결과는 아닐까하는 의문을 가져 보게 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면부지역에서는 60세 이상 노인인구의 경우 최근에 이르면서 점차 성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이 연령층의 경우 읍부와 시부의 경우는 일관성있는 변동추세를 나타내지 않는다. 면부지역에서 60세이상인구의 성비는 전반적으로 시부와 읍부에 비해 더 높다. 1995년의 경우 면부지역의 전체성비가 98.8로서 여초현상을 보이는 것은 주로 60세이상 노령인구의 구성비율이 크고, 이들 노령인구의 성비가 낮은데 그 원인이 있는 것이다.

성비를 연령별로 좀더 자세하게 검토해보면 연령집단별로 면부의 성비가 갖는 다양한 특성이 관찰되며, 특정한 몇몇 연령집단의 경우는 면부인구의 성비가 전국의 성비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전국의 성비와 농촌의 성비를 비교해 보았을 때 그 차이가 크면 클수록 그 연령층에서는 도시와 농촌간의 성비가 아주 다른 유형을 나타내고 있음을 말해준다.

<표4.2> 연도별 성비의 변화: 1975-95

(단위: 여자 100명당 남자수)

| 연령    | 1975  |       | 1985  |       | 1990  |       | 1995  |       |
|-------|-------|-------|-------|-------|-------|-------|-------|-------|
|       | 전국    | 면부    | 전국    | 면부    | 전국    | 면부    | 전국    | 면부    |
| 0-4   | 107.4 | 107.4 | 108.0 | 106.5 | 111.2 | 110.4 | 113.4 | 114.0 |
| 5-9   | 107.0 | 105.9 | 107.1 | 103.8 | 107.3 | 103.9 | 110.7 | 107.3 |
| 10-14 | 107.8 | 107.5 | 106.7 | 102.0 | 106.0 | 100.2 | 106.4 | 101.0 |
| 15-19 | 105.0 | 115.3 | 106.6 | 118.9 | 103.9 | 107.2 | 105.9 | 106.2 |
| 20-24 | 106.6 | 139.5 | 106.1 | 189.6 | 109.2 | 187.7 | 108.3 | 173.5 |
| 25-29 | 102.9 | 117.4 | 99.2  | 113.4 | 99.5  | 123.2 | 100.9 | 125.5 |
| 30-34 | 103.5 | 97.3  | 104.2 | 104.1 | 103.8 | 109.4 | 103.0 | 111.8 |
| 35-39 | 103.1 | 96.8  | 105.4 | 105.8 | 106.1 | 105.6 | 103.6 | 110.6 |
| 40-44 | 96.8  | 91.4  | 102.8 | 91.4  | 107.4 | 103.7 | 105.9 | 103.7 |
| 45-49 | 86.8  | 82.8  | 99.7  | 89.9  | 102.3 | 87.6  | 104.9 | 98.5  |
| 50-54 | 92.9  | 90.6  | 91.4  | 85.1  | 97.9  | 87.5  | 99.4  | 84.0  |
| 55-59 | 91.7  | 92.3  | 79.3  | 79.0  | 88.3  | 82.8  | 93.3  | 83.0  |
| 60-64 | 83.0  | 88.2  | 77.7  | 83.9  | 74.7  | 77.3  | 82.0  | 78.5  |
| 65-69 | 73.4  | 80.2  | 73.7  | 83.9  | 71.6  | 80.3  | 67.5  | 71.5  |
| 70-74 | 61.0  | 68.7  | 61.3  | 73.0  | 64.5  | 75.9  | 62.6  | 72.1  |
| 75-79 | 50.2  | 56.7  | 49.6  | 57.4  | 51.3  | 61.0  | 54.4  | 64.2  |
| 80+   | 32.2  | 43.1  | 31.7  | 35.7  | 34.1  | 37.8  | 35.8  | 41.0  |
| 계     | 101.2 | 103.0 | 100.2 | 102.7 | 100.7 | 101.6 | 100.7 | 98.8  |

자료: 경제기획원, 1975, 1985년 인구및주택 센서스보고서

통계청, 1990, 1995년 인구및주택 총조사보고서

<표 4.2>는 1975년이래 몇 개의 인구센서스년도별로 전국의 성비와 면부의 성비를 대비하고 있다. 먼저 0-4세연령의 성비를 보면 대체로 면부인구의 성비는 전국의 경우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그러나 1975년이래 0-4세의 면부인구의 성비는 최근에 이르면서 크게 높아져서 1995년에는 114가 된다. 이처럼 최근에 이르면서 높아지는 0-4인구의 성비는 최근 출산자체가 성별로 통제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0-4세인구의 성비변동추세는 도시와 농촌이 거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표 4.2참조).

0-4세를 제외한 유소년 의존인구층의 성비는 전국의 경우에 비해 면부인구의 성비가 대체로 조금 낮은 편이다. 그러나 15-64세의 생산연령층인구의 경우는 각 센서스년도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젊은 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될 수 있

는 연령에서는 면부인구의 성비가 전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매우 높은데 반해 나이든 경제활동인구로 간주될 수 있는 40대이후 연령층의 성비는 면부인구의 성비가 전국의 경우에 비해 오히려 낮거나 비슷한 수준에 있다. 그밖에 60세이후의 고령인구의 경우 면부인구의 성비는 전국인구의 성비보다 높다. 특히 이 가운데 20대 인구의 성비를 보면 1975년 이래 계속하여 아주 높은 성비를 보여준다. 이중에서 특히 20-24세에 해당하는 면부인구의 성비를 보면 1975년의 경우, 139.5이던 것이 10년이 지난 1985년에는 189.6으로 크게 높아졌으며, 1990년에는 187.7, 그리고 1995년에는 173.5로서 점차 낮아지고 있으나, 아직도 매우 높은 수준에 있다(표 4-2참조). 면부인구중 이 연령층의 성비가 이처럼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은 이 연령층의 젊은이가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군부대가 대부분 면단위 행정구역에 소재하는데서 비롯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표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면부의 20대에서 40대초반에 이르는 젊은 경제활동인구는 비교적 높은 성비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성비의 연령패턴은 그동안 한국에서 일어났던 도시화 및 산업화 과정에서 주로 젊은 여성인구를 중심으로 도-농간에 선택적인 인구이동이 일어났음을 암시해 준다.

<도표 4.1>은 1975년 이래 매 10년 기간별로 면부지역인구<sup>3)</sup>의 성별·연령별 인구구성을 묘사해주는 인구피라미트이다. 이를 보면 면부지역 인구의 성별·연령별 인구구성은 지난 1975-1995년 기간중 크게 달라졌으며, 특히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크게 변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995년의 면부인구의 성별·연령구성을 보면 1975년과 비교해서 55세이상 고령인구의 구성비율이 크게 높아졌다. 이에반해 25-49세에 속하는 비교적 젊은 연령층의 경제활동인구가 전체인구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고, 10세미만의 유소년인구층의 구성비율이 낮다. 그 결과 1995년 면부(농촌)의 인구피라미트는 20년전인 1975년과는 매우 다른 성별·연령별 인구구조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으며, 5년전인 1990년의 인구구조와도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도표 4.1>에 의하면 1990년의 인구피라미트는 1995년보다는 오히려 1985년의 인구피라미트와 유사하다. 1995년 농촌지역(면부)의 인구피라미트는 출생, 사망, 그리고 이동 등과 관련된 과거의 인구학적 경험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그러므로 1975년에서 1995년에 이르는 면부지역 인구피라미트는 면부지역 인구구조의 변화과

3) 이 자료에서 나타내주는 면부인구는 광역시와 시부, 그리고 군부지역의 면단위 인구를 구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면부로 분류되는 지역에서 조사·집계된 전체 면부인구임. 이는 1990년 이전 자료의 경우는 통합시와 군부를 구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구를 집계했기 때문에 비교를 위해 이 자료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음.

정을 보여준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 그림을 통해 우리는 농촌지역(면부) 인구의 구조가 주로 1990-95년기간중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볼 수 있다(도표 4.1 참조).

전통적으로 출산률이 높은 농촌인구의 성별·연령별 인구구조는 전형적인 피라밋 모양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와같은 성별·연령별 인구구조는 적어도 1995년의 우리 나라 농촌(면부)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농촌의 경우 1975년까지만 해도 20대후반과 30대초반, 그리고 5세미만인구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전형적인 피라밋모양의 인구구조를 나타내고 있었다(도표 4.1, 1975년의 인구피라밋 참조). 이러한 인구구조는 그 뒤 10년이 지난 1985년에는 20대에서 40대에 이르는 생산연령인구의 구성비율 감소로 인해 면부 지역의 인구구성이 크게 달라지기 시작한다. 그러나 1985년 면부인구의 성별·연령별 인구구성은 1995년에 관찰되는 성별·연령별 인구구성과는 큰 차이를 보여준다. 현재 관찰되는 농촌지역(면부)인구의 성별·연령별 인구구조의 형성시점을 알아보기 위해 1990년 센서스자료를 기초로 면부인구의 성별·연령별 인구구성을 관찰했을 때, 1990년의 인구피라밋은 <도표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5세 미만의 유소년인구 구성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오히려 1985년의 인구피라밋과 유사하였다. 이 사실은 면부인구의 성별·연령별 인구구성은 1970년을 전후하여 변화되기 시작했지만 1990년을 전후한 시점부터 유소년인구의 구성비율이 격감하기 시작하여 1995년의 성별·연령별 인구구조로 변모했음을 말해 준다.

이러한 일련의 사실을 근거로 우리는 공업화에 따른 급격한 도시화현상과 1960년대부터 강력하게 시행된 출산억제정책의 시행이 우리나라에서 농촌인구구조의 변천에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된 중요한 요인이었음을 추측해 보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농촌인구(면부인구)가 전형적인 피라밋형태의 인구구조로부터 이탈하기 시작한 것은 대체로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부터이다. 이 시점에서 관찰되는 인구구조는 위에서 언급한 두 요인의 작용이 농촌인구의 구조를 변화시키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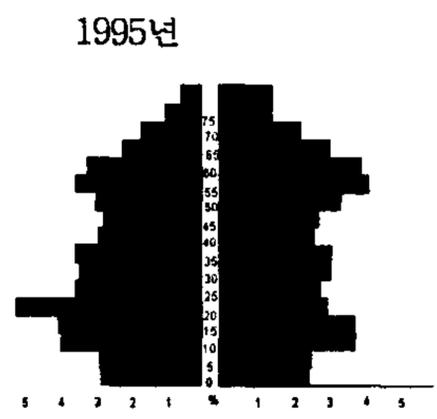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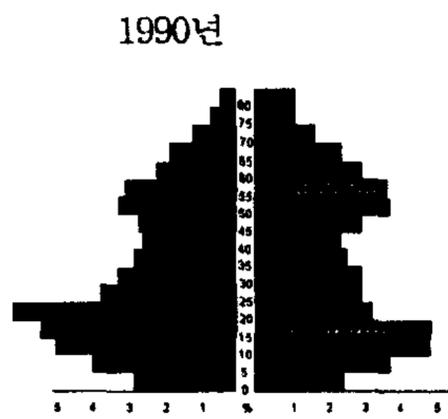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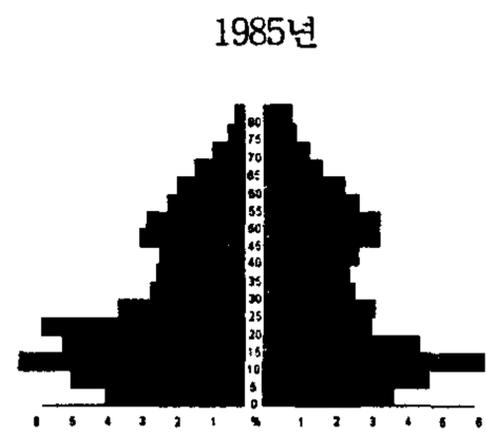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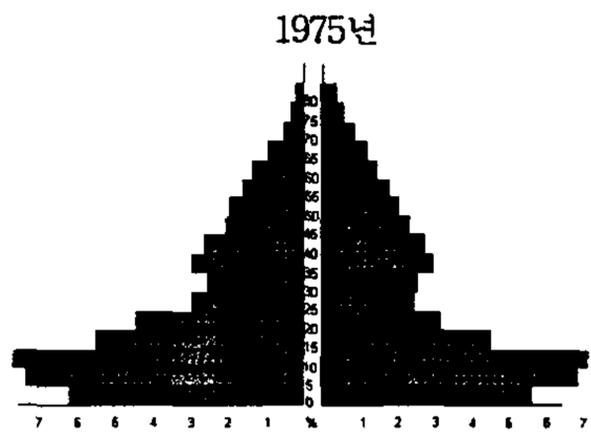
<도표 4.1>에서 1975년의 인구피라밋을 보면, 남녀 모두 25-34세 연령층의 인구비율이 타 연령층에 비해 과도하게 낮으며, 10세미만 연령에서 어린 연령계층으로 내려가면서 인구비율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에 들어서면서부터 비로소 농촌-도시간 인구이동이 농촌의 '밀어내는 요인'보다는 도시의 '끌어들이는 요인'에 의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권태환, 1992). 따라서 면부지역에서 관찰되는 25-34세 인구의 낮은 비율은 공업화의 확대

와 더불어 이들 연령층의 많은 인구가 도시지역으로 이동한 결과로 보이며, 동시에 10세미만 연령층의 낮은 인구비율은 그동안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추진된 바 있는 정부차원의 출산억제정책의 성과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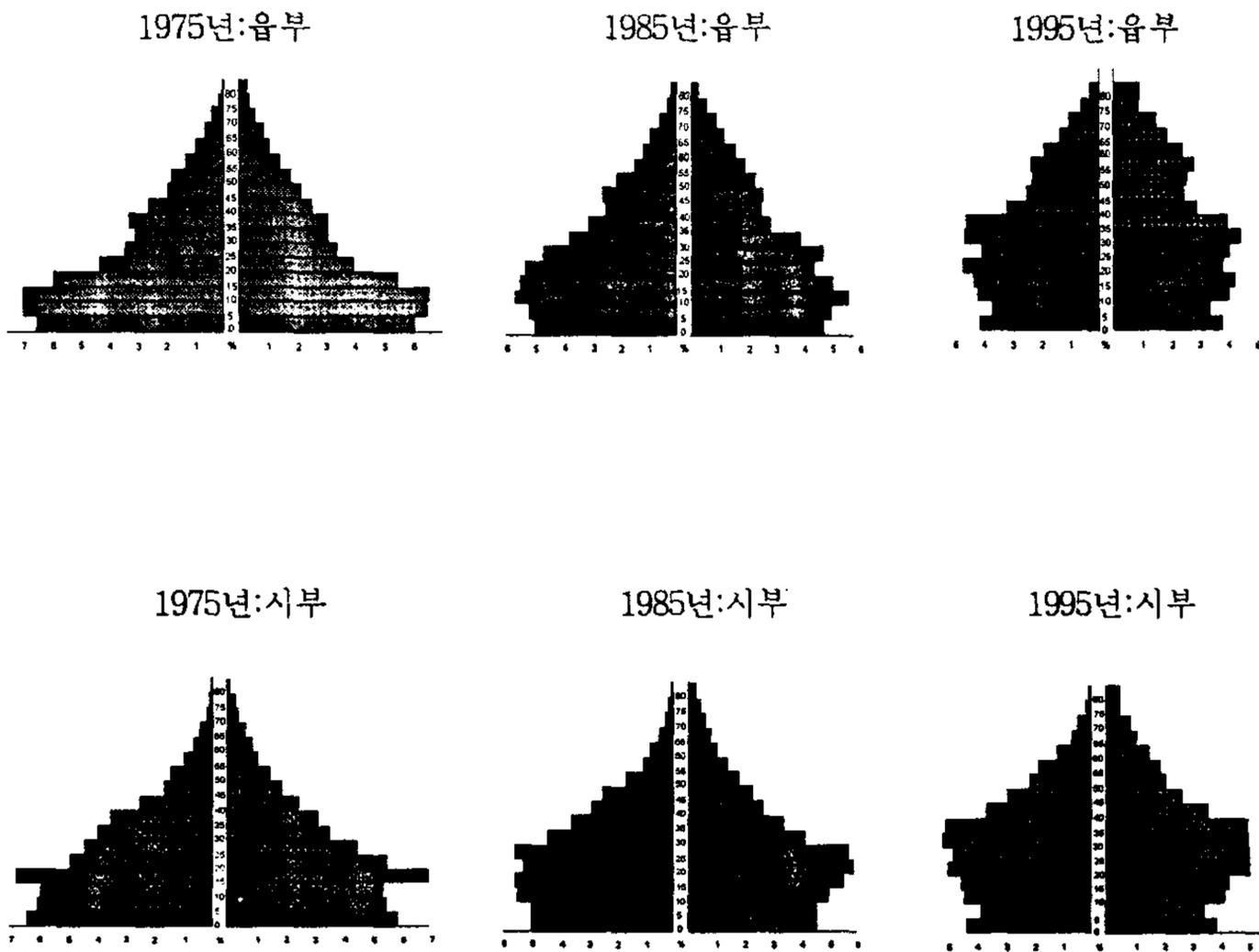
이와같은 일련의 경향은 1985년이후의 인구피라미트에서도 그대로 반영된다. 1985년의 경우 새로 진입된 25-34세연령층 인구의 구성비율이 급격하게 줄게 됨에 따라 25-44세 연령층 인구비율이 다른 연령계급에 비해 훨씬 적은 비율을 차지하게 된다. 그러므로 1995년에 관찰되는 면부(농촌)인구의 성별·연령별 인구구조는 이처럼 젊은 연령층의 경제활동인구의 이촌현상과 정부의 출산조절정책에 따른 출산억제효과가 누적되어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다만 1990년을 전후한 시점부터 관찰되기 시작한 농촌지역(면부) 인구중 유소년인구비율의 격감현상은 단순한 출산억제정책의 효과뿐만 아니라 고출산잠재력을 지닌 젊은 농촌여성의 이촌현상에 의해 가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앞서 본 면부의 경우와 같은 시점별로 읍부와 시부의 성별·연령별 인구구성을 나타내는 인구피라미트를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도표 4.2 참조). <도표 4.2>는 1975년과 1985년, 그리고 1995년의 읍부 및 시부 인구의 인구피라미트이다. 읍부와 시부인구는 앞서 본 농촌(면부)인구와는 달리 60세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이 낮고, 경제활동인구중 젊은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며, 15세미만의 유소년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 사실은 앞서 본 농촌의 경우와는 대조되는 것으로서 읍부 및 시부의 인구구조가 도시여성의 출산력감소와 함께 젊은 연령층의 경제활동인구의 대부분이 주로 면단위 인구의 이주결과로 형성되었음을 시사해 주기 때문이다.

<도표 4.2>를 보면 적어도 1975년이후 읍부인구는 면부인구보다는 시부인구와 더 유사한 성별·연령별 인구구조를 나타낸다. 또한 시부인구와 읍부인구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유사한 인구구조를 보여준다. 이 점을 고려하면 농촌인구의 분석은 자료의 제약으로 설명적인 연구분석에서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기술적인 분석은 면부인구에 국한시키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도표 4.1> 면부인구의 성별·연령별구조의 변화  
 자료: 표-2의 자료와 동일함



<도표 4.2> 읍 및 시부의 성별·연령별 인구구조의 변동  
 자료: 표-4.2의 자료와 동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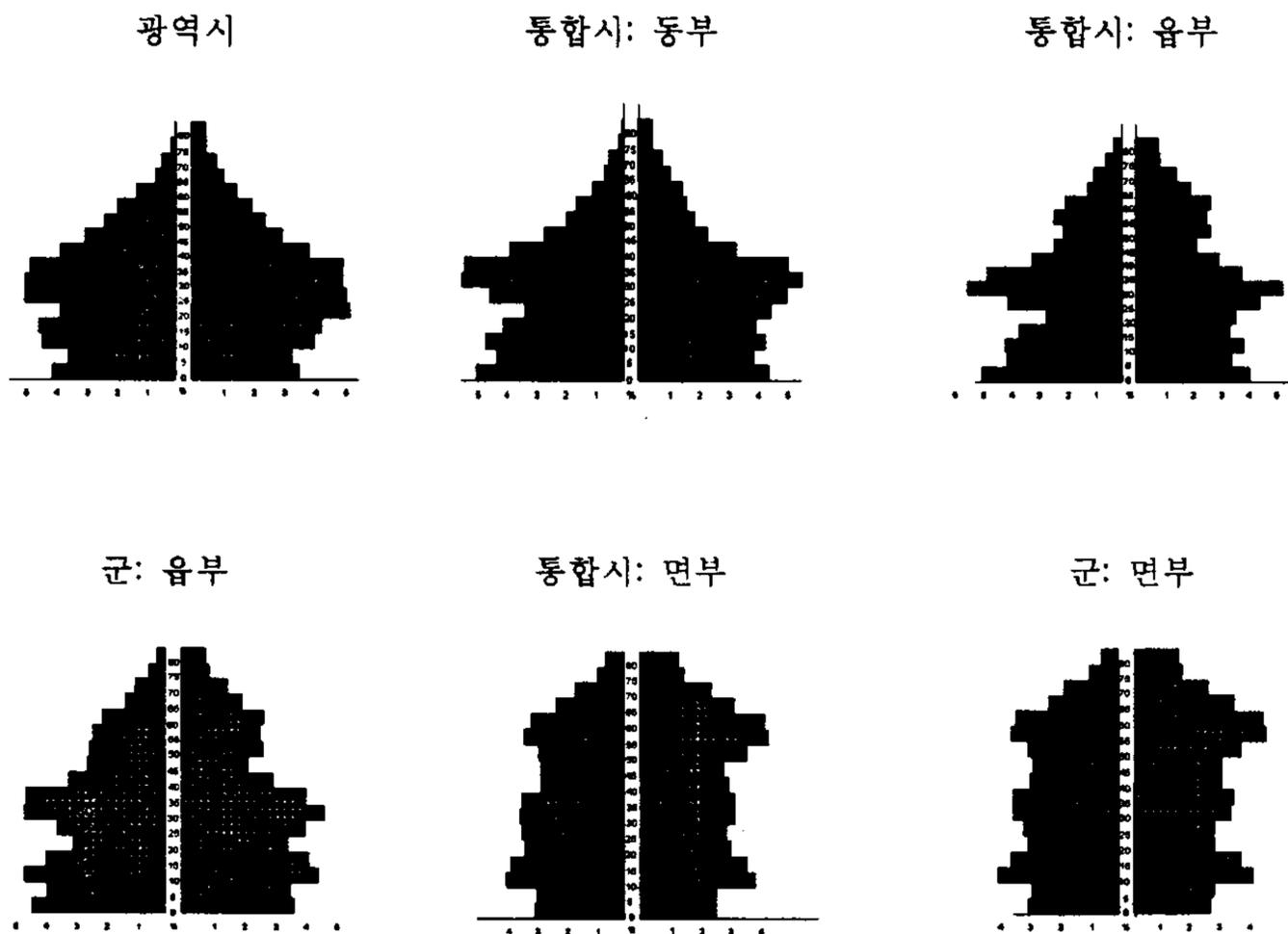
## 4.2. 지역특성과 성·연령별 인구구조

1995년부터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은 크게 개편되었다. 그 중 가장 특징적인 것은 종래의 시·군 개념이 크게 달라졌다는 사실이다. 도시와 농촌인구를 구분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는 통상 시부인구는 도시로, 그리고 군부인구는 농촌인구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1995년의 행정구역개편으로 이와같은 종래의 관행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종래 대도시와 거의 동일시되는 광역시의 경우도 인접한 면과 읍단위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으며, 종래의 군도 종래 인접해 있던 시와 통합된 통합시와 그렇지 못한 군부로 별도로 구획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도시인구가 전체인구의 반을 훨씬 넘는 인구를 포함하게 된 1980년대 이후 도시적인 생활양식은 시부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까지 깊숙히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정도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전국토가 도시화되고 있다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다행히 기본행정단위는 종래 시로 분류되던 지역은 동으로, 그리고 군부에 해당하는 지역은 읍과 면이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 따라서 동인구는 종래의 시부인구로, 그리고 읍과 면의 인구는 종래의 읍·면과 동일하다. 따라서 읍과 면이 통합시에 속하는지 또는 군에 속하는지 여부는 중심도시와의 근접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를 기초로 지역의 특성을 세분하여 구분하면 지역의 도시화정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지역특성은 도시화의 정도에 따라 (1)서울특별시를 포함한 광역시의 인구, (2)통합시의 동부인구, (3)통합시의 읍부인구(광역시의 읍부인구도 포함), (4)군의 읍부인구, (5) 통합시의 면부(광역시의 면부포함)인구, 그리고 (6)군의 면부인구로 구분하여 성·연령별 인구구조를 비교해 보기로 하였다. 이 결과는 <도표 4.3>과 같다.



<도표 4.3> 지역특성에 따른 인구피라미트: 1995년

자료: 통계청, 1995년도 인구및주택 총조사 2% 표본

<도표 4.3>은 행정구역별 지역특성의 차이에 따라 인구의 성·연령별 구조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그려본 인구피라미트이다. 여기서 제시된 인구피라미트는 1995년 인구 및 주택조사자료의 2% 표본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이 자료는 지역별로 표본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자료를 그대로 분석한 결과이다. 따라서 각 지역별로 전수자료를 분석한다면 성별·연령별 인구비율이 위 결과와는 다소간의 차이를 나타낼 수도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성별·연령별 인구구조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았다.

위 자료를 보면 성·연령별 인구구조는 도시와 농촌간에 뚜렷이 구분되는 유형을 나타내고 있다. 대체로 광역시와 통합시의 동부는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한 피라미트의 모양을 나타내고 있으며, 읍부와 면부 역시 통합시의 경우와 군부의 경우 큰 차이를 보여주지 않는다. 그러나 지역특성에 따라 피라미트는 일정한 규칙성을 나타내고 있다. 즉 광역시→통합시의 동부→통합시의 읍부→군의 읍부→통합시의 면부→군의면부 순으로 갈수록 전체인구중 60세이상 노령인구의 구성비율이 커지며, 광역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의 규모가 클수록 유소년 인구구성비율은 커지는 경향이 있다. 도시의 입지에 따른 특성별 유소년인구비율의 크기는 주로 젊은 가임연령층 여성의 구성비율이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보인다.

### 4.3. 연령구성의 변화에 따른 농촌인구의 몇가지 특성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면부인구의 성별·연령별구조는 최근 20년동안 급격히 달라졌다. 면부인구의 성·연령별 인구구조를 기초로 농촌인구의 최근 변화를 요약해 보면 대체로 15세미만의 유소년인구의 비율이 크게 줄고 있으며, 반대로 50세 이상의 고연령 인구의 비율이 크게 늘고 있다. 그 결과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농촌인구의 급격한 고령화현상이 뚜렷이 감지된다.

<표 4.3>은 1975-1995년간 20년동안 일어났던 시부와 면부지역 인구의 연령별 구성의 변화를 보여준다. 즉 1975년이래 면부인구의 연령구성의 변화를 보면 면부인구는 시부인구와는 달리 15세미만의 유소년인구비율의 급격한 감소와 65세이상 인구비율의 급증이 두드러진 현상이 되고 있다. 1975년이래 한국인구는 유소년인구비율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반해 15-64세의 경제활동인구와 65세이상의 노령인구의 구성비율이 늘어나는 것이 통상 관찰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

현상은 도시와 농촌의 경우 어느지역도 예외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면부인구의 이와같은 연령구성의 변화는 이러한 일반적인 추세에 비추어 보면 당연한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농촌지역의 경우 15-64세의 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한 유소년 및 노년부양인구에 해당하는 연령층 인구의 구성비율의 변화는 도시인구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일어나기 때문에 변화의 폭이 매우 크다(표 4.3참조).

<표 4.3> 거주지역별 인구의 연령구성과 관련된 주요지표의 변화

| 주요지표            | 1975            |                 | 1985            |                 | 1990            |                 | 1995            |                 |
|-----------------|-----------------|-----------------|-----------------|-----------------|-----------------|-----------------|-----------------|-----------------|
|                 | 면부              | 시부              | 면부              | 시부              | 면부              | 시부              | 면부              | 시부              |
| <15:%<br>(성비)   | 41.1<br>(106.9) | 35.2<br>(108.0) | 30.0<br>(103.7) | 29.7<br>(108.9) | 22.5<br>(103.7) | 26.4<br>(109.1) | 18.4<br>(106.4) | 23.7<br>(110.7) |
| 15-64:%<br>(성비) | 54.0<br>(104.0) | 62.5<br>(97.5)  | 62.2<br>(107.6) | 67.3<br>(97.8)  | 67.2<br>(107.2) | 70.1<br>(100.5) | 67.7<br>(105.3) | 71.9<br>(101.8) |
| 65+:%<br>(성비)   | 4.9<br>(67.5)   | 2.3<br>(50.7)   | 7.8<br>(67.7)   | 3.0<br>(52.0)   | 10.3<br>(68.0)  | 3.6<br>(54.6)   | 13.9<br>(65.0)  | 4.3<br>(54.8)   |
| 총부양비            | 85.2            | 60.0            | 60.9            | 48.5            | 48.8            | 42.7            | 47.7            | 39.0            |
| 유소년부양비          | 76.1            | 56.3            | 48.3            | 44.0            | 33.5            | 37.6            | 27.2            | 33.0            |
| 노년부양비           | 9.1             | 3.6             | 12.5            | 4.5             | 15.3            | 5.1             | 20.5            | 6.0             |
| 노령화지수           | 12.0            | 6.4             | 25.9            | 10.2            | 45.7            | 13.6            | 75.4            | 18.2            |

자료: <표 4.2>참조

예컨대 15세미만의 유소년인구의 구성비는 면부의 경우 1975년에 41.1%이던 것이 1995년에는 18.4%에 불과하나 시부의 경우는 1975년의 35.2%로부터 1995년에는 23.7%로서 감소폭이 면부에 비해 훨씬 적다. 이와같은 경향은 65세이상의 노령인구의 구성비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상을 보여준다. 즉 65세이상 노령인구의 구성비율 역시 면부에서는 1975년에는 4.9%에 불과하던 것이 1995년에는 13.9%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도시의 경우는 1975년에 2.3%로부터 1995년에는 4.3%로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이와같은 인구의 연령구성의 변화는 농촌인구의 부양부담을 크게 줄이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면부인구의 총부양비가 1975년의 85.2이던 것이 10년이 지난 1985년에는 60.9로, 그리고 다시 10년이 지난 1995년에는 47.7로 크게 떨어졌다는 점에서 확인될 수 있다. 그러나 농촌인구의 고령화현상은 최근 20년동안 관찰될 수 있는 부양비의 변화에서 쉽게 확인된다.

총부양비의 변화를 유소년 부양비와 노년부양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농촌인구의 부양부담은 유소년부양비의 급격한 감소에서 비롯하고 있으며, 면부지역의 경우 노년부양비는 1975년에 9.1이던 것이 1995년에는 20.5로 오히려 크게 높아졌음

을 볼 수 있다(표 4.3 참조). <표 4.3>에 의하면 이와같은 부양부담의 변화로 인해 면부지역의 노령화지수는 1975년에 12.0이던 것이 1985년에는 25.9로, 그리고 1990년과 1995년에는 각각 45.7과 75.4로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 추세는 한국의 농촌에서 인구의 노령화현상이 최근 5년간 더욱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전반적으로 한국인구는 노령화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농촌인구와는 달리 도시인구의 경우는 극히 완만한 상승추세를 나타낸다. 이 사실은 시부인구의 경우 노령화지수가 1975년에 6.4이던 것이 1985년에는 10.2로, 그리고 1990년에는 13.6으로, 다시 1995년에는 18.2로 높아지고 있어서 농촌의 상승추세와는 아주 다르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표 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관찰되는 농촌인구의 급격한 노령화현상은 주로 15세미만의 유소년인구의 급격한 감소에서 비롯된다. 농촌지역에서 유소년인구의 감소는 그동안 한국에서 일어났던 출산율의 저하현상에서 비롯되는 일반적 추세이기는 하지만 연령에 따른 인구의 선택적 이동으로 도시와는 달리 농촌지역에서 가임연령인구의 절대수감소도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된다.

<표 4.4> 가임여성인구의 변동추이

| 년 도         | 여자총인구      |           | 15-49세인구             |                     |
|-------------|------------|-----------|----------------------|---------------------|
|             | 시부         | 면부        | 시부                   | 면부                  |
| 1970<br>(%) | 6,443,101  | 7,792,822 | 3,466,977<br>(53.8)  | 3,178,407<br>(40.8) |
| 1975<br>(%) | 8,400,037  | 6,987,967 | 4,721,334<br>(56.2)  | 2,992,193<br>(42.8) |
| 1985<br>(%) | 13,263,842 | 4,533,548 | 7,875,190<br>(59.4)  | 1,989,490<br>(43.9) |
| 1990<br>(%) | 16,100,915 | 3,720,105 | 9,755,896<br>(60.6)  | 1,670,885<br>(44.9) |
| 1995<br>(%) | 17,396,241 | 3,059,397 | 10,605,797<br>(61.0) | 1,295,400<br>(42.3) |

자료: 경제기획원, 1970년 인구및주택 센서스보고서

1975-1995: <표 4.2> 참조

<표 4.4>를 보면 한국의 전형적인 농촌으로 간주되는 면부인구의 경우 면부의 전체여자인구중 15-49세의 가임여성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도시와는 달리 1990년까지 완만한 증가추세를 나타내며, 1995년부터는 오히려 약간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낸다.

그러나 면부의 경우 가임여성인구의 절대수는 면부전체의 여자인구와 마찬가지로 매 센서스기간별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그러나 감소하는 속도는 전체여자인구의 경우보다 훨씬 더 빠르다. 이는 15-49세연령의 가임여성의 경우 비교적 젊고, 출산율이 높은 20대 및 30대초반의 여성의 수가 크게 줄고 있는데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구구조의 차이가 농촌인구의 유소년인구 비율을 급속하게 떨어뜨리게 된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된다.

면부지역에서 젊은 경제활동인구의 대거 도시이주와 가임여성인구인구의 감소는 유소년의존인구의 비율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을 뿐만아니라, 동시에 한국의 농촌, 특히 면부지역에서 학령인구의 감소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 4.5>는 1970년이래 면부지역에서 학령인구의 변동추세를 보여준다.

<표 4.5>에 의하면 6-21세에 해당하는 면부지역의 학령인구는 이들 연령에 해당하는 전국인구의 변동추세보다 훨씬 더 빠른 감소세를 나타낸다. 즉 1970년의 경우 전국의 경우 6-21세의 학령인구는 12,604천명이나 되었다. 그러나 이들 학령인구는 그동안 한국에서 인구성장율이 크게 둔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절대수가 계속 늘었기 때문에 1970-1990년간 1300만을 넘는 수준에서 큰 변동이 없었으며, 다만 1995년의 경우만 학령인구의 총수는 11,721천명으로서 종전에 비해 크게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면부의 경우 이와 같은 전국적인 현상과는 달리 6-21세에 해당하는 학령인구는 1970년이래 계속 크게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 면부의 경우 6-21세의 학령인구는 1970년에 5,985천명이던 것이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크게 감소되기 시작하여 1995년에는 1970년의 학령인구에 비해 무려 76%가 되는 9,573명이 감소하여 1,433천명밖에 되지 않는다. 면부지역의 학령인구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지 가늠해 보기 위해 1970-1995년 기간중 면부인구의 감소폭을 계산해 보았을 때 이 기간중 전체 면부인구의 감소비율은 61.2%밖에 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두 개의 지표는 농촌의 경우 학령인구가 농촌인구보다 더 빨리 감소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이들 면부지역의 학령인구의 변동을 각급 학교별로 구분하여 관찰해 보면 면부지역의 경우 학령인구의 감소는 고등학교나 대학보다는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령인구가 더 많이, 그리고 더 빨리 줄고 있다. <표 4.5>에 의하면 1970년에 3,109천명이던 초등학교 학령인구(6-11세)는 25년이 지난 1995년에는 1970년에 비해 무려 86.2%나 되는 2,680천명이 감소하여 429천명밖에 되지 않는다. 그밖에 1970-1995년간 각급학교 학령인구비율의 감소비율을 보면 중학교의 경우는

75.6%, 고등학교는 63.8%, 그리고 대학의 경우는 50.5%로서 상급학교로 갈수록 점차적으로 감소비율이 줄고 있다. 동시에 이 표는 면부지역의 경우 각급학교별 학령인구의 감소비율이 전국의 경우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일련의 결과는 농촌지역에서 학령인구의 감소는 단순한 출산력 수준의 감소뿐 아니라 연령에 따른 인구이동의 선택성으로 인해 비교적 젊은 여성층의 가임인구의 수가 크게 감소한 것도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표 4.5> 학령인구(6-21세)의 변동: 1970-95

(단위: 천명)

| 인 구         | 1970   | 1975   | 1985   | 1990   | 1995   |
|-------------|--------|--------|--------|--------|--------|
| 총인구: 면부     | 15,654 | 14,185 | 9,187  | 7,498  | 6,081  |
| 전국          | 32,241 | 34,679 | 40,806 | 42,869 | 44,554 |
| 학령인구(6-21)  |        |        |        |        |        |
| 면부: 인구수     | 5,985  | 5,269  | 3,095  | 2,299  | 1,433  |
| (%)         | (38.3) | (37.1) | (33.7) | (30.7) | (23.6) |
| 전국: 인구수     | 12,604 | 13,633 | 13,747 | 13,419 | 11,721 |
| (%)         | (39.1) | (39.3) | (33.7) | (31.3) | (26.3) |
| 초등학교(6-11)  |        |        |        |        |        |
| 면부: 인구수     | 3,109  | 2,479  | 1,151  | 770    | 429    |
| (%)         | (19.9) | (17.4) | (12.5) | (10.3) | (7.1)  |
| 전국: 인구수     | 5,711  | 5,279  | 4,863  | 4,835  | 3,775  |
| (%)         | (17.7) | (15.2) | (11.9) | (11.3) | (8.5)  |
| 중학교(12-14)  |        |        |        |        |        |
| 면부: 인구수     | 1,248  | 1,280  | 738    | 449    | 305    |
| (%)         | (8.0)  | (9.0)  | (8.0)  | (6.0)  | (5.0)  |
| 전국: 인구수     | 2,574  | 2,791  | 2,780  | 2,306  | 2,395  |
| (%)         | (8.0)  | (8.0)  | (6.8)  | (5.4)  | (5.4)  |
| 고등학교(15-17) |        |        |        |        |        |
| 면부: 인구수     | 825    | 589    | 600    | 479    | 302    |
| (%)         | (5.3)  | (4.2)  | (6.6)  | (6.4)  | (5.0)  |
| 전국: 인구수     | 2,101  | 2,685  | 2,709  | 2,627  | 2,368  |
| (%)         | (6.5)  | (7.8)  | (6.7)  | (6.1)  | (5.3)  |
| 대학 (18-21)  |        |        |        |        |        |
| 면부: 인구수     | 803    | 921    | 606    | 601    | 397    |
| (%)         | (5.1)  | (6.5)  | (6.6)  | (8.0)  | (6.5)  |
| 전국: 인구수     | 2,218  | 2,878  | 3,395  | 3,651  | 3,183  |
| (%)         | (6.9)  | (8.3)  | (8.3)  | (8.5)  | (7.1)  |

자료: 경제기획원, 1970, 1975, 1980, 1985년 인구및주택 센서스보고서

통계청, 1990, 1995년 인구및주택 총조사보고서

#### 4.4 혼인상태별 인구구성의 변화

농촌의 인구구조와 관련하여 빼 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특성은 혼인상태별 인구구성의 변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혼인상태별 인구구성의 변화는 통상 초혼연령과 유배우율의 두 지표의 변화를 통해서 관찰된다. 초혼연령은 혼인시기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 그리고 유배우율은 혼인의 빈도를 평가하는데 유용한 지표가 된다.

먼저 초혼연령의 변동추세를 살펴보면 <표 4.6>과 같다. 한국인의 초혼연령은 그동안 한국인들이 경험했던 산업화 및 도시화현상과 맞물려 1960년이래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냈다. 초혼연령의 이러한 상승세는 남녀의 성을 초월하여 일어났으며, 동시에 도시와 농촌지역에서 모두 관찰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또한 한국인의 초혼연령은 남녀 모두 농촌보다는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초혼연령이 더 높았다. 그러나 한국인의 초혼연령의 변동과 관련하여 최근에 관찰되는 특이한 현상은 도시-농촌간에서 볼 수 있었던 이와같은 차별현상이 성에 따라서는 종전과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표 4.6 참조).

<표 4.6> 성별 초혼연령의 변동: 1955-95

(단위: 세)

| 연도   | 면 부  |      | 군 부  |      | 시 부  |      |
|------|------|------|------|------|------|------|
|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 1955 | -    | -    | 24.3 | 20.1 | 25.5 | 21.5 |
| 1960 | -    | -    | 24.9 | 21.0 | 26.8 | 22.8 |
| 1966 | -    | -    | 26.1 | 22.0 | 27.7 | 24.0 |
| 1970 | 26.8 | 22.6 | 26.8 | 22.6 | 27.5 | 23.8 |
| 1975 | 27.1 | 22.8 | 27.1 | 22.9 | 27.6 | 24.2 |
| 1980 | 27.4 | 23.4 | 27.3 | 23.5 | 27.4 | 24.3 |
| 1985 | 28.1 | 23.9 | 27.9 | 24.0 | 27.8 | 25.0 |
| 1990 | 29.5 | 25.2 | 29.0 | 25.1 | 28.4 | 25.5 |
| 1995 | 30.1 | 25.5 | 29.6 | 25.4 | 29.3 | 26.2 |

자료: 경제기획원,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년 인구및주택 센서스보고서  
 통계청, 1990, 1995년 인구및주택 총조사보고서  
 에 수록된 자료에서 미혼인구비율을 기초로 산출한 평균  
 초혼연령(SMAM)임.

<표 4.6>을 보면 한국에서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분류될 수 있는 면부인구의 경우, 초혼연령은 남녀 모두 꾸준한 상승세를 나타냈으나 시부인구의 초혼연령 보

다는 약간 낮은 편이었다. 그러나 남자의 경우, 도시와 농촌간에서 관찰되던 초혼 연령의 이러한 차별현상은 1980년을 기점으로 역전되기 시작한다. 즉 1975년까지만 해도 시부와 면부, 또는 시부와 군부간의 초혼연령을 비교해보면 남녀 모두 시부의 초혼연령이 면부나 군부의 경우보다 더 높다. 그러나 1980년 자료를 보면 여자는 종전과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나, 남자의 경우는 시부와 면부, 그리고 군부의 초혼연령이 거의 유사한 수준에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같은 결과는 1980년 시부남자의 경우 초혼연령이 종전과는 달리 하향세에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그러나 시부의 남자인구에서 관찰되는 1980년의 하향세는 1950년대의 베이비·붐의 여파가 남녀간 초혼연령의 변동에 영향을 미친 일시적인 현상을 반영한 결과일 뿐이다(최순, 1983). 이와같은 해석은 1985년 이후 계속하여 시부지역 남자의 초혼연령이 계속하여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그러나 1985년 이후 시부와 면부간 초혼연령의 변동추세를 보면 남녀 모두 상승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남자의 경우 시부보다는 면부의 초혼연령이 훨씬 더 높다. 더욱이 1995년의 남자의 평균초혼연령을 보면 종래 시부인구로 분류되던 동부인구의 경우 29.3세로서 30세에 근접하고 있는데 반해, 읍과 면이 포함된 군부의 경우는 29.6세, 그리고 면부의 경우는 30.1세로서 농촌남자의 초혼연령이 도시에 비해 더 높다. 이와같은 일련의 사실은 적어도 1980년 이래 한국에서 농촌남자들이 결혼하기가 매우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음을 말해주는 좋은 지표가 된다.

농촌인구, 특히 농촌 남자들의 이와같은 초혼연령의 변동추세는 농촌인구의 혼인상태의 변동을 보여주는 유배우율의 변화추세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각 연령별 유배우율의 변화는 각 연령별로 결혼과 이혼, 사별 등 혼인상태의 변화를 반영한다. <표 4.7>은 1966-1995년의 약 30년간 농촌과 도시인구의 연령별 유배우율의 변화를 보여준다.

1966-95년 기간중 면부인구의 연령별 유배우율을 보면, 이 기간중 남녀 모두 연령별 유배우율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대체로 면부인구의 경우 유배우율은 성에 따라 변동양상이 다르며, 연령에 따라 변동의 속도가 다르며, 이와같은 유형의 변동은 전 연령층에 걸쳐서 최근 10년동안(1985-95)에 더욱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와같은 일반적인 변동추세는 도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변동유형을 보여준다. 다만 도시의 경우는 농촌인구에 비해 변동의 속도가 덜 빠를 뿐이다.

<표 4.7> 성별·연령별 유배우율의 변동: 1966-95

(단위: %)

|           | 면 부   |      |      |      | 시 부  |      |      |      |
|-----------|-------|------|------|------|------|------|------|------|
|           | 1966* | 1975 | 1985 | 1995 | 1966 | 1975 | 1985 | 1995 |
| <b>남자</b> |       |      |      |      |      |      |      |      |
| 15-19     | 0.7   | 0.4  | 0.2  | 0.2  | 0.2  | 0.2  | 0.1  | 0.2  |
| 20-24     | 12.4  | 7.8  | 4.5  | 3.0  | 5.4  | 6.2  | 5.8  | 3.6  |
| 25-29     | 67.8  | 55.1 | 45.7 | 31.0 | 49.4 | 50.4 | 49.0 | 35.4 |
| 30-34     | 97.6  | 93.2 | 87.6 | 72.4 | 90.0 | 91.3 | 90.0 | 80.3 |
| 35-39     | 97.5  | 97.3 | 94.3 | 86.2 | 97.0 | 97.3 | 96.1 | 91.8 |
| 40-44     | 97.5  | 97.7 | 95.7 | 90.5 | 97.5 | 97.7 | 97.1 | 94.4 |
| 45-49     | 96.8  | 97.3 | 96.5 | 92.6 | 96.9 | 97.0 | 97.1 | 94.9 |
| <b>여자</b> |       |      |      |      |      |      |      |      |
| 15-19     | 5.3   | 3.9  | 1.3  | 0.9  | 1.8  | 1.7  | 0.7  | 0.7  |
| 20-24     | 57.9  | 46.7 | 36.6 | 20.3 | 33.1 | 31.7 | 25.4 | 15.8 |
| 25-29     | 94.4  | 92.3 | 86.4 | 75.5 | 83.8 | 84.0 | 79.3 | 68.7 |
| 30-34     | 95.4  | 96.6 | 95.7 | 93.1 | 91.4 | 93.0 | 92.6 | 91.0 |
| 35-39     | 90.5  | 94.9 | 94.9 | 93.3 | 87.0 | 91.8 | 92.8 | 92.0 |
| 40-44     | 84.1  | 90.3 | 92.2 | 91.3 | 80.1 | 86.2 | 89.7 | 89.9 |
| 45-49     | 76.9  | 81.9 | 88.4 | 88.0 | 71.4 | 76.0 | 84.5 | 86.1 |

\* 음을 포함한 군부자료임.

자료: 경제기획원, 1966, 1975, 1985년 인구및주택 센서스보고서

통계청, 1995년 인구및주택 총조사보고서

유배우율의 변동을 연령별로 관찰해 보면, 남자의 경우 면부와 시부 모두 34세이하의 젊은 연령층의 유배우율이 최근에 이르면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35세 이상의 고연령층의 경우는 나이가 들수록 감소폭이 작아진다. 이와같은 경향은 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나, 여자의 경우는 남자와는 달리 30세 미만의 인구에서 감소비율이 비교적 크다. 또한 여자의 경우는 시부와 면부 모두 35세 이상 고연령층의 유배우비율은 최근에 이르면서 더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표 4.7 참조).

통상 유배우율의 변화는 젊은 연령에서는 결혼율의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고연령에서는 이혼과 사별, 별거, 그리고 재혼 등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이 점을 고려하면 남자의 경우 면부 뿐만 아니라 시부의 경우 모두 34세이하에서 유배우율의 감소비율이 컸으며, 35세이후의 고연령에서 이 비율의 감소폭이 비교적 적었

다. 이 사실은 최근에 이르면서 남자들의 만혼경향과 혼인상태의 불안정성을 모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반해 여자의 경우는 면부와 시부 모두 30세 미만에서 유배우율의 변화가 컸다는 것은 여성의 초혼연령이 도시와 농촌 모두 크게 상승하는 만혼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반해 35세 이상의 고연령층의 유배우율이 최근 크게 증가했다는 것은 종전에 비해 이혼, 사별을 경험했던 여성들이 재혼하는 빈도가 더 많아지고 있는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표 4.7>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일련의 유배우율의 최근 변동은 농촌의 경우도 도시와 마찬가지로 결혼과 관련된 일련의 규범이 최근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근거자료가 되는 것이다.

## 4.5 교육수준

1960년이래 우리나라가 경험했던 급격한 산업화와 이에 따른 도시화, 그리고 짧은 기간에 성취할 수 있었던 인구변천 등 여러 요인은 우리나라의 인구, 특히 농촌인구의 성·연령별 구조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즉 성·연령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인구는 질적인 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해방후 우리나라에서는 초등학교 교육이 의무교육으로 실시되었으며, 동시에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가 부여되었다. 이에 따라 종전보다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이들 세대가 전체 우리나라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커짐에 따라 한국인의 교육수준은 크게 높아졌다(최순, 1985; 김태현외, 1993). 이와같은 교육수준의 상승현상은 농촌의 경우도 예외일 수가 없다.

<표 4.8.1>은 1975-1995년동안 면부인구의 교육수준의 변화를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센서스에서는 교육수준의 측정을 위해 각급학교를 졸업, 중퇴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만을 조사하여 집계한다. 그러므로 이처럼 제한된 자료를 이용하여 교육수준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단일 지표를 구성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처럼 짧은 기간에 급격한 사회구조의 변화를 경험한 사회에서는 연령에 따라 각자가 경험한 교육기회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상 교육수준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각 시점별로 새롭게 진입하는 특정연령층 인구의 교육수준의 변화를 비교해 보게 된다.

<표 4.8> 30-34세 인구의 교육수준: 1975-95, 면부·시부인구

(단위: %)

| 교육수준                | 남 자       |             |          | 여 자       |             |          |
|---------------------|-----------|-------------|----------|-----------|-------------|----------|
|                     | 1975      | 1985        | 1995     | 1975      | 1985        | 1995     |
| <b>&lt;면부인구&gt;</b> |           |             |          |           |             |          |
| 불취학                 | 5.0       | 1.5         | 0.6      | 12.6      | 2.7         | 0.8      |
| 초등                  | 53.7      | 33.9        | 7.3      | 73.6      | 53.3        | 11.7     |
| 중학                  | 20.7      | 27.1        | 26.3     | 9.5       | 26.6        | 23.4     |
| 고등                  | 15.1      | 27.8        | 50.4     | 3.6       | 14.3        | 50.5     |
| 초대                  | 1.8       | 3.3         | 6.7      | 0.2       | 1.0         | 4.2      |
| 대졸                  | 3.7       | 6.3         | 20.2     | 0.5       | 2.1         | 9.4      |
| 계: %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N                   | (359,441) | (251,963)   | (25,321) | (369,260) | (241,910)   | (25,215) |
| 질적변이<br>지수(IQV)     | 0.770     | 0.875       | 0.752    | 0.516     | 0.748       | 0.799    |
| <b>&lt;시부인구&gt;</b> |           |             |          |           |             |          |
| 불취학                 | 1.1       | 0.4         | 0.2      | 3.4       | 0.7         | 0.2      |
| 초등                  | 18.0      | 8.4         | 2.2      | 42.0      | 18.2        | 3.4      |
| 중학                  | 24.6      | 21.3        | 7.3      | 26.8      | 33.4        | 14.7     |
| 고등                  | 34.4      | 45.4        | 44.6     | 20.2      | 36.5        | 53.9     |
| 초대                  | 2.8       | 4.4         | 7.5      | 1.3       | 2.5         | 5.9      |
| 대졸                  | 19.1      | 20.2        | 38.2     | 6.3       | 8.7         | 21.8     |
| 계: %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N                   | (655,017) | (1,154,816) | (20,420) | (606,992) | (1,114,564) | (20,033) |
| 질적변이<br>지수(IQV)     | 0.902     | 0.839       | 0.773    | 0.847     | 0.857       | 0.763    |

자료: 경제기획원, 1975, 1985년 인구및주택 센서스보고서  
통계청, 1995년 인구및주택 총조사 2% 표본

<표 4.8.>은 면부인구와 시부인구 가운데서 비교적 오래전에 학교교육을 마친 연령층으로 간주되는 30-34세인구의 교육수준별 인구분포이다. 한국의 경우 인구의 반 이상이 도시인구로 분류되기 시작한 시기는 1975년을 전후한 시점이 된다. 따라서 한국에서 1975-95년은 한국사회가 종래의 농촌중심적인 사회에서 도시중심사회로 급속하게 재편된 시기가 되기도 한다. <표 4.8.>은 바로 이 시점에 해당하는 1975-95년 기간중 농촌주민의 교육수준도 크게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체로 1975-85년은 인구집중면에서 한국사회가 도시중심사회로 전환되기 시작한 초기단계에 해당하며, 1985-95년은 한국사회가 본격적으로 도시중심사회로 전환된 시기로 간주된다. 이 기간중 30-34세의 면부인구를 중심으로 농촌인구의 교육

수준의 변화를 보면 이 두 기간중 농촌인구도 도시인구와 마찬가지로 교육수준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1975년의 경우만 해도 농촌인구는 초등학교 교육만을 받은 사람이 절대적으로 많았으며(남자-51.7%; 여자-70.5%),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교육을 받은 인구는 남자의 경우 19.5%에 불과했으며, 여자의 경우는 이 비율이 더욱 낮아서 겨우 4.1% 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1995년에는 고졸이상의 높은 교육수준을 가진 인구의 비율이 남녀 모두 크게 증가했다(남자의 경우, 74.8%; 여자의 경우, 63.4%). 농촌인구의 이와같은 고학력인구 비율의 증가는 시부인구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다. 도시인구에 비해 다만 대학교육을 이수해 본 경험이 있는 인구의 비율만이 다소 떨어질 뿐이다(표 4.8 참조). 1975-95년 기간중 한국인의 교육수준을 보면 도시인구의 교육수준이 농촌인구보다는 더 높은 수준에 있으며, 두 지역 모두 여자보다는 남자의 교육수준이 훨씬 더 높다. 그러나 1975-95년 기간중 교육수준의 변화추세를 보면 두 지역인구의 교육수준은 모두 성과는 관계없이 상승세를 나타낸다. 그러나 교육수준별 인구분포의 변화를 보면 농촌과 도시간, 그리고 성에 따라 많은 차이를 나타낸다.

먼저 1975-95년 기간중 각 센서스 연도별로 지역별·성별·교육수준별 인구분포의 변화를 측정할 질적변이지수(index of qualitative variation)는 <표 4.8>과 같다. 질적변이지수는 비연속적 변인의 분산도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통계치로서, 전체 사례가 변인의 모든 범주에 골고루 분포되었을 경우 1이 된다. 따라서 이 지수는 값이 클수록 다양성의 정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8>을 보면 1975-1995년 기간중 질적변이지수는 거주지역과 성에 따라 서로 다른 유형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4.8>에서 면부남자의 질적변이지수를 보면 1975년에 0.770이던 것이 1985년에는 0.875로 높아졌으나, 1995년에는 다시 0.752로 낮아진다. 그러나 남자의 경우는 달리 면부여자의 경우는 1975년에 0.516이던 이 지수가 1985년에는 0.748로, 그리고 1995년에는 다시 0.799로 높아진다. 이러한 일련의 결과는 면부지역에서 남자와 여자의 경우 교육수준의 변화유형이 아직은 서로 다른 상태에 있음을 말해 준다. 즉 남자의 경우 1985년까지는 종래 비교적 낮은 수준에 있던 농촌남자의 교육수준이 점차 분화현상을 보이다가 최근에 이르면서 농촌남자들의 교육수준이 종전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집중되고 있음을 말해 준다. 다시말해서 면부지역을 중심으로 관찰한 농촌인구의 교육수준이 최근 높은 수준에서 비교적 동질

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사실은 <표 4.8>에서 고졸이상의 교육을 받은 인구의 구성비를 보면 1975년에는 19.5%에 불과하던 것이 1985년에는 36.2%, 그리고 1995년에는 이 비율이 무려 76.2%로 크게 늘고 있다는 사실과도 합치된다. 이에 반해 농촌여자인구의 경우는 많은 여성의 교육수준이 크게 높아지고는 있으나, 면부여성의 교육수준별 인구는 중학이하의 비교적 낮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여성의 비율도 아직도 높은 편이어서 이들 인구집단의 교육수준은 고학력인구로 동질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계속 분화과정에 있음을 의미한다.

면부인구를 중심으로 관찰한 농촌인구의 교육수준은 <표 4.8>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아직도 도시인구의 경우와는 약간 다른 유형으로 변화하고 있다. 시부인구의 경우 남녀 모두 1975년 이후 질적변이지수는 최근에 이르면서 낮아지고 있다. 이 사실은 적어도 시부지역의 경우 교육수준은 최근 고학력인구로 급격하게 동질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같은 시부지역의 경험은 면부지역의 인구도 가까운 장래에 비교적 고학력의 동질적인 인구로 변모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표 4.9>는 거주지역의 특성에 따른 30-34세 인구의 교육수준별 인구의 구성비율이다. 한국에서 전형적인 농촌으로 분류될 수 있는 행정구역은 면이 된다. 그러나 도시화는 단순히 인구의 도시집중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도시적인 생활양식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를 감안하면 최근 한국의 도시화는 면부지역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주로 도시적인 생활양식은 도시주변지역이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더 빨리 변화하는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1995년의 대대적인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인해 면부지역도 군단위에 속하는 면부와 통합시에 속하는 면부를 동일한 농촌지역으로 분류하는데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이들 두지역의 인구구조나 인구의 특성을 비교해 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들 두 표를 보면 남녀 모두 지역특성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나 고등학교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다만 거주하는 공동체의 도시화 정도에 따라 대학교육이상을 받은 사람과 중학교수준 이하의 교육만을 받은 사람의 비율에 차이를 나타낼 뿐이다. 즉 후자의 비율이 줄게 되면 전자의 비율이 늘게 된다. 또한 대학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의 비율이 늘게 될 경우 각 지역별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고등학교수준의 학력수준을 가진 사람의 비율도 줄게 된다. 동시에 지역간 교육수준별 분포를 보면 대체로 남녀 모두 읍지역이 가장 동질적인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데 반해, 대도시로 갈수록 좀 더 이질성을 나타낸다.

이와같은 일련의 사실은 지역특성과 상관없이 어느지역이던 지역주민의 교육수준은 대체로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나, 지역주민의 현재의 교육수준은 도시화가 고도화된 지역으로 갈수록, 그리고 아직도 성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말해 준다. 그밖에 <표 4.9>를 보면 면부지역 인구의 교육수준도 통합시의 면과 군단위의 면간에도 약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통상 평균의 경우 회귀효과(regression effect)가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통합시의 면지역과 군다위의 면지역간에 관찰되는 조그만 차이는 면부단위의 농촌지역도 교육수준과 같은 특성은 지역에 따라 크게 분화되어 있음을 시사해준다.

<표 4.9> 거주지역별 30-34세 인구의 교육수준

| 교육수준        | 광역시      | 통합시: 동   | 통합시: 읍  | 군: 읍    | 통합시: 면  | 군: 면    |
|-------------|----------|----------|---------|---------|---------|---------|
|             | ( 남 자 )  |          |         |         |         |         |
| 불취학         | 0.2      | 0.2      | 0.2     | 0.3     | 0.9     | 0.9     |
| 초등학교        | 2.2      | 2.1      | 3.3     | 4.3     | 7.3     | 10.1    |
| 중학교         | 7.4      | 7.0      | 11.0    | 12.4    | 15.3    | 17.0    |
| 고등학교        | 44.7     | 48.1     | 53.8    | 51.6    | 51.8    | 49.2    |
| 초급대학        | 7.5      | 7.9      | 7.6     | 7.4     | 7.3     | 6.1     |
| 대학          | 33.6     | 31.2     | 21.9    | 21.8    | 16.2    | 15.2    |
| 대학원이상       | 4.5      | 3.6      | 2.1     | 2.2     | 1.2     | 1.5     |
| 계: %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N           | (20,504) | (15,026) | (1,139) | (2,294) | (1,579) | (2,506) |
| 질적변이지수(IQV) | 0.731    | 0.713    | 0.695   | 0.719   | 0.728   | 0.752   |
|             | ( 여 자 )  |          |         |         |         |         |
| 불취학         | 0.2      | 0.3      | 0.4     | 0.5     | 0.9     | 1.0     |
| 초등학교        | 3.3      | 3.3      | 7.4     | 7.3     | 12.0    | 15.9    |
| 중학교         | 14.8     | 14.2     | 20.1    | 20.8    | 23.7    | 25.9    |
| 고등학교        | 53.9     | 57.3     | 58.2    | 55.4    | 49.8    | 45.8    |
| 초급대학        | 6.0      | 5.8      | 4.2     | 5.1     | 4.8     | 3.3     |
| 대학          | 20.2     | 18.1     | 9.3     | 10.5    | 8.7     | 7.8     |
| 대학원이상       | 1.6      | 1.1      | 0.5     | 0.4     | 0.1     | 0.3     |
| 계: %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N           | (20,033) | (15,293) | (1,096) | (2,265) | (1,410) | (2,318) |
| 질적변이지수(IQV) | 0.694    | 0.662    | 0.651   | 0.681   | 0.728   | 0.751   |

자료: 통계청, 1995년 인구및주택 총조사 2% 표본

## 4.6 경제활동과 취업구조

농촌인구수의 급속한 감소, 인구의 노령화현상, 20대 인구의 지나친 남초현상, 그리고 교육수준의 급격한 상승 등은 1990년대 후반 한국 농촌에서 인구변동으로 인해 조성된 가장 특징적인 인구학적 상황이다. 이와같은 인구학적 상황의 변화와 더불어 농촌지역 내부 깊숙히 스며드는 도시화의 바람으로 한국인의 농촌생활도 크게 달라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농촌생활의 변화는 우선 농촌주민의 가족생활과 경제활동과 관련된 영역에서 가장 현저한 변화를 나타낼 것으로 예견된다.

<표 4.10>은 1975-1995년 기간중 면부인구를 토대로 관찰한 농촌인구의 경제활동상태의 분포와 그 변화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 표를 보면 이 기간중 한국농촌은 급격한 인구변화가 일어났다고는 하지만, 15세 이상 인구의 성별차이를 제외하고는 이 기간중 면부지역인구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지표는 표면상 큰 변화를 보여주지 않는다. 특히 이와 같은 경향은 여자보다는 남자 쪽이 훨씬 심하다. 남자의 경우, 15세이상 인구중 경제활동인구의 구성비가 두 기간중 각각 82%와 81%로 거의 변화가 없다. 또한 경제활동 인구중 취업자 비율 역시 1975년에 98.3%이던 것이 1995년에는 94.7%로 3.6퍼센트 포인트 떨어지고 있으나, 변화의 폭은 그리 큰 편이 아니다.

<표 4.10> 성별 면부인구의 경제활동상태, 1975-95

| 경제활동상태  | 남 자                  |                   | 여 자                  |                   |
|---------|----------------------|-------------------|----------------------|-------------------|
|         | 1975                 | 1995              | 1975                 | 1995              |
| 15세이상인구 | 100.0<br>(4,162,280) | 100.0<br>(45,810) | 100.0<br>(4,372,793) | 100.0<br>(51,048) |
| 비경제활동인구 | 18.0                 | 19.0              | 34.4                 | 47.5              |
| 경제활동인구  | 82.0                 | 81.0              | 65.6                 | 52.5              |
| 경제활동인구  | 100.0<br>(3,414,910) | 100.0<br>(37,101) | 100.0<br>(2,870,261) | 100.0<br>(26,818) |
| 취업자     | 98.3                 | 94.7              | 99.3                 | 97.3              |
| 주요 일함   | 96.2                 | 92.6              | 86.2                 | 67.8              |
| 일시휴직    | 0.4                  | 0.4               | 0.2                  | 0.2               |
| 틈틈히일함   | 1.7                  | 1.7               | 12.9                 | 29.4              |
| 비취업자    | 1.7                  | 5.3               | 0.7                  | 2.7               |

자료: 경제기획원, 1975년 인구및주택 센서스보고서, 경제활동편  
통계청, 1995년 인구및주택 총조사 2% 표본

그러나 여자의 경우는 남자와 비교하여 아주 다른 변화의 유형을 나타낸다. 두 기간중 15세이상 인구중 경제활동인구의 구성비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며(1975년의 65.6%로부터 1995년의 52.5%로), 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취업자의 구성비율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취업상태는 크게 달라졌다. 전업으로 일을 하는 여성의 비율이 크게 줄고 가사 틈틈히, 또는 통학하는 사이사이에 틈틈히 일하는 여자의 비율이 크게 늘고 있다(표 4.10 참조). 이와같은 일련의 변화는 농촌지역에서 취업활동은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더불어 남자보다는 여성들의 취업활동이 최근 더 크게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그러나 <표 4.10>에서 보는 바와 같은 경제활동상태만을 토대로 구체적인 변화의 내용을 관찰하기는 어렵다.

<표 4.11.1>과 <표 4.11.2>는 각각 남녀 성별로 면부와 시부에서 1975년과 1995년 센서스에서 관찰되는 취업자의 산업별 구성비율이다. 이 두 표를 보면 이 기간중 남녀 모두 시부에서는 질적변이지수의 값의 변화가 크지 않는데 반해, 면부에서는 남녀 모두 이 값의 변화가 매우 심하다. 이 사실은 농촌의 경우 취업자가 취업하는 산업별 업종이 성과는 관계없이 최근에 이르면서 크게 다양화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1975년의 경우만 해도 남자의 80.2%, 그리고 여자의 87.4%가 되는 대다수 인구가 농림·어업·수렵업 등과 같은 업종에서 일하고 있었다. 즉 산업별 취업자의 구성비율을 보면 극히 동질성을 나타냈다. 그러나 1995년의 경우를 보면, 종래 농어업 일변도였던 산업별 취업구조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우선 남자의 경우 1975년에 80.2%를 차지하고 있던 농어업 종사자의 비율이 1995년에는 급격히 감소하여 51.7%로 줄었으며, 여자의 경우도 종래의 87.4%로부터 64.2%로 크게 감소하였다. 대신에 남자의 경우, 제조업(15.0%), 도소매업 및 숙박업(11.4%), 건설업(7.3%) 등 도시적인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의 비율이 크게 늘고 있다. 여자의 경우 마찬가지로 도·소매·숙박업(15.3%), 제조업(9.4%),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6.6%) 순으로 1975년에 비해 취업선이 더 다양해지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아직도 농촌의 산업별 취업분포의 다양성은 <표 4.11.1>과 <표 4.1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시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여자의 경우 더 심한 편이다.

한편 취업중인 산업의 분포를 같은 면부지역이라도 통합시와 군의 면부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표 4.12>에서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남녀 모두 같은 면부라도 통합시와 군 단위의 면부간에는 취업중인 산업분포에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군단위의 면부가 농림·어업·수렵업 등과

같은 농촌적인 산업에 집중되는 정도가 통합시의 면부보다 약간 더 높았다. 다시 말해서 도시주변지역에 가까운 통합시의 면부가 탈농업 현상이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와같은 결과는 면부단위의 농촌지역은 도시와의 입지관계 여하에 따라 매우 이질적인 특성을 나타낼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표 4.11.1>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율: 1975 및 1995

| 취업중인 산업         | 남자    |       |       |       |
|-----------------|-------|-------|-------|-------|
|                 | 면 부   |       | 시 부   |       |
|                 | 1975  | 1995  | 1975  | 1995  |
| 농림·수렵·어업        | 80.2  | 51.7  | 6.5   | 1.5   |
| 광업              | 1.0   | 0.6   | 0.3   | 0.1   |
| 제조업             | 4.6   | 15.0  | 31.7  | 28.1  |
| 전기·가스·수도시설      | 0.1   | 0.6   | 0.7   | 0.6   |
| 건설업             | 1.6   | 7.3   | 10.5  | 14.4  |
| 도소매업 및 숙박업      | 3.7   | 11.4  | 21.1  | 25.8  |
| 운수·창고·통신        | 1.3   | 4.3   | 8.4   | 9.0   |
|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 | 0.3   | 3.4   | 2.9   | 10.5  |
|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 7.2   | 5.8   | 17.8  | 10.0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 질적변이지수(IQV)     | 0.342 | 0.722 | 0.851 | 0.856 |

자료: <표 4.10> 참조

<표 4.11.2>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율: 1975 및 1995

| 취업중인 산업         | 여자    |       |       |       |
|-----------------|-------|-------|-------|-------|
|                 | 면 부   |       | 시 부   |       |
|                 | 1975  | 1995  | 1975  | 1995  |
| 농림·수렵·어업        | 87.4  | 64.2  | 8.5   | 1.5   |
| 광업              | 0.1   | 0.2   | 0.1   | 0.0   |
| 제조업             | 5.3   | 9.4   | 38.7  | 24.1  |
| 전기·가스·수도시설      | 0.0   | 0.1   | 0.2   | 0.1   |
| 건설업             | 0.1   | 0.9   | 1.2   | 2.8   |
| 도소매업 및 숙박업      | 4.9   | 15.3  | 29.1  | 36.2  |
| 운수·창고·통신        | 0.3   | 0.6   | 2.0   | 2.2   |
|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 | 0.1   | 2.8   | 1.8   | 11.4  |
|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 1.9   | 6.6   | 18.5  | 21.8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 질적변이지수(IQV)     | 0.210 | 0.570 | 0.764 | 0.793 |

자료: <표 4.10> 참조

<표 4.12> 산업별 취업자 직업구성비율: 1975 및 1995

| 취업중인 직업         | 남 자    |       | 여 자    |       |
|-----------------|--------|-------|--------|-------|
|                 | 통합시:면부 | 군:면부  | 통합시:면부 | 군:면부  |
| 농림·어업·수렵        | 57.7   | 64.4  | 71.5   | 74.7  |
| 광업              | 0.4    | 0.5   | 0.1    | 0.2   |
| 제조업             | 17.1   | 12.3  | 9.1    | 7.5   |
| 전기·가스·수도시설      | 0.7    | 0.4   | 0.1    | 0.1   |
| 건설업             | 5.4    | 5.2   | 1.0    | 0.6   |
| 도소매업 및 숙박업      | 8.5    | 7.9   | 10.9   | 10.6  |
| 운수·창고·통신        | 3.6    | 2.7   | 0.5    | 0.4   |
|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 | 2.4    | 2.3   | 2.1    | 1.7   |
|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 4.1    | 4.3   | 4.8    | 4.3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 질적변이지수(IQV)     | 0.653  | 0.579 | 0.475  | 0.427 |

자료: 통계청, 1995년 인구및주택 총조사 2% 표본

지역특성에 따른 취업자의 취업유형은 비단 취업중인 산업뿐만 아니라 취업중인 직업분포에서도 비슷한 유형을 보여준다. 직업분포의 경우, 1975년 센서스와 1995년 센서스의 경우 적용된 직업분류상의 범주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표 4.13>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직접적으로 그 변화를 관찰할 수는 없다. 다만 이 표를 기초로 취업중인 직업분포의 일반적인 유형을 살펴 보았을 때, 남녀 모두 1975년에는 농·축·어업과 같은 농촌적인 직업에 종사하는 인구의 집중도가 아주 높았으나 1995년의 경우는 1975년에 비해 직업의 다양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이와같은 일련의 사실은 최근에 이르면서 면부단위의 농촌사회에서 탈농업적 직업에 취업하는 인구가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그 결과 취업구조가 크게 분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농촌주민의 취업구조는 이처럼 취업중인 산업이나 직업분포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각급 산업 또는 직업에 종사하는 면부인구의 고용상태도 최근 크게 변화하고 있다. <표 4.14>을 통해 1975년과 1995년 면부인구의 고용상태를 보면, 1975년의 남자인구의 경우 고용자가 없는 영세자영업종사자가 가장 많고(52.2%), 그뒤를 이어 무급가족노동종사자(24.1%), 피고용자(21.8%), 그리고 고용주(1.9%)의 순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여자의 경우는 인구의 대부분(74.2%)이 무급가족노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영세자영업종사자와 피고용자도 각각 14.7%와 10.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여자의 경우 고용주는 0.5%에 불과했다. 그러나 1995년 센서스의 경우를 보면 남녀 모두 1975년에 비해 무급가족노동에 종사하는 인구의 비율이 크게 주는 대신 피고용자, 종업원이 없는 영세자영업종사

<표 4.13> 직업별 취업자 구성비율: 1975 및 1995

(단위:%)

| 직업             | 1975  |       | 직업            | 1995  |       |
|----------------|-------|-------|---------------|-------|-------|
|                | 남자    | 여자    |               | 남자    | 여자    |
| 전문기술 및 관련종사자   | 2.1   | 0.7   | 고위임직원·관리자     | 2.6   | 0.2   |
| 행정 및 관리직       | 0.2   | 0.0   | 전문가           | 2.6   | 1.8   |
| 사무 및 관련직       | 2.9   | 0.8   | 기술 및 준전문가     | 5.5   | 3.0   |
| 판매직종사자         | 3.1   | 3.2   | 사무직원          | 5.0   | 5.8   |
| 서비스직종사자        | 2.1   | 2.6   | 서비스종사자/판매원    | 9.2   | 16.1  |
| 농·축·임업·어업      | 80.0  | 87.3  | 농·축·임·어업      | 48.2  | 62.5  |
| 생산직·운수장비·단순노무자 | 8.4   | 5.4   |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 9.9   | 3.3   |
| 분류불능           | 1.2   | 0.0   | 장치·기계조작원      | 10.7  | 3.1   |
|                |       |       | 단순노무자         | 4.8   | 4.3   |
|                |       |       | 군인            | 1.7   | 0.0   |
| 계              | 100.0 | 100.0 | 계             | 100.0 | 100.0 |
| 질적변이지수(IQV)    | 0.348 | 0.214 | 질적변이지수(IQV)   | 0.761 | 0.590 |

자료: <표 4.12> 참조

<표 4.14> 성별 면부인구의 고용상태의 변화, 1975-95

(단위:%)

| 고용상태     | 남자          |          | 여자          |          |
|----------|-------------|----------|-------------|----------|
|          | 1975        | 1995     | 1975        | 1995     |
| 전산업      |             |          |             |          |
| 영세자영업    | 52.2        | 54.5     | 14.7        | 21.4     |
| 고용주      | 1.9         | 4.9      | 0.5         | 1.3      |
| 무급가족노동   | 24.1        | 6.2      | 74.2        | 55.1     |
| 피고용자     | 21.8        | 34.3     | 10.6        | 22.2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 (N)      | (3,357,253) | (33,128) | (2,848,828) | (25,715) |
| 농·어업·수렵업 |             |          |             |          |
| 영세자영업    | 59.8        | 84.8     | 13.3        | 23.5     |
| 고용주      | 1.3         | 1.1      | 0.3         | 0.1      |
| 무급가족노동   | 29.0        | 10.8     | 81.7        | 74.6     |
| 피고용자     | 9.9         | 3.3      | 4.7         | 1.8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 (N)      | (2,691,619) | (17,130) | (2,489,683) | (16,512) |

자료: <표 4.12> 참조

자 및 피고용자의 비율은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이와같은 고용상태의 변화는 종래 농촌사람들이 가장 많이 일하던 농·어업·수렵업에 취업하고 있는 사람들의 고용상태의 변화와는 아주 다른 변화의 유형을 보여준다.

<표 4.14>의 아랫부분을 보면, 전체산업별인구의 경우와는 달리 농림·어업 및 수렵업에 종사하는 면부인구는 1975-1995년 기간중 남녀 모두 영세자영업에 종사하는 인구의 비율만이 늘어났을 뿐, 고용주와 무급가족노동종사자, 그리고 피고용자의 비율은 크게 감소하고 있다. 즉 남에게 고용되어 농사일을 해 주던 피고용자의 비율을 보면 남자의 경우 1975년에 9.9%이던 것이 1995년에는 3.3%로, 그리고 같은 기간중 여자는 4.7%에서 1.8%로 그 비율이 크게 줄었다. 마찬가지로 무급가족노동자의 경우, 남자는 29.0%에서 10.8%로, 그리고 여자의 경우 81.7%에서 74.6%로 감소했다. 이에 반해 영세자영농의 비율은 남자의 경우 1975년의 59.8%이던 것이 84.8%로 크게 증가했으며, 여자의 경우 역시 남자의 경우와 비슷한 수준으로 늘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우리나라에서 전형적인 농촌인구로 간주되는 면부인구의 경우 탈농업적 취업구조로 변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고용구조도 크게 달라졌음을 말해준다. 동시에 일련의 이러한 변화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현재도 계속하여 농어업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종래와는 다른 고용구조 속에서 일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현재 농촌에 살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종전과는 달리 자기 노동력을 통해서 농사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농사를 짓고 있으며, 남에게 고용되어 농사일을 하거나 남을 고용하여 농사를 짓는 사람이 최근 크게 줄고 있다. 또한 무급가족노동종사자의 급격한 감소는 종래 농촌에서 집안의 농사일을 거들어 주던 가족영농패턴도 급격히 사라지고 있으며, 무급가족노동을 조력하던 인구의 많은 부분이 농어업이외의 다른 직종으로 전업했거나 또는 일을 찾아서 도시로 이주했을 가능성을 암시해준다.

## 5. 농촌 지역단위별 인구 주요특성의 분포

한국의 이동인구의 이동 사유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은 직장과 관련되어 있고 도시와 농촌간에는 경제, 교육, 문화 등 측면에서의 기회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간 농촌인구의 도시로의 이동이 많았고, 농촌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여 왔음은 많은 연구에서 이미 지적된 바와 같다.

지난 30여년간의 급격한 농촌인구 감소의 결과는 인구구조의 불균형, 농촌가족과 촌락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Kim N.I., et al., 1994). 이 단원에서는 제 2장의 총괄분석과 관련하여 이들의 분포측면에서 문제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과 관련하여 장래 농촌사회 변화의 방향과 변화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밝히고자 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농촌사회 전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여 왔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통계분석에서 평균 등의 대표값에만 의존하고 분포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지역간의 격차 문제는 무시함으로써 분포와 관련된 중요문제를 간과하는 것과 같다. 이는 농촌전체의 인구문제와 각 지역단위의 인구문제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을 연구단위로 한 분석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을 뜻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접근방법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지역단위를 군으로 하여, 이들 각 군의 인구규모, 성 및 연령분포, 교육정도 등 인구구조적 특성들과 군의 위치, 농지규모, 교통등 지역의 물리적 여건, 행정서비스, 의료 및 환경여건, 경제활동 등의 분포문제를 고찰하고, 이들과 군 인구성장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지역단위로는 최소행정 단위인 읍·면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자료 이용성 문제 때문에 군을 연구단위로 하였다.

### 5.1 인구규모별 군의 분포

전국의 군의 수는 1985년 139개, 1990년 137개, 1995년 98개가 있었다. 군의 평균 인구의 규모는 1985년 99천명, 1990년 81천명, 1995년 67천명으로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최소와 최대 인구규모는 1985년 17천명과 235천명, 1990년 15천명과 245천명, 1995년의 경우 11천명에서 242천명까지 군별로 심한 차이를 보인다.

<표 5.1>에서 인구규모에 따른 군의 분포를 보면 1995년 인구 3만 미만인 군의

수가 9개 군으로 전체 군수 97개군의 거의 10%나 차지한다<sup>4)</sup>. 인구규모가 9만 이상인 군의 비율은 1985년에는 48%(=67/139)이었던 것이 1990년 32%(=44/137), 1995년 19%(=18/97)로 감소하였다. <표 5.2>에서 이들 각 군 인구감소율의 분포를 볼 때도 기간이 지남에 따라 분포의 중심이 “-”방향으로 이동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지난 15년간 (1980-95) 각 군의 인구감소의 경향이 빠른 속도로 심화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군부인구 전체의 연평균 인구 감소율은 기간별로 1980-85년 -2.6%, 1985-90년 -4.5%, 1990-95년 -2.9%이었다. 이에 비해 각 군 연평균 인구감소율의 평균을 기간별로 보면 1980-85년 -1.9%, 1985-90년 -2.7%, 1990-95년 -3.2%이었다. 이는 대부분의 군에서 군부인구 전체의 감소율보다 더 높은 감소율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을 보이고 있다(표 5.2 참조).

또한 이는 군부전체의 인구감소율이 각 군 인구감소 문제의 심각성을 잘 대변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이 농촌 인구문제 연구에서 군부전체의 통계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합함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1980-85년과 1985-90년의 경우 군부전체의 인구증가율이 각 군 인구증가율 평균보다 큰 것은 각 군 인구 증가율 계산에는 같은 기간 읍·면의 시승격 등 행정구역 변경에 대한 인구수를 수정하였으나 군부전체의 인구증가율 계산에는 자료수정을 안하였기 때문이다<sup>5)</sup>.

기간별로 각 군 연평균 인구증가율의 분포는 다소 하향이동하는 것으로 보이며, 각 군 연평균 증가율의 변이계수는 1980-85년 -119.9%, 1985-90년 -95.9%, 1990-95년 -89.3%로서 점차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전체적으로 볼 때 각 군 인구감소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군별로 보면, 1990-95년 기간 전남 신안군이 -9.4%로 가장 심한 연평균 인구 감소율을 보였고, 연평균 -6.0%미만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군은 강원도 정선군, 전남의 보성, 강진, 해남군, 전북의 진안군 등이었다. 연평균 인구증가율 -9.0%, -6.0%등은 인구가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감소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각각 8년, 12년이 될 것임을 뜻하므로 이들 농촌 인구가 얼마나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 밖의 대부분의 군에서 절대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남 양산군, 경북 달성군, 경기 용인군, 부산 기장군 등을 비롯한 12개 군에서는 절대인구가 증가하였다. 대체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군은 강원, 충남북, 전남북에

4) 1995년 인구가 3만미만인 군은 강원도의 화천, 양구, 광양군, 전북의 무주, 장수군, 경북의 군위, 영양, 울릉군, 인천의 옹진군 등이다.

5) 1980-85년 기간과 1985-90년 기간 5개 시와 29개 시가 각각 새로이 시로 승격되었다.

<표 5.1> 인구규모에 따른 군의 수, 1966-95

(단위: %)

|        | 1966      | 1970      | 1975      | 1980      | 1985      | 1990      | 1995      |
|--------|-----------|-----------|-----------|-----------|-----------|-----------|-----------|
| 3만미만   | 2 (1.4)   | 2 (1.4)   | 1 (0.7)   | 1 (0.7)   | 1 (0.7)   | 4 (2.9)   | 9 (9.3)   |
| 3-6만   | 5 (3.6)   | 7 (5.0)   | 6 (4.3)   | 13 (9.4)  | 21 (15.1) | 35 (25.5) | 36 (37.1) |
| 6-9만   | 16 (11.5) | 16 (11.4) | 19 (13.8) | 30 (21.6) | 50 (36.0) | 53 (38.7) | 34 (35.1) |
| 9-12만  | 32 (23.0) | 41 (29.3) | 43 (31.2) | 43 (30.9) | 26 (18.7) | 30 (21.9) | 11 (11.3) |
| 12-15만 | 31 (22.3) | 32 (22.9) | 27 (19.6) | 20 (14.4) | 22 (15.8) | 8 (5.8)   | 2 (2.1)   |
| 15만 이상 | 53 (38.1) | 42 (30.0) | 42 (30.4) | 32 (23.0) | 19 (13.7) | 7 (5.1)   | 5 (5.2)   |
| 계      | 139 (100) | 140 (100) | 138 (100) | 139 (100) | 139 (100) | 137 (100) | 97 (100)  |
| 최대인구   | 317,742   | 272,879   | 294,312   | 288,861   | 235,645   | 244,921   | 242, 048  |
| 최소인구   | 17,617    | 14,859    | 29,479    | 18,960    | 17,280    | 15,283    | 11,306    |
| 평균     | 139,737   | 129,879   | 129,794   | 113,825   | 99,182    | 81,028    | 66,504    |

주: 외국인 제외, ( )내는 구성비임.

자료: 경제기획원 1966, 1970, 1975, 1980, 1985년 인구및주택 센서스보고서  
통계청, 1990, 1995년 인구및주택 총조사보고서

<표 5.2> 연평균 인구 증가율에 따른 군의 수, 1985-95

| 연 평균<br>인구 증가율(%) | 1980-85   | 1985-90   | 1990-95   |
|-------------------|-----------|-----------|-----------|
| -9.0 미만           | -         | -         | 3 (3.1)   |
| -9.0 - -6.0       | 1 (0.7)   | 7 (5.1)   | 4 (4.1)   |
| -6.0 - -3.0       | 39 (28.1) | 60 (43.8) | 54 (55.7) |
| -3.0 - 0.0        | 82 (59.0) | 53 (38.7) | 24 (24.7) |
| 0.0 - 3.0         | 13 (9.4)  | 11 (8.0)  | 9 (9.3)   |
| 3.0이상             | 4 (2.9)   | 6 (4.4)   | 3 (3.1)   |
| 계                 | 139 (100) | 137 (100) | 97 (100)  |
| 평균                | -1.9      | -2.7      | -3.2      |
| 변이계수              | -119.9    | -95.9     | -89.3     |
| 최대증가율             | 9.6       | 6.0       | 9.6       |
| 제3사분위수            | -1.0      | -1.4      | -2.2      |
| 제1사분위수            | -3.2      | -4.6      | -4.9      |
| 최대감소율             | -8.3      | -7.2      | -9.4      |
| 군부 인구 증가율         | -2.6      | -4.5      | -2.9      |
| 총인구 증가율           | 1.6       | 1.4       | 0.5       |

자료: <표 5.1> 참조

소재하고, 인구가 증가하는 군들은 대부분 경기와 경남북에 속해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군부전체의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는 1985년 4.1인, 1990년 3.6인, 1995년 3.1인으로 군부 인구감소와 함께 계속 크게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인구감소에 따른 현상이라 할 수는 없다. 이동인구의 평균 가구원수가 전체인구의 평균 가구원수보다 작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가구원수가 많은 가구의 선택적 도시이동의 결과가 아니며, 일부 가구원의 분가 내지는 도시로의 인구이동에 의한 가구분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표 5.3> 에서 각 군의 평균 가구원수의 평균은 군부전체의 평균 가구원수와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군별분포는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1985년에는 군의 평균 가구원수 4인 이상 5인미만의 경우가 89.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1990년과 1995년에 3인 이상 4인미만의 군들이 각각 73.0%와 71.1%를 차지하였고, 특히 1995년에는 나머지 군들(28.9%)이 모두 2인 이상 3인미만의 군 평균 가구원수를 가진 것으로 나타나 농촌의 가구규모 분포가 크게 변하고 있음을 실감케 한다. 1995년 이전에는 군평균 가구원수가 3인 이하인 군은 볼 수 없었다.

1인 가구원 가구의 비율이 기간별로 크게 증가하고 있음은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다. 각군의 1인가구 비율의 평균은 1985년 7.4%, 1990년 10.7%, 1995년 16.6%로서 분포 중심의 상향이동과 함께 분포모양이 약간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1995년의 경우 최소가 충남 당진군의 7.0%이고, 최고는 인천 용진군의 24.8%로서 범위가 17.7%포인트나 된다. 이외 가구의 비율이 특별히 낮은 지역은 경기의 양평, 이천, 용인, 김포군 등이며 특별히 높은 지역은 전남 진도군, 경북 영덕군, 경남의 의령, 함양군 등이다.

<표 5.3> 평균 가구원수별 군의 분포, 1985-95

| 평균 가구원수   | 1985       | 1990       | 1995      |
|-----------|------------|------------|-----------|
| 2-3       | -          | -          | 28(28.9)  |
| 3-4       | 14 (10.1)  | 100 (73.0) | 69 (71.1) |
| 4-5       | 124 (89.2) | 36 (26.3)  | -         |
| 5+        | 1 (0.7)    | 1 (0.7)    | -         |
| 계         | 139 (100)  | 137(100)   | 97 (100)  |
| 최대        | 5.6        | 5.1        | 3.8       |
| 최소        | 6.4        | 3.1        | 2.6       |
| 평균        | 4.3        | 3.8        | 3.2       |
| 군부 평균가구원수 | 4.1        | 3.6        | 3.1       |
| 전국 평균가구원수 | 4.0        | 3.7        | 3.3       |

자료: <표 5.1> 참조

<표 5.4> 각 군 1인 가구비율의 분포, 1985-95.

| 1인가구 비율 | 1985      | 1990      | 1995      |
|---------|-----------|-----------|-----------|
| 7 미만    | 60 (43.2) | 11 (8.0)  | 0 (0.0)   |
| 7 - 10  | 65 (46.8) | 51 (37.2) | 1 (1.0)   |
| 10 - 13 | 13 (9.4)  | 40 (29.2) | 20 (20.6) |
| 13 - 16 | 1 (0.7)   | 32 (23.4) | 21 (21.6) |
| 16 - 19 | 0 (0.0)   | 3 (2.2)   | 24 (24.7) |
| 19 - 22 | 0 (0.0)   | 0 (0.0)   | 26 (26.8) |
| 22 이상   | 0 (0.0)   | 0 (0.0)   | 5 (5.2)   |
| 평균      | 7.4       | 10.7      | 16.6      |
| 변이계수, % | 25.3      | 26.5      | 22.6      |
| 최대구성비   | 14.7      | 16.8      | 24.8      |
| 3사분위수   | 8.6       | 13.0      | 19.5      |
| 1사분위수   | 6.0       | 8.6       | 13.7      |
| 최소구성비   | 3.2       | 3.9       | 7.0       |
| 군부인구    | 7.2       | 10.3      | 15.6      |
| 총 인 구   | 6.9       | 9.0       | 12.7      |

자료: <표 5.1> 참조

## 5.2 인구의 성 및 연령에 따른 군의 분포

각 군 인구의 성비평균은 1985년 102.1, 1990년 101.1, 1995년 99.3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같은 기간 총인구의 성비, 100.2, 100.7, 100.7에 비해 1990년 이전에는 높았으나 1995년에는 총인구보다 약간 낮은 성비를 보인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이동인구의 영향이 아니고 인구의 연령별 구성에서 성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노인인구의 구성비가 농촌에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5.5>에서 각 군 인구의 성비의 분포를 보면, 먼저 평균은 군부전체인구의 성비와 같다. 다만 1995년의 경우 약간 낮은 98.3이었다. 각 군 성비의 분포가 왼쪽으로 더 긴 꼬리를 갖는 모양으로 차츰 변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1995년의 분포에서는 90미만의 성비를 가진 군도 2개군(경남의 남해, 함안군)이었고, 105이상으로 성비가 높은 군은 경기도의 양주, 화성군, 강원도의 평창, 정선군 등 10개군이 있었다. 전체분포상의 변화는 성비가 낮은 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분포의 모양이 점차 확산되어 가는 것으로 보인다. 각 기간별 변이계수는 1985년 3.3%, 1990년 4.1%, 1995년 5.0%로 점차 증가하였다.

군부전체 인구의 0-14세 인구구성비는 1985년 30.4%, 1990년 23.6%, 1995년 20.2%로서, 총인구와 비교할 때 1985년은 군부인구가 더 높았으나, 1990년부터는 군부인구에서 더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동인구의 0-14세 구성비가 일반인구보다 낮으므로, 이 연령층의 인구이동에 의한 것이 아니고, 군부의 조출산율이 시부보다 낮고, 또한 25-34세의 주요 출산연령층 여자인구 구성비가 군부에서 더 낮은 것과 관련이 있다(표 5.9 참조).

<표 5.6>에서 각 군 인구의 0-14세 연령계층의 구성비는 평균은 군부전체 인구의 0-14세 구성비와 별차이를 보이지 않고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러나 0-14세 인구 구성비에 따른 군의 분포가 기간에 따라 급격히 하향변화하고 있으며, 변이계수를 볼 때 군간의 격차가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5.7>에서 각 군 평균 노동력 인구(15-64세 인구) 구성비를 보면 연도별로 1985년 62.4%, 1990년 67.0%, 1995년 67.5%로 다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군별 구성비의 분포는 그 분포의 중심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츰 상향이동하고, 전체적인 분포의 모양은 차츰 집중되어 가는 경향을 보인다.

<표 5.8>에서 65세이상 인구의 구성비를 보면 각 군 평균이 1985년 7.1%, 1990년 9.5%, 1995년 12.8%로서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며, 총인구의 65세이상 구성

비와 비교할 때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총인구의 경우 1985년 4.3%에서 1995년 5.9%로 10년동안 1.6%포인트가 증가할 뿐이었으나 군평균의 경우 5.7%포인트가 증가하였다. 이와같은 군부인구의 노령화는 군부인구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로 나타났다. 또한 그 분포가 급격히 확산되어 가고 있어 각 군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1995년 65세 이상 구성비는 최소 경남 양산군의 4.7%에서 최대 전북 진안군의 18.6%까지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표 5.9>에서는 각 지역 조출산율의 차이와 분포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그 지역의 성별 연령구조에서 주요 출산연령층이라 할 수 있는 여자 25-34세 연령계층의 구성비의 분포를 검토하였다. 주요 출산연령층의 구성비는 전체군부보다 각군 평균이 다소 낮아 각 군의 분포자료가 농촌의 현실을 더 잘 반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995년에는 군평균 구성비가 12.5%로 1990년에 비해 1.1%포인트 감소하고 있으나, 전체 기간별로는 별 변화추세를 볼 수 없다. 그러나 전국의 구성비와는 1995년 군평균 12.5%에 비해 전국 18.7%로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군간의 격차는 차츰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1995년 최대 구성비는 경남 양산군의 24.8%, 최소 구성비는 충남 당진군의 6.3%였다.

<표 5.5> 각 군의 성비의 분포, 1985-95

| 성 비     | 1985      | 1990      | 1995      |
|---------|-----------|-----------|-----------|
| 90미만    | -         | -         | 2 (2.1)   |
| 90-95   | 2 (1.4)   | 7 (5.1)   | 29 (29.9) |
| 95-100  | 35 (25.2) | 50 (36.5) | 29 (29.9) |
| 100-105 | 77 (55.4) | 62 (45.3) | 27 (27.8) |
| 105이상   | 25 (18.0) | 18 (13.1) | 10 (10.3) |
| 계       | 139 (100) | 137 (100) | 97 (100)  |
| 평균      | 102.1     | 101.1     | 98.3      |
| 변이계수, % | 3.3       | 4.1       | 5.0       |
| 최대      | 118.2     | 127.3     | 110.2     |
| 제3사분위수  | 104.0     | 103.1     | 101.4     |
| 제1사분위수  | 99.9      | 98.5      | 94.2      |
| 최소      | 90.6      | 94.0      | 88.9      |
| 군부인구 성비 | 102.2     | 101.1     | 99.2      |
| 총인구 성비  | 100.2     | 100.7     | 100.7     |

주: 성비 = (남자인구수/여자인구수)\*100  
( )내는 구성비임

<표 5.6> 각 군의 0-14세 인구 구성비의 분포, 1985-95

| 0-14세 인구<br>구성비(%) | 1985       | 1990      | 1995      |
|--------------------|------------|-----------|-----------|
| 15미만               | -          | -         | 2 (2.1)   |
| 15-18              | -          | 1 (0.7)   | 20 (20.6) |
| 18-21              | -          | 11 (8.0)  | 51 (52.6) |
| 21-24              | -          | 71 (51.8) | 19 (19.6) |
| 24-27              | 4 (2.9)    | 48 (35.0) | 4 (4.1)   |
| 27 이상              | 135 (97.1) | 6 (4.4)   | 1 (1.0)   |
| 계                  | 139 (100)  | 137 (100) | 97 (100)  |
| 평균                 | 30.5       | 23.6      | 19.7      |
| 변이계수, %            | 7.7        | 8.7       | 12.1      |
| 최대 구성비             | 37.7       | 31.4      | 27.1      |
| 제3사분위수             | 32.1       | 25.0      | 20.9      |
| 제1사분위수             | 28.8       | 22.1      | 18.1      |
| 최소 구성비             | 26.0       | 17.6      | 14.1      |
| 군부인구               | 30.4       | 23.6      | 20.2      |
| 총 인 구              | 29.9       | 25.7      | 23.0      |

자료: <표 5.1> 참조

<표 5.7> 각 군의 15-64세 인구 구성비의 분포, 1985-95

| 15-64세 인구<br>구성비(%) | 1985      | 1990      | 1995      |
|---------------------|-----------|-----------|-----------|
| 60미만                | 26 (18.7) | -         | -         |
| 60-62               | 37 (26.6) | 1 (0.7)   | -         |
| 62-64               | 38 (27.3) | 8 (5.8)   | 3 (3.1)   |
| 64-66               | 29 (20.9) | 35 (25.5) | 16 (16.5) |
| 66-68               | 8 (5.8)   | 50 (36.5) | 40 (41.2) |
| 68-70               | 1 (0.7)   | 33 (24.1) | 30 (30.9) |
| 70이상                | -         | 10 (7.3)  | 8 (8.2)   |
| 계                   | 139 (100) | 137 (100) | 97 (100)  |
| 평균                  | 62.4      | 67.0      | 67.5      |
| 변이계수, %             | 3.8       | 3.0       | 2.5       |
| 최대 구성비              | 68.5      | 72.2      | 70.9      |
| 제3사분위수              | 64.2      | 68.3      | 68.8      |
| 제1사분위수              | 60.6      | 65.6      | 66.6      |
| 최소 구성비              | 57.2      | 61.9      | 63.3      |
| 군부인구                | 62.7      | 67.3      | 68.1      |
| 총 인 구               | 65.8      | 69.4      | 70.9      |

자료: <표 5.1> 참조

<표 5.8> 각 군의 65세 이상 인구구성비의 분포, 1985-95

| 65세이상 인구<br>구성비(%) | 1985      | 1990      | 1995      |
|--------------------|-----------|-----------|-----------|
| 5미만                | 10 (7.2)  | 2 (1.5)   | 1 (1.0)   |
| 5-8                | 90 (64.7) | 29 (21.2) | 6 (6.2)   |
| 8-11               | 39 (28.1) | 74 (54.0) | 22 (22.7) |
| 11-14              | -         | 31 (22.6) | 30 (30.9) |
| 14-17              | -         | 1 (0.7)   | 31 (32.0) |
| 17이상               | -         | -         | 7 (7.2)   |
| 계                  | 139 (100) | 137 (100) | 97 (100)  |
| 평균                 | 7.1       | 9.5       | 12.8      |
| 변이계수, %            | 20.7      | 21.7      | 25.9      |
| 최대 구성비             | 10.7      | 14.3      | 18.6      |
| 제3사분위수             | 8.1       | 10.9      | 15.7      |
| 제1사분위수             | 6.1       | 8.1       | 10.8      |
| 최소 구성비             | 3.5       | 4.9       | 4.7       |
| 군부인구               | 6.8       | 9.0       | 11.8      |
| 총 인구               | 4.3       | 5.0       | 5.9       |

자료: <표 5.1> 참조

각 군의 조출산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연령별 유배우비율이다. 제 4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농촌여자의 경우 전기간에 걸쳐 모든 연령에서 유배우율이 도시여자보다 높으나, 남자의 경우는 기간별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1975년까지는 농촌남자의 유배우율이 도시보다 대체로 높거나 비슷한 수준이지만 1985년이후에는 역전되어 도시남자의 유배우율이 농촌보다 높다. 이것은 결혼적령기에 있는 인구의 남자여자간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유경, 1990: 348). 특히 농촌의 20-24세 인구에서 남자와 여자수의 불균형이 매우 심하고, 25세 이후 연령계층에서는 결혼을 위해 귀환 혹은 이동하는 여자로 인해 성비가 차츰 감소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5.9> 각 군 여자 총인구에 대한 주요 출산연령층(25-34세) 인구의 구성비, 1985-95

| 25-34세<br>인구구성비 | 1985      | 1990      | 1995      |
|-----------------|-----------|-----------|-----------|
| 9.5 미만          | 5 (3.6)   | 6 (4.4)   | 24 (24.7) |
| 9.5 - 12.0      | 55 (39.6) | 50 (36.5) | 29 (29.9) |
| 12.0 - 14.5     | 44 (31.7) | 40 (29.2) | 20 (20.6) |
| 14.5 - 17.0     | 20 (14.4) | 17 (12.4) | 9 (9.3)   |
| 17.0 - 19.5     | 10 (7.2)  | 12 (8.8)  | 8 (8.2)   |
| 19.5 - 22.0     | 3 (2.2)   | 10 (7.3)  | 5 (5.2)   |
| 22.0 이상         | 2 (1.4)   | 2 (1.5)   | 2 (2.1)   |
| 평균              | 13.0      | 13.6      | 12.5      |
| 변이계수            | 21.8      | 24.8      | 30.0      |
| 최대구성비           | 23.3      | 25.3      | 24.8      |
| 3사분위수           | 14.5      | 15.5      | 14.4      |
| 1사분위수           | 11.1      | 11.2      | 9.6       |
| 최소구성비           | 9.1       | 8.6       | 6.3       |
| 군부인구            | 13.5      | 14.0      | 13.6      |
| 총인구             | 17.7      | 19.6      | 18.7      |

자료: <표 5.1> 참조

<표 5.10> 각 군 20-24세 연령계층 인구의 성비, 1985-90

|           | 1985      | 1990      | 1995      |
|-----------|-----------|-----------|-----------|
| 100 미만    | 2 (1.4)   | 3 (2.2)   | 3 (3.1)   |
| 100 - 125 | 11 (7.9)  | 10 (7.3)  | 7 (7.2)   |
| 125 - 150 | 18 (12.9) | 18 (13.1) | 13 (13.4) |
| 150 - 175 | 33 (23.7) | 29 (21.2) | 25 (25.8) |
| 175 - 200 | 31 (22.3) | 28 (20.4) | 15 (15.5) |
| 200 - 225 | 31 (22.3) | 15 (10.9) | 17 (17.5) |
| 225 - 250 | 11 (7.9)  | 13 (9.5)  | 12 (12.4) |
| 250 이상    | 2 (1.4)   | 21 (15.3) | 5 (5.2)   |
| 평균        | 178.0     | 190.6     | 179.2     |
| 변이계수      | 21.0      | 28.9      | 23.7      |
| 최대 성비     | 250.7     | 388.7     | 295.7     |
| 3사분위수     | 207.6     | 223.3     | 210.9     |
| 1사분위수     | 151.5     | 151.6     | 153.5     |
| 최소 성비     | 92.2      | 74.5      | 87.9      |
| 군부인구 성비   | 160.3     | 163.2     | 152.5     |
| 총인구 성비    | 106.1     | 109.1     | 108.3     |

자료: <표 5.1> 참조

<표 5.11> 각 군 혼인적령기 인구(20-34세)의 성비, 1985-95.

| 20-34세 성비 | 1985      | 1990      | 1995      |
|-----------|-----------|-----------|-----------|
| 100 미만    | 0 (0.0)   | 1 (0.7)   | 2 (2.1)   |
| 100 - 115 | 17 (12.2) | 11 (8.0)  | 9 (9.3)   |
| 115 - 130 | 54 (38.8) | 47 (34.3) | 37 (38.1) |
| 130 - 145 | 54 (38.8) | 48 (35.0) | 36 (37.1) |
| 145 - 160 | 14 (10.1) | 26 (19.0) | 11 (11.3) |
| 160 이상    | 0 (0.0)   | 4 (2.9)   | 2 (2.1)   |
| 평균        | 129.3     | 133.3     | 130.4     |
| 변이계수      | 8.8       | 11.1      | 10.5      |
| 최대 성비     | 156.1     | 209.6     | 177.3     |
| 3사분위수     | 137.6     | 143.1     | 140.5     |
| 1사분위수     | 120.5     | 122.9     | 122.5     |
| 최소 성비     | 100.8     | 98.6      | 93.3      |
| 군부인구      | 125.0     | 128.5     | 124.6     |
| 총 인 구     | 103.1     | 104.1     | 104.1     |

자료: <표 5.1> 참조

각 군별로 이들 연령층 성비의 분포를 보면 지역별로 극심한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이 경우에도 각 군 평균과 군부전체의 성비간에 큰 차이를 보여 지역단위 분포자료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준다(표 5.10 및 표 5.11 참조).

<표 5.11>에서 보면, 큰 농촌사회문제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혼인적령기 인구의 성비는 1995년 다소 완화되고는 있으나 성비 130이상인 군이 50.5%나 되고 군에 따라서는 성비 177로 남녀의 불균형이 극심한 지역도 있다.

<표 5.12>는 각 군 교육수준의 변화와 분포를 보기 위하여 각 군의 30-34세 인구중 고등학교 중퇴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의 구성비를 정리한 것이다. 기간별로 군 평균 구성비는 1985년 7.9%, 1990년 13.2%, 1995년 22.4%로서 고등교육을 받은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고등교육을 받은 인구가 시부에서 군부로 이동할 통해 유입됨으로서 가속되었을 것이다. 대체적인 분포의 모양은 기간별로 평균이 점차 상향이동함과 동시에 평균에 집중되어 가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교육수준은 군간에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특성 중의 하나로 1995년 최대구성비는 경기 화성군의 56.6%, 최소구성비는 충남 태안군의 11.4%이

었다.

<표 5.13>은 15세이상 인구 1000명당 광공업 분야의 취업자수의 분포를 본 것으로, 기간별로 광공업 취업자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알 수 있다. 분포의 모양은 점차 집중하는 경향이지만 아직도 군간의 차이는 매우 커서 1995년 변이계수가 116%이고 최소 5.9명(경북 울릉군)과 최대 511.6명(경기 화성군)간의 범위가 무려 505.7명이나 된다.

<표 5.14>는 인구·사회·경제적 특성들이 군의 인구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하여, 인구증가율에 따라 모든 군을 6개 집단으로 나누고, 이들 6개 집단중 인구증가율이 가장 낮은 집단과 가장 높은 집단(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집단)의 인구, 사회, 경제적 특성의 평균들을 비교한 것이다. 먼저 인구증가율이 가장 낮은 집단( $r < -5.5\%$ )과 가장 높은 집단을 비교했을 때 평균 인구의 규모는 58천명대 110천명, 전체인구의 성비는 98대 102로 모두 인구증가군에서 더 높았다. 또한 순인구이동율은 -37.3 대 37.3으로 인구증가군에서는 전입인구가 전출인구보다 많아 인구증가에 상당히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인구의 연령별 구조에서 0-14세와 15-64세 계층의 구성비는 인구가 증가하는 군에서 더 높고 65세 이상 인구의 구성비는 8.1% 대 13.7%로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의 물리적인 특성은 가까운 시까지의 평균거리가 40km 대 22km로서 인구가 증가하는 군에서 시에 가까웠고, 또한 고속도로에 접해 있는 지역이 많고 (75%), 도로포장율은 61% 대 73%로서 인구가 증가하는 군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2> 각 군 교육수준의 분포, 1985-95.

| 교육수준    | 1985       | 1990      | 1995      |
|---------|------------|-----------|-----------|
| 5 미만    | 9 (6.5)    | 0 (0.00)  | 0 (0.0)   |
| 5 - 10  | 105 (75.5) | 28 (20.4) | 0 (0.0)   |
| 10 - 15 | 24 (17.3)  | 69 (50.4) | 5 (5.2)   |
| 15 - 20 | 1 (0.7)    | 34 (24.8) | 27 (27.8) |
| 20 - 25 | 0 (0.0)    | 5 (3.6)   | 38 (39.2) |
| 25 - 30 | 0 (0.0)    | 1 (0.7)   | 22 (22.7) |
| 20 - 35 | 0 (0.0)    | 0 (0.0)   | 3 (3.1)   |
| 35 이상   | 0 (0.0)    | 0 (0.0)   | 2 (2.1)   |
| 평균      | 7.9        | 13.2      | 22.4      |
| 변이계수    | 29.5       | 28.5      | 25.6      |
| 최대구성비   | 17.2       | 26.3      | 56.6      |
| 3사분위수   | 8.8        | 15.6      | 25.8      |
| 1사분위수   | 6.4        | 10.7      | 18.9      |
| 최소구성비   | 3.2        | 6.0       | 11.4      |
| 군부인구    | 13.0       | 15.1      | 19.2      |
| 총 인 구   | 15.8       | 18.7      | 19.3      |

주: 교육수준은 30-34세 인구 중 고등학교 중퇴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의 구성비  
 자료: <표 5.1> 참조

<표 5.13> 각 군 인구 1000명당 광공업 취업자수의 분포, 1985-95.

| 광공업 취업자수  | 1985      | 1990      | 1995      |
|-----------|-----------|-----------|-----------|
| 5 미만      | 9 (6.5)   | 2 (1.5)   | 2 (2.1)   |
| 5 - 10    | 21 (15.1) | 9 (6.6)   | 2 (2.1)   |
| 10 - 15   | 23 (16.5) | 6 (4.4)   | 3 (3.1)   |
| 15 - 20   | 17 (12.2) | 20 (14.6) | 7 (7.2)   |
| 20 - 25   | 8 (5.8)   | 9 (6.6)   | 10 (10.3) |
| 25 - 30   | 3 (2.2)   | 14 (10.2) | 5 (5.2)   |
| 30 - 100  | 42 (30.2) | 46 (33.6) | 43 (44.3) |
| 100 - 200 | 8 (5.8)   | 19 (13.9) | 13 (13.4) |
| 200 - 300 | 5 (3.6)   | 6 (4.4)   | 8 (8.2)   |
| 300 - 400 | 3 (2.2)   | 4 (2.9)   | 0 (0.0)   |
| 400 이상    | 0 (0.0)   | 2 (1.50)  | 4 (4.1)   |
| 평균        | 48.1      | 72.7      | 88.4      |
| 변이계수      | 141.0     | 123.0     | 116.0     |
| 최대구성비     | 341.3     | 450.4     | 511.6     |
| 3사분위수     | 53.0      | 88.4      | 102.9     |
| 1사분위수     | 10.8      | 19.0      | 25.3      |
| 최소구성비     | 1.0       | 1.2       | 5.92      |

자료: <표 5.1> 참조

<표 5.14> 인구증가율 최상위군과 최하위군 간의 인구, 사회, 경제적 특성 비교, 1995.

| 특성                       | 상위집단 (r > 0.0%) |        | 하위집단 (r < -5.5%) |        |
|--------------------------|-----------------|--------|------------------|--------|
|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 시까지의 거리(km)              | 22.1            | 11.5   | 40.0             | 19.4   |
| 철도 접속비율                  | 58.0            | 51.0   | 40.0             | 50.0   |
| 고속도로 접속비율                | 75.0            | 45.0   | 0.0              | 0.0    |
| 전답(1,000ha)              | 10711.8         | 5297.2 | 15726.7          | 7737.5 |
| 도로 포장율(%)                | 73.3            | 13.5   | 61.1             | 15.5   |
| 인구수(1,000인)              | 110.0           | 54.4   | 58.1             | 22.7   |
| 평균 가구원수                  | 3.5             | 0.2    | 3.0              | 0.1    |
| 0-14 인구 구성비(%)           | 23.2            | 2.0    | 19.4             | 1.5    |
| 15-64세 인구 구성비(%)         | 68.8            | 1.1    | 67.0             | 2.0    |
| 65+세 인구 구성비(%)           | 8.1             | 2.5    | 13.7             | 2.8    |
| 인구밀도(인/km <sup>2</sup> ) | 238.8           | 95.9   | 95.7             | 43.7   |
| 전입 인구율                   | 18.3            | 5.3    | 11.3             | 3.4    |
| 전출 인구율                   | 14.5            | 1.9    | 15.1             | 3.3    |
| 병원수                      | 48.8            | 29.3   | 19.7             | 9.9    |
| 의료인수(10,000명당)           | 20.2            | 8.4    | 18.4             | 13.5   |
| 의약품판매업소(10,000명당)        | 4.6             | 1.0    | 6.0              | 1.0    |
| 군내 정부기관수                 | 50.6            | 19.4   | 68.3             | 14.9   |
| 공무원수(10,000명당)           | 61.6            | 16.4   | 126.9            | 55.8   |
| 1인당 총예산(1,000원)          | 896.7           | 302.1  | 1360.5           | 336.3  |
| 중학교 학생수(1,000명당)         | 42.9            | 7.6    | 57.9             | 12.2   |
| 경운정지기(10,000명당)          | 609.8           | 332.5  | 965.8            | 389.7  |
| 병충해방제기(10,000명당)         | 379.3           | 243.9  | 843.1            | 277.4  |
| 동력이앙기(10,000명당)          | 177.8           | 95.7   | 259.0            | 111.0  |
| 추곡수매(kg, 10,000명)        | 766.9           | 648.3  | 2301.1           | 1374.3 |
| 광공업종업원수(15+인구1,000명당)    | 260.9           | 93.7   | 43.4             | 32.8   |
| 생활보호대상자(10,000명당)        | 381.0           | 209.0  | 1186.1           | 385.8  |

### 5.3 인구성장 수준과 지역특성의 연관성

앞 장에서 각 군의 인구성장율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았다. 또한 1980-95년 기간중에는 이러한 각 군 인구성장율의 차이가 계속 유지됨으로서 각 군간의 인구규모와 성 및 연령구조의 차이가 점차 심화되고 있음을 보았다.

이 장에서는 앞 장에 이어 어떤 특성들이 각 군 인구성장의 차이에 연관관계가 깊은가 하는 문제를 추구하고자 한다. 앞 장에서는 각 군의 인구성장과 관련이 있는 변수들을 각각 별도로 분석하였으나, 이 단원에서는 다변수분석의 방법에 의해

분석하였다. 또한 지역의 인구성장과 지역 특성간의 관계가 인과적인 관계로 명확히 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인과적인 다변수 분석기법보다는 인과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판별분석법을 이용하였다.

분석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각 군을 인구성장속도 (집단변수, Group variable)에 따라 몇 개의 집단으로 나누고 집단간의 차이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지역의 다른 특성들을 판별변수로 하여 이들의 선형결합인 정준판별함수(Canonical discriminant function)를 구한다. 이때의 선형결합 즉, 판별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이 함수값에 의해 각 군을 집단으로 분류할 때 잘못 분류되는 비율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각 함수들은 서로 직교토록 한다. 이렇게 얻어진 판별함수의 값은 그 개체의 소속집단을 분류 혹은 예측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분석은 집단간의 차이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인구성장 차이가 어떤 다른 특성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알 수 있게한다. 집단의 수를 몇 개로 또 어떻게 나눌것인가 하는 문제는 먼저 판별함수의 수가 “집단수-1”이 되고 그 수가 너무 많을 경우 해석이 복잡하다는 점과 집단내 군의 수를 고려하여 집단수를 3개로 정하였다. 또한 집단을 분류하는 방법은 자료 이용 가능한 전체의 관찰수가 94개군임으로 각 집단내 관찰수가 비슷하게 되도록 1990-95년 기간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을 이용하여 3개의 집단( $GR < -0.045$ ,  $-0.045 \leq GR < -0.026$ ,  $GR \geq -0.026$ )으로 분류하였다.

판별변수로는 거주지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변수로서 자료이용이 가능한 모든 변수를 고려대상에 포함하였다. 즉 지역의 인구특성외에 지역의 물리적 특성으로서 가까운 도시까지의 거리, 철도·고속도로·수로등의 이용가능성, 농지규모, 도로포장율; 의료 및 환경여건으로 병원수, 인구 10,000명당 의료인수 및 의약품 판매업소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수, 상수도 보급율; 행정서비스 관련변수로 군내 정부기관수, 인구 10,000명당 공무원수, 1인당 연간 예산액; 교육문화 관련 변수로 인구 10,000명당 중학생수와 고등학생수, 1인당 공공도서관 장서수; 경제관련 변수로 농가인구비율, 인구 10,000명당 농업용 기계(경운기, 병충방제기구, 동력 이앙기), 추곡수매 실적, 노동력 인구 1000명당 광공업종업원수, 인구 10,000명당 생활보호 대상자수 등으로 모두 1차 분석에 포함하였다.

1차분석에서는 SAS판별분석 프로그램에서 PROC STEPDISC의 증감선택법(Stepwise selection)방법에 의해 판별변수로서 유의한 변수들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변수들은 거주지 물리적 조건 중에서 고속도로와의 접속여부(고속도로가 군의

경제내를 통과하는가?)와 농지면적, 행정 및 의료서비스 중에서 정부기관수와 인구 10,000명당 공무원수, 인구 10,000명당 의약품 판매업소수, 교육문화 변수중 30-34세 인구중 고졸이상의 구성비, 경제관련 변수 중 농가인구 10,000명당 경운정지용 기계수, 노동력 인구 1,000명당 광공업 종업원수, 인구변수중 20-24세 및 25-29세 인구의 성비등 10개 변수였다.

2차분석은 이들 판별변수와 SAS의 CANDISC 처리절차를 이용하여 정준판별함수를 구하였다. <표 5.15>는 표준화된 정준판별함수 Can 1과 Can 2의 계수를 구한 것으로 잔여판별능력의 측정치라 할 수 있는 Wilk's  $\lambda$ 에 의하면 첫 번째 판별함수(Can 1)와 두 번째 판별함수(Can 2)는 모두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된 정준판별계수의 의미는 이 함수에서 계산된 판별값(Discriminant score)은 표준화변수(Z score)가 되고, 또한 각 함수값에 판별변수들이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 가를 알 수 있다. 다시말해 이 표준화된 계수를 이용하여 각 판별함수에서 판별변수들의 중요도를 직접 비교할 수 있다. 원판별계수 (Raw coefficients)는 분류 등을 목적으로 하는 판별값을 계산 할 수 있으나 판별변수간의 분포의 차이 때문에 계수들을 해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계산된 판별값에서는 어떤 특별한 의미를 찾을 수 없다. 제 1판별함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수는 20-24세의 성비, 인구 10,000명당 공무원수, 인구 10,000명당 경운정지용 기계수(-), 인구 10,000명당 의약품 판매업소수 등의 순위이고, 제 2판별함수에서는 30-34세 고졸이상 인구구성비, 25-29세 성비, 고속도로 접속여부, 경운정지용 기계수(+), 정부기관수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6>는 표준화된 판별변수들의 각 집단평균 값들이다. 이들 평균값을 각 판별함수에 대입하면 각 집단의 중심점(Centroid)을 두 개의 판별함수값에 의해 나타낼 수 있다. 결국 이 연구모형에서의 판별분석은 10개차원(10개 판별변수)을 이들의 선형결합에 의해 2개의 차원으로 축소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 판별값들은 표준화된 값이므로 이 값만 가지고도 각 집단 중심점의 위치는 짐작할 수 있고 집단 중심점간의 거리를 계산 할 수 있다.

예상했던 대로 첫째 정준판별함수 값(Can 1)의 경우 가장 가까운 두 집단(집단 1과 2)간의 거리가 1.4표준편차인데 비해 두 번째 정준판별함수의 경우 가장 가까운 두 집단(집단 1과 3)간의 거리가 0.11표준편차 밖에 안되어 집단간의 구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판별분석에서 정준판별함수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는 데는 특성근

(Eigenvalue)과 특성근의 상대비율을 이용하기도 한다. <표 5.17>은 이번 분석에서의 특성근과 그 상대비율을 제시하고 있다. 상대비율을 볼 때 Can 1이 83.2%, Can 2가 16.8%로서 Can 1이 이번 분석에서 훨씬 중요한 판별함수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특성근과 그 상대비율만으로는 부족하다. 즉 Can 1이 가장 중요한 판별함수라 할 지라도 집단과의 관계는 약할 수 있으므로 Can1이 얼마나 유용한가를 알기 위해서는 집단과 판별함수간의 정준상관계수를 볼 필요가 있다. 정준상관계수는 가변수에 의해 나타낸 집단을 독립변수로 하고 정준판별함수값을 종속변수로 하는 분산분석에서의 eta와 같으므로, 이 값을 자승한 것은 eta square와 같다. 따라서 정준상관계수를 자승한 값은 판별함수값의 변동중 집단에 의해 설명이 되는 변동의 비율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Can 1값의 총변동 중 63.3%가 집단에 의해 설명이 되고 Can 2의 경우 25.9%가 집단에 의해 설명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18>과 <표 5.19>는 판별분석의 결과중 정준구조계수(Total canonical structure)와 합동집단내 정준구조계수(Pooled within group canonical structure)를 제시한 것이다. 대체로 집단내 구조계수는 전체구조계수와 패턴은 비슷하나 다소 작은 절대값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에서 표준화된 정준판별계수가 함수값의 계산에서 각 판별변수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한가지 문제점은 판별변수간에 상관관계가 있고 각 판별함수는 다른 판별계수의 영향을 제외한 고유한 영향만을 나타냄으로 각 판별변수의 중요도를 완전히 나타내지는 못한다. 반면 정준구조계수는 한 판별변수와 판별함수값간의 단순상관계수임으로 다른 판별변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정준구조계수는 각 함수에서 판별변수들의 중요도를 보여주는 더 적합한 통계치라 할 수 있고, 또한 각 함수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표 5.18>에서 보면 Can 1의 경우 학력수준이 높거나 광공업 종사자의 수가 많거나 고속도로와 인접해 있는 군의 경우 함수값은 낮고(“-”계수를 가졌으므로), 즉 3집단에 가깝고 20-24세 성비가 높거나, 의약품 판매업소수, 공무원수 등이 많은 경우 함수값도 높은 경향이 있어 1집단에 가까움을 뜻한다.

종합하면 각 지역단위의 인구증가에 중요한 요인은 고속도로 접속여부, 학력수준, 광공업 산업시설, 공무원수와 같은 지역의 여건과 인구학적 요인으로 20-29세 연령계층의 성비 등이다.

<표 5.15> 표본전체 표준화된 정준판별계수 (Total-sample standardized canonical coefficient)

| 변 수                          | Can 1          | Can 2        |
|------------------------------|----------------|--------------|
| 20-24세 인구 성비                 | 1.12017        | 0.11824      |
| 25-29세 인구 성비                 | 0.00946        | 0.83499      |
| 30-34세 고졸이상 인구구성비            | -0.34825       | 1.00443      |
| 고속도로 (km)                    | -0.20492       | 0.62343      |
| 정부 기관수                       | 0.17556        | 0.55247      |
| 의약품 판매업소 (10,000명당)          | 0.41113        | -0.07046     |
| 전답 (ha)                      | 0.31628        | -0.42079     |
| 공무원수 (10,000명당)              | 0.53034        | 0.07915      |
| 경운정지용 기구 (10,000명당)          | -0.47880       | 0.60352      |
| 광공업 종업원수<br>(15+ 인구, 1000명당) | 0.09929        | -0.47048     |
| Wilk's $\lambda$             | 0.2712         | 0.7408       |
| Appox. F                     | 7.63 (20, 166) | 3.26 (9, 84) |
| Pr > F                       | 0.0001         | 0.0019       |

\* ( )안의 숫자는 분자와 분모의 자유도

<표 5.16> 표준화된 변수와 판별함수에 의한 표본전체 집단평균  
(Total-sample standardized class mean)

| 변 수                          | 집단 1     | 집단 2     | 집단 3     |
|------------------------------|----------|----------|----------|
| 20-24세 인구 성비                 | 0.74128  | 0.18405  | -0.91957 |
| 25-29세 인구 성비                 | 0.01843  | 0.28027  | -0.28994 |
| 30-34세 고졸이상 인구구성비            | -0.53959 | 0.04609  | 0.49494  |
| 고속도로 접속여부                    | -0.55970 | 0.19739  | 0.36848  |
| 정부 기관수                       | 0.21509  | 0.16381  | -0.37378 |
| 의약품 판매업소 (10,000명당)          | 0.43131  | 0.05593  | -0.48549 |
| 전답 (ha)                      | 0.10869  | 0.08250  | -0.18861 |
| 공무원수 (10,000명당)              | 0.37982  | 0.20666  | -0.58002 |
| 경운정지용 기구 (10,000명당)          | 0.08035  | 0.34570  | -0.41525 |
| 광공업 종업원수<br>(15+ 인구, 1000명당) | -0.43975 | -0.28035 | 0.71134  |
| Can 1                        | 1.50190  | 0.14640  | -1.64373 |
| Can 2                        | -0.45971 | 0.83387  | -0.34810 |

<표 5.17> 특성근(Eigenvalue)에 의한 중요도의 측정

| 정준판별함수 | 특성근    | 상대비율 % | 정준상관계수        |
|--------|--------|--------|---------------|
| Can 1  | 1.7316 | 83.2   | 0.796 (0.633) |
| Can 2  | 0.3500 | 16.8   | 0.509 (0.259) |

주: ( )내는 eta square의 추정치임.

<표 5.18> 전체 정준구조계수(Total canonical structure)

| 변수명                         | Can 1    | Can 2    |
|-----------------------------|----------|----------|
| 20-24세 인구 성비                | 0.87068  | 0.14624  |
| 25-29세 인구 성비                | 0.17868  | 0.36428  |
| 30-34세 고졸이상 인구구성비           | -0.53123 | 0.12910  |
| 고속도로 접속여부                   | -0.46583 | 0.32958  |
| 정부 기관수                      | 0.31552  | 0.18686  |
| 의약품 판매업소 (10,000명당)         | 0.47746  | 0.01817  |
| 전답 (ha)                     | 0.15928  | 0.09406  |
| 공무원수 (10,000명당)             | 0.51012  | 0.22191  |
| 경운정지용 기구 (10,000명당)         | 0.27992  | 0.44198  |
| 광공업 종업원수<br>(15+ 인구 1000명당) | -0.61401 | -0.31066 |

<표 5.19> 합동 집단내 정준구조계수

(Pooled within group canonical structure)

| 변수명                          | Can 1    | Can 2    |
|------------------------------|----------|----------|
| 20-24세 인구 성비                 | 0.73487  | 0.17557  |
| 25-29세 인구 성비                 | 0.11119  | 0.32246  |
| 30-34세 고졸이상 인구구성비            | -0.35565 | 0.12294  |
| 고속도로 접속여부                    | -0.30857 | 0.31056  |
| 정부 기관수                       | 0.19819  | 0.16696  |
| 의약품 판매업소 (10,000명당)          | 0.31236  | 0.01691  |
| 전답 (ha)                      | 0.09727  | 0.08171  |
| 공무원수 (10,000명당)              | 0.34037  | 0.21062  |
| 경운정지용 기구 (10,000명당)          | 0.17856  | 0.40105  |
| 광공업 종업원수<br>(15+ 인구, 1000명당) | -0.43304 | -0.31167 |

## 6. 농촌의 가구구성과 가족유형의 변화

전통적으로 한국의 가족은 가족성원이 몇대에 걸쳐 한 집에서 함께 모여 사는 것이 가족의 이상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과거 전통사회에서조차 이러한 이상을 실현하면서 산 가족은 불과 얼마되지 않는 극히 소수에 불과했을 뿐이다. 오히려 대부분의 한국인의 경우 이러한 가족이상을 구현하면서 산 사람은 거의 없었다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주로 직계가족형태로 구성되는 확대가족은 한국 사람들의 가족생활과 관련된 이상이였을 뿐, 다른 여러나라의 경우처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사망력효과와 빈곤한 생활을 특징으로 하는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이러한 가족생활을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Goode, 1964: 5; 이해영·권태환, 1968).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국에서 발표된 가구분석과 관련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과거에 비해 평균가구원 수가 크게 주는 추세에 있다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와같은 사실은 대체로 (1)사망력의 감소로 인한 가구내 세대의 중첩현상과, 뒤이어 일어난 (2)출산력의 감소, 그리고 (3)도시화와 결부된 가구의 분리현상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20년대부터 상주인구조사를 실시되었으며, 1925년부터는 근대적인 의미의 센서스가 실시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비교적 오래 전부터 가구단위에 관해 비교적 정확한 여러가지 자료를 수집하고 집계할 수 있었다. 이들 자료에 대한 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가구원 수는 1920년에 5.30명이던 것이 1930년에는 5.35명으로, 그리고 1940년에는 다시 5.42명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계속해서 증가하던 평균가구원 수는 1960년의 경우 일반가구원수와 친족가구원수가 각각 5.57명과 5.68명으로 늘어난 것을 정점으로 1966년부터 감소세를 나타내기 시작하여 1990년에는 친족가구의 평균가구원수는 4.0명으로 줄게 된다. 이와같은 가구원의 변동추세는 1920년대의 초기 사망력의 변천으로 인한 효과를 반영하고 있으며, 뒤이어 출산력의 증가 및 출산력의 감소, 그리고 도시화추세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권태환·박영진, 1993: 15-16). 즉 초기사망력의 변천은 한 가구내에 세대의 중첩효과를 가져왔으며, 1950년대 후반의 베이비·붐은 가구내 자녀수의 증가에 크게 기여했으며, 대규모 이농현상을 특징으로 하는 인구의 도시화 현상은 가구의 분화현상을 초래함으로써 도시와 농촌 두 지역에서 평균가구원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인구변동과 가족변동은 서로간에 영향을 주고 받는 호혜적인 관계에 있다. 즉 인

구변동은 직접적으로 가족의 구조와 가구구성에 변화를 초래하는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가족구조의 변동이 인구변동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지난 1960년 이래 한국은 비교적 단기에 걸쳐 인구변천을 경험했으며, 동시에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를 경험했다. 우리가 경험했던 이러한 인구변천은 출산력수준과 사망력의 급속한 감소를 통해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경우 출산력의 감소는 사회구조의 변동에 따른 자녀가치의 변화를 반영하며, 동시에 가족의 구조와 가구구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또한 산업화로 인한 인구의 도시집중은 전통적으로 농촌사회에 뿌리를 두고 있던 친족조직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최근 30여년간 급격한 인구변동과 도시화를 경험했던 한국사회는 이러한 일련의 변화가 한국인의 가구와 가족구조에 많은 변화를 초래했으며, 특히 이 변화의 과정에서 도시와 비교해서 인구학적 여건이 다른 농촌은 도시와는 다른 유형의 변화를 나타낼 것으로 보았다. 이와같은 관점에서 이 장에서는 주로 인구센서스자료를 중심으로 농촌가구의 구성과 가족구조의 변화를 시계열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동시에 이러한 가족구조의 변화를 기초로 농촌주민의 가족생활을 재음미해 보고자 하였다.

## 6.1 가구구성

인구변동에 따른 가구구성의 변화는 가장 먼저 가구원수의 변화로 나타난다. <표 6.1>은 1960년이래 각 센서스 시점 별로 관찰된 우리나라 농촌지역의 평균 가구원수이다. 전국적으로 평균 가구의 크기는 1960년 이래 계속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즉 일반가구의 경우 1960년에 5.57명이던 것이 그 이후 계속 줄어서 1995년에는 3.34명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통계 또는 생활단위라기 보다는 통상 가족으로 간주되는 친족가구의 경우도 1960년에 5.68명이던 것이 1995년에는 3.89명으로 일반가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변화추세를 보여준다.

한편 평균가구원수의 변화를 거주지역별로 살펴 보면 도시보다는 농촌에서 변화의 폭이 훨씬 더 크다. 1960년의 경우만 해도 평균가구원수는 일반가구와 친족가구 모두 시부보다는 면부가 훨씬 더 많았다. 그러나 <표 6.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0년을 전후한 시점부터는 면부의 평균가구원수가 오히려 시부보다 더 많아진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부에서는 1960-66년과 1970-75년의 두 기간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매 센서스년간 평균가구원수가 감소하여 1995년에는 친족가구의 경우 1960년에 비해 1.46명, 즉 26.6%가 준 3.92명이 된다. 이에 반

해 면부에서는 평균가구원수가 1960-66년간에 약간 늘어났다가 이후부터는 점차적으로 감소하다가 1975년부터는 시부지역에 비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줄어서 1990년을 전후한 시점부터는 평균 가구원수가 도시보다 더 적어지게 된다.

시부와 면부의 평균가구원수의 변동과 관련된 이러한 변화추세는 각 시기별로 평균가구원의 감소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이 다르게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즉 1960-66년 기간은 주로 사망력의 감소효과를, 그리고 1970-1975년은 주로 출산력의 감소가 평균가구원수의 변화에 미친 직접적인 효과를 반영하고 있다. 그밖에 1975-1995년에 이르는 기간은 출산력효과와 인구이동효과가 동시에 작용했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암시해 준다. 우리나라 인구중에서 시부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넘어서기 시작한 시점은 앞의 4장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1975-1980년사이가 된다. 그러므로 1980년 이후 한국인의 생활은 대부분 우리의 의식여부와는 무관하게 시부인구를 위주로 재조직되기 시작한다. 이 상황에서 1975년 이후 면부지역의 평균가구원이 시부지역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들었다는 사실은 이와같은 사회적 추세와 결부되어 농촌에서 가구분화현상이 도시에 비해 더 컸을 가능성을 시사해 주기 때문이다. 이를 좀 더 확실하게 관찰해 보기 위하여 가구분화의 지표가 되는 1인가구의 비율과 비혈연가구의 구성비율의 변화를 보면 <표 6.2>와 같다.

<표 6.1> 시부와 면부간 일반가구 및 친족가구의 평균가구원수, 1960-96

(단위: 명)

| 지역     | 1960 | 1966  | 1970 | 1975 | 1980 | 1985 | 1990 | 1995 |
|--------|------|-------|------|------|------|------|------|------|
| (일반가구) |      |       |      |      |      |      |      |      |
| 전국     | 5.57 | 5.44  | -    | 5.01 | 4.55 | 4.09 | 3.71 | 3.34 |
| 면부     | 5.69 | 5.67* | -    | 5.32 | 4.73 | 4.16 | 3.64 | 3.05 |
| 시부     | 5.38 | 5.05  | -    | 4.77 | 4.42 | 4.04 | 3.71 | 3.40 |
| (친족가구) |      |       |      |      |      |      |      |      |
| 전국     | 5.68 | 5.64  | 5.24 | 5.22 | 4.76 | 4.35 | 4.00 | 3.89 |
| 면부     | 5.78 | 5.83* | 5.56 | 5.49 | 4.94 | 4.43 | 3.98 | 3.71 |
| 시부     | 5.48 | 5.30  | 4.88 | 4.99 | 4.63 | 4.30 | 3.99 | 3.92 |

주: 면부와 읍부를 합한 군부의 평균가구원수임

자료: 1960-1990, 권태환·박영진(1993); 1995, 인구및주택 총조사보고서

생계를 같이하는 주거단위로서의 가구와 가족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가족에 대한 통계적 분석은 가구통계를 기준으로 분석하게 된다. 가구의

대부분이 가족으로 간주되는 친족가구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인구의 대부분이 이와 같은 친족가구의 구성원이 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1960년 센서스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의 96.8%가 친족가구로 분류되는 친족가족의 성원이 되고 있으며, 최근에 이르면서 비친족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1990년의 경우만해도 전체인구중 93.3%나 되는 많은 인구가 친족가구의 구성원으로 분류되고 있다(권태환·박영진, 1993: 20). 이 결과를 보면 대체로 산업화이전 사회에서는 대체로 일반가구와 친족가구가 일치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 이르면서 불일치하는 정도가 더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2>는 1970년이래 센서스년도별로 친족가구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과 일반가구중에서 1인가구 및 비혈연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친족가구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은 센서스년도별로 약간의 진폭이 있으나 대체로 감소추세를 보여준다. 친족가구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과는 달리 1인가구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과 전체 일반가구중 1인가구와 비혈연가구의 비율은 1960년이래 각 관찰년도별로 예외없이 도시와 농촌 등 모든 지역에서 그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1인가구와 비혈연가구의 비율의 변화를 지역별로 비교해보면 1인가구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과 일반가구중 1인가구가 차지하는 구성비율은 1975년을 전후한 시점부터 종래와는 달리 면부지역이 시부지역에 비해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동시에 이들 가구의 증가속도 역시 도시보다는 농촌이 훨씬 더 빠른 속도를 나타낸다. 그러나 1인단독가구의 경우와는 달리 비혈연가구의 구성비율은 면부보다는 시부가 더 높다. 이와같은 일련의 사실은 친족가구에서 거주하는 인구비율의 감소는 농촌에서는 가구분화로 인한 1인단독가구의 증가로 비롯하는데 반해 시부의 경우는 1인가구와 비혈연가구의 증가로부터 연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1990년과 1995년간에 관찰되는 친족가구에 거주하는 인구비율의 증가현상은 주로 시부지역에서 관찰되는 비혈연가구비율의 감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구구성면에서 관찰되는 농촌가족의 가장 특징적인 현상은 일반가구중에서 1인단독가구의 비율이 크게 늘고 있다는 사실이다. 위 표에서 보면 면부에 소재하는 일반가구중 1인가구의 구성비율은 1960년에는 2.20%에 불과했으나 최근에 이르면서 더욱 그 속도가 더 빨라져서 1990년에는 10%를 넘어섰고 다시 1995년에는 16.85%로 크게 늘어났다. 이처럼 최근 크게 늘고 있는 농촌지역의 1인가구가 갖는 특성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 1인가구의 가구주의 연령분포를 관찰해보았다.

<표 6.3.1>을 보면 면부의 1인가구의 가구주는 대부분 55세이상의 고령자가 대

부분을 차지하며, 1인가구주의 고령화경향은 최근에 이르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농촌과는 달리 시부지역에서 1인가구의 가구주는 30세 미만의 젊은 연령층이 비교적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에 이르면서 연령집단간의 차이는 점차적으로 줄고 있다. 농촌과 도시지역의 1인가구비율이 최근에 이르면서 더욱 급속하게 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기 위해 면부와 시부의 1인가구의 가구주의 성·연령별·배우상태별 분포를 보면 <표 6.3.2>와 같다.

<표 6.3.2>를 보면 1990-95년기간중에 특히 면부지역에서 더욱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1인단독가구증가의 원인을 추정해 볼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 준다. 이 표를 보면 면부지역에서 1인가구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55세 이상의 고령으로서 사별 또는 이혼한 여성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전체 1인가구의 61.32%가 55세 이상의 사별·이혼한 여성이며, 30-54세의 비교적 젊은 연령층의 이혼·사별한 여성, 5.41%를 포함시키면 이혼·사별로 인해 형성된 1인 여성가구주의 비율은 전체 1인가구의 2/3가 되는 66.7%를 상회한다. 또한 55세 이상의 고령으로서 이혼·사별로 단독가구를 형성하고 있는 여성가구주에 더하여 55세이상의 고령으로서 사별·이혼한 남자, 7.98%를 포함시키면, 사별·이혼으로 인한 고령의 1인 단독 가구주는 69.30%로서 전체 1인가구주의 약 70%를 차지한다. 이와같은 일련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면부를 중심으로 관찰된 농촌지역의 1인가구의 증가는 주로 고령으로 인한 사별이 주 원인이 되고 있으며 여성가구주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므로 최근 농촌지역에서 관찰되는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는 농촌에서 가족해체가 비교적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 내용도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농촌과는 달리 시부지역에서 관찰되는 1인가구는 30세 미만의 젊은 연령층의 미혼인구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30-54세 연령층의 경우도 미혼인구층이 다른 유배우인구층보다 더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 이와같은 일련의 결과는 도시지역의 경우 가구분할현상의 증대가 감지되기는 하지만, 이는 가족해체로 이어지기 보다는 학업이나 취업 등과 같은 이유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가구분할현상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도시의 경우 30-54세의 미혼가구주의 비율이 남자의 경우 12.16%, 그리고 여자의 경우는 6.71%로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30-54세 연령층에 속하는 1인가구주의 높은 비율은 최근 우리나라의 도시사회에서 관찰되는 고령의 독신인구비율의 증가를 반영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표 6.2> 총인구중 친족가구와 1인가구 거주 인구의 비율 및 일반가구중  
1인가구와 비혈연 가구의 구성비율, 1960-95

(단위: %)

| 지역                  | 1960  | 1970  | 1975  | 1980  | 1985  | 1990  | 1995  |
|---------------------|-------|-------|-------|-------|-------|-------|-------|
| (친족가구 거주인구비율)       |       |       |       |       |       |       |       |
| 전국                  | 96.76 | 93.00 | 95.80 | 94.98 | 94.11 | 93.62 | 94.72 |
| 면부                  | 97.06 | 95.72 | 97.05 | 96.10 | 94.49 | 92.40 | 93.46 |
| 시부                  | 96.06 | 89.75 | 94.73 | 94.32 | 93.98 | 93.95 | 95.39 |
| (1인 단독가구 거주 인구비율)   |       |       |       |       |       |       |       |
| 전국                  | 0.40  | -     | 0.81  | 1.02  | 1.64  | 2.35  | 3.79  |
| 면부                  | 0.38  | -     | 0.70  | 1.05  | 1.80  | 2.88  | 5.53  |
| 시부                  | 0.43  | -     | 0.90  | 1.03  | 1.62  | 2.24  | 3.47  |
| (일반가구중 1인 단독가구의 비율) |       |       |       |       |       |       |       |
| 전국                  | 2.30  | -     | 4.23  | 4.80  | 6.91  | 9.00  | 12.64 |
| 면부                  | 2.20  | -     | 3.39  | 5.11  | 7.53  | 10.92 | 16.85 |
| 시부                  | 3.39  | -     | 4.52  | 4.71  | 6.75  | 8.55  | 11.82 |
| (일반가구중 비혈연가구의 비율)   |       |       |       |       |       |       |       |
| 전국                  | -     | -     | -     | 1.47  | 1.67  | -     | 1.41  |
| 면부                  | -     | -     | -     | 0.63  | 0.74  | -     | 1.09  |
| 시부                  | -     | -     | -     | 1.88  | 1.97  | -     | 1.47  |

자료: 1960-1990: 권태환·박영진, 1993: 20

1995 및 일반가구중 비혈연가구의 비율: 해당 연도별 인구및주택 총조사보고서

<표 6.3.1> 1인가구 가구주의 연령별 분포, 1985-95

(단위: %)

| 연도 및 지역 | 연령집단  |        |       | 합계    |
|---------|-------|--------|-------|-------|
|         | 30세미만 | 30-54세 | 55세이상 |       |
| 1985년   |       |        |       |       |
| 면부      | 11.33 | 21.05  | 67.62 | 100.0 |
| 시부      | 53.63 | 27.63  | 18.74 | 100.0 |
| 1990년   |       |        |       |       |
| 면부      | 8.85  | 19.10  | 72.05 | 100.0 |
| 시부      | 46.78 | 32.57  | 20.65 | 100.0 |
| 1995년   |       |        |       |       |
| 면부      | 6.59  | 19.20  | 74.21 | 100.0 |
| 시부      | 39.79 | 37.19  | 23.02 | 100.0 |

자료: 각 연도별 인구및주택 총조사보고서

<표 6.3.2> 거주지 특성별 1인가구 가구주의 성·연령별 분포, 1995

(단위: %)

| 배우상태 및<br>연령 | 면 부   |       | 시 부   |       |
|--------------|-------|-------|-------|-------|
|              | 남 자   | 여 자   | 남 자   | 여 자   |
| 미 혼          |       |       |       |       |
| 30세 미만       | 4.51  | 0.65  | 23.44 | 15.29 |
| 30-54세       | 3.62  | 0.96  | 12.16 | 6.71  |
| 55세 이상       | 0.20  | 0.13  | 0.15  | 0.22  |
| 유배우          |       |       |       |       |
| 30세 미만       | 0.22  | 0.12  | 0.40  | 0.45  |
| 30-54세       | 5.53  | 1.67  | 5.18  | 3.42  |
| 55세 이상       | 3.07  | 1.54  | 1.40  | 0.98  |
| 사별·이혼        |       |       |       |       |
| 30세 미만       | 0.02  | 0.03  | 0.05  | 0.13  |
| 30-54세       | 2.02  | 5.41  | 2.91  | 6.84  |
| 55세 이상       | 7.98  | 61.32 | 2.81  | 17.46 |
| 합 계          | 100.0 |       | 100.0 |       |

자료: 통계청, 1995년도 인구및주택 총조사보고서

## 6.2 가족의 구성과 가족형태

생계를 같이하는 주거단위로서 가구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친족가구이다. 친족가구는 가구원간에 혈연과 결혼 및 입양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데 특징이 있다. 동시에 친족가구가 갖는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센서스자료를 기초로 가족의 구성과 가족형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친족가구는 통상 가족과 동일시된다. 센서스자료에서 제시되는 친족가구는 가족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상의 성원이 있을 경우 성립되지만, 친족가구에는 비친족가구원이 포함되기도 하며 출타한 가족성원은 제외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친족가구는 가족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가족의 세대별 구성을 분석하거나 가족의 유형을 분류하는 경우 가족과 동일시해도 무리는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센서스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가족의 분석은 대부분 가족의 세대별구성과 가구주와의 관계를 통해 파악되는 가구형태와 관련된 일련의 분석에 초점을 두게 된다. 따라서 가족의 형태나 유형의 분석을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은 가족의 세대별구성을 분석하는 일이 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형적인 가족유형은 장자를

통해 가계를 이어가는 직계가족이 된다. 이상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인 가족체계의 전형이 되는 직계가족은 여러 세대가 중첩하여 하나의 가구를 형성해서 함께 생계를 꾸려가는 가구형태로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이와같은 형태로 친족가구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는 그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이 또한 현실이다.

그 이유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첫째 이유는 직계가족형성의 전제가 되는 가계의 계승은 장자만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장자 이외의 다른 형제가 본가를 떠나 새로운 또 하나의 직계가족체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다시 장기간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여기서 두번째 이유가 제기된다. 즉 장자이외의 다른 여러형제들이 본가(family of orientation)를 떠나 새로운 생식가족(family of procreation)을 형성하여 또 다른 하나의 직계가족을 발전시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 사망력효과로 인해 실제로 여러 세대가 중첩된 하나의 가구단위를 구성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밖에 가구는 생계단위이기 때문에 경제적 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대부분의 가족이 여러세대가 중첩된 가구를 유지·발전시켜 나아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러세대가 중첩되어 한 가구를 형성하여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 가족은 현실적으로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비교적 단기간에 인구변천을 경험했으며, 동시에 우리사회가 산업사회로 전환되어 가는 과정에서 농촌에도 도시화바람이 현상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이와같은 사회·인구학적 여건의 변화는 가구내 친족가족의 구성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게 되며, 그 결과 가구단위로 관찰되는 가족의 유형도 크게 달라지게 된다.

<표 6.4>는 1960년이래 매 센서스년도별로 추정된 친족가족의 세대구성이 변화하는 실태를 보여준다. 이 표를 보면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산업화단계로 접어들기 이전시점인 1960년 당시 농촌가족의 세대구성을 보면 2세대와 3세대 가족이 주류를 이룬다. 즉 2세대가족이 61.29%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3세대가족으로서 전체가구중 32.10%가 된다. 당시 시부지역의 경우 2세대가족과 3세대가족의 구성비율은 각각 73.33%와 19.02%가 된다. 이 결과는 도시화가 진전될 경우 가족의 세대구성은 점차적으로 3세대이상 가족의 구성비율이 주는 대신 2세대가족과 1세대 가족의 비율이 크게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그리고 이와같은 생각은 1세대 가족의 경우 실제로 확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2세대 가족의 경우는 어느 수준까지는 증가추세를 나타내나 3세대이상의 가족비율이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무자녀 부부가족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감소하거나

정체상태를 나타낸다.

실제로 <표 6.4>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친족가족의 세대구성비율은 이와같은 일반적추세를 그대로 보여준다. 대체로 3세대 이상의 친족가족은 도시와 농촌 모두에서 계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반해 1세대가족은 반대로 두 지역에서 모두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들과는 달리 2세대 친족가족의 비율은 도시와 농촌 모두 어느시점까지는 증가세를 보이다가 다시 감소세를 나타낸다. 이러한 경향은 시부와 면부 모두 동일한 변화유형을 보이고 있으나 변화의 폭은 시부와 면부간에 큰 차이를 나타낸다. 즉 시부의 경우 2세대 친족가족의 비율은 1990년을 정점으로 이후부터는 극히 완만한 감소세를 나타낸다. 이와는 달리 면부에서는 2세대 가족의 비율이 1980년에 66.30%로서 정점에 도달한 후 계속하여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1995년에는 그 비율이 56.29%로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 현상은 도시와 농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2세대 친족가족의 감소현상을 초래하는 원인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암시해 준다. 즉 시부지역에서 2세대가족의 감소세는 최근 관찰되는 무자녀부부의 증가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반해, 면부지역의 경우는 젊은 가족구성원의 도시이주로 인해 형성되는 1세대 친족가족의 증가에 일차적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족은 직계가족을 이상적인 것으로 생각으로 하는 가족체제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대다수가족은 앞서 열거한 바와 같은 여러가지 이유로 현실적으로는 불가피하게 부부와 미혼자녀를 구성된 핵가족형태를 나타내게 된다. 그러나 이들 핵 가족도 외형적으로는 핵가족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직계가족의 형성을 불가능하게 했던 여건이 충족된다면 언제나 직계가족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과도적인 단계에 있는 가족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최근 농촌지역에서 1세대가족의 급속한 증가는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즉 도시화가 농촌지역 깊숙히 확산됨에 따라 전통적인 직계가족체제가 핵가족화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또는 직계가족으로 이행되어 가기 전 단계에 있는 핵가족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밖에 또 다른 이유가 있는가? 하는 등등의 문제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표 6.5>는 1995년 현재 면부와 시부의 1세대가구주의 연령분포이다. 이 표를 보면, 면부가족의 경우 1세대가족의 전체 가구주 가운데 78.38%가 연령이 55세 이상의 고령이며, 29세이하의 가구주는 3.67%에 불과하다. 나아가서 농촌에서 1세대가족은 부부로 구성된 가족이 대부분(77.49%)을 차지한다. 이에 반해 시부지역

의 핵가족은 세 연령집단(29세이하, 30-54세 및 55세이상)간에 거의 균등한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부부가족의 구성비율은 29세이하와 다른 연령집단간에는 큰 차이를 나타낸다. 이 차이는 29세이하의 젊은 연령층의 경우 부부가족이외의 다른 유형의 가족, 예컨대 학교 또는 직장생활 등의 이유로 본가와 떨어져서 임시로 가구를 구성해 사는 가족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도시와 농촌의 1세대가족의 이러한 연령별 분포의 차이를 보면 농촌의 1세대가족의 증가를 도시화의 부산물로서 농촌가족이 핵가족화하는 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이러한 유형을 가족을 직계가족의 전 단계에 나타나는 일시적 유형의 핵가족으로 간주하기는 더 어렵다. 따라서 이 사실은 도시화로 인해 젊은 세대의 자녀들이 학업이나 취업으로 가족을 떠나는 가족분리현상의 결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표 6.4> 친족가구의 세대구성, 1960-95

(단위: %)

| 지역/세대  | 1960  | 1966* | 1970  | 1975  | 1980  | 1985  | 1990  | 1995  |
|--------|-------|-------|-------|-------|-------|-------|-------|-------|
| 전국/1세대 | 5.30  | 5.21  | 6.75  | 7.06  | 8.81  | 10.46 | 12.00 | 14.74 |
| 2세대    | 65.42 | 68.01 | 70.04 | 71.76 | 73.06 | 73.28 | 74.06 | 73.66 |
| 3세대    | 27.64 | 24.17 | 22.06 | 20.20 | 17.56 | 15.80 | 13.60 | 11.36 |
| 4세대이상  | 1.63  | 2.61  | 1.15  | 0.98  | 0.56  | 0.46  | 0.35  | 0.24  |
| 면부/1세대 | 4.41  | 3.94  | 4.70  | 5.20  | 7.67  | 11.59 | 17.69 | 27.45 |
| 2세대    | 61.29 | 64.32 | 64.91 | 65.56 | 66.30 | 64.20 | 61.36 | 56.29 |
| 3세대    | 32.10 | 28.63 | 28.66 | 27.65 | 25.01 | 23.28 | 20.22 | 15.76 |
| 4세대이상  | 2.20  | 3.10  | 1.74  | 1.59  | 1.02  | 0.93  | 0.73  | 0.50  |
| 시부/1세대 | 7.08  | 7.53  | 9.16  | 8.65  | 9.67  | 10.29 | 10.69 | 12.18 |
| 2세대    | 73.33 | 74.74 | 75.44 | 76.32 | 76.46 | 76.51 | 77.28 | 77.25 |
| 3세대    | 19.02 | 16.02 | 14.88 | 14.51 | 13.55 | 12.92 | 11.79 | 10.39 |
| 4세대이상  | 0.56  | 1.72  | 0.52  | 0.51  | 0.32  | 0.27  | 0.24  | 0.18  |

주: 1966년도 자료중 면부의 수치는 군부자료임

자료: 1960-1990: 권태환·박영진, 1993; 1995: 통계청, 인구및주택 총조사보고서

<표 6.5> 면부와 시부의 1세대 가구주의 연령분포

(단위: %)

| 가족형태   | 합 계              | 29세미만 | 30-54세 | 55세이상 |
|--------|------------------|-------|--------|-------|
|        |                  | (면 부) |        |       |
| 1세대/합계 | 100.0 (430,617)  | 3.67  | 17.95  | 78.38 |
| 부부     | 97.44 (419,573)  | 2.78  | 17.17  | 77.49 |
| 기타     | 2.56 (11,044)    | 0.89  | 0.78   | 0.89  |
|        |                  | (시 부) |        |       |
| 1세대/합계 | 100.0(1,059,993) | 34.36 | 33.19  | 32.45 |
| 부부     | 79.04 (837,690)  | 19.53 | 28.12  | 31.39 |
| 기타     | 20.96 (222,303)  | 14.83 | 5.07   | 1.06  |

자료: 통계청, 1995 인구및주택 총조사보고서

전통적으로 한국인들은 직계가족을 이상적인 가족의 형태로 생각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므로 전체가구중 이러한 형태의 가족이 어느정도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관심사가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적절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자료는 사실상 없다해도 과언이 아니된다. 통상 가족형태에 관해 전국적인 차원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유일한 소스는 센서스보고서 뿐이다. 그러나 센서스보고서에서 가족의 형태를 분류하는데 적합할 만큼 충분한 수준에서 자료를 집계하기 시작한 것은 1966년 이후 부터이기 때문이다. 즉 이 시점 이후부터 수집·집계된 센서스 자료를 통해서 비로소 개괄적으로나마 가족형태별 가구분포를 구성하여 그 변화를 관찰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비교의 표준화를 기하기 위해 센서스자료를 기초로 분류한 가족의 형태는 권태환·박영진(1993)의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조작적 정의에 따라 분류하였다.

- (1) 핵가족: 부부로 구성된 가족과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족, 그리고 편부 또는 편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족
- (2) 직계가족: 부부와 양친 또는 편친부모로 구성된 가족, 부부와 양친 또는 편친 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족
- (3) 기타가족: 위의 정의에서 해당되지 않는 모든 가족

그러나 실제분석과정에서는 핵가족이나 직계가족을 중심으로 다른 가족성원이나 가구원이 함께 사는 경우 그 가족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분류하기는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와 확대가족 가운데서 순수한 직계가족이라고 간주할 수 없는 경우는 기타가족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므로 적은 비율이기는 하지만 기타가족에는 핵가족이나 직계가족으로 분류될 수 있는 가족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1966년은 우리나라에서 산업화의 단계로 막 접어들기 시작한 시점이지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산업화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상태이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사람이 어려운 환경속에서 생활을 영위해 나아가던 시기이다. 따라서 이 시기의 가족형태는 대체로 전산업사회의 단계에서 볼 수 있는 가족형태를 어느정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이 당시만 해도 실제로 직계가족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 가족은 전국적으로 전체가구중 21.36%밖에 되지 않았다(표 6.6.1 참조). 실제로는 직계가족이면서 기타가족으로 분류된 경우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가족의 이상형으로 간주되는 직계가족은 전체 친족가구의 25%를 넘지 않는다. 그러나 이를 정주형태에 따라 관찰하면 도시와 농촌은 서로간에 조금 다른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전형적인 농촌으로 분류되는 면부의 경우 직계가족의 비율은 25%가 넘는다. 이에 반해 시부에서는 이 비율이 14.28%에 불과하며 대신 핵가족의 비율이 72.24%나 된다. 이 사실은 가족형태가 도시화수준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가족유형의 구성비율은 도시화의 확대와 더불어 변화하고 있다. 이와같은 변화추세는 농촌의 경우도 도시와 유사하게 나타난다. <표 6.6.1>를 보면 1995년 센서스 시점에서 관찰된 면부에서도 직계가족은 친족가족 중에서 15.39%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면부에서는 친족가족중 직계가족이 차지하는 비율이 시부에 비해 훨씬 낮은 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도시화의 초기단계로 간주되는 1970년 당시 도시의 직계가족비율은 16.75%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농촌(면부지역)에서는 그 비율이 26.80%로서 도시와 비교하여 아직도 훨씬 더 높다. 이 점을 고려하면 그동안 농촌에서도 가족형태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5년간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한국가족의 전형이 되는 직계가족은 농촌에서조차 점차 핵가족으로 대체되는 추세를 나타낸다. 핵가족 비율의 증가, 그리고 직계가족의 감소를 특징으로 하는 가족형태의 변화는 앞서 본 세대별 가족의 구성(표 6.4 참조)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특히 1990-95년간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핵가족과 직계가족의 변화를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 핵가족과 직계가족의 원형이 되는 1세대 부부가족과 직계가족중 양친과 동거하는 가족비율의 변화를 보면 <표 6.6.2>과 같다.

<표 6.6.1> 친족가구의 가족형태, 1970-95

(단위: %)

| 지역/가족형태 | 1966* | 1970  | 1975  | 1980  | 1985  | 1990  | 1995  |
|---------|-------|-------|-------|-------|-------|-------|-------|
| 전국/핵가족  | 66.63 | 71.53 | 70.48 | 72.90 | 75.27 | 76.00 | 79.82 |
| 직계가족    | 21.36 | 21.89 | 14.70 | 14.06 | 13.67 | 12.51 | 9.31  |
| 기타      | 12.01 | 6.58  | 14.81 | 13.04 | 11.06 | 11.49 | 10.87 |
| 면부/핵가족  | 63.57 | 66.31 | 65.41 | 68.62 | 70.47 | 70.00 | 74.24 |
| 직계가족    | 25.23 | 26.80 | 19.27 | 18.95 | 19.20 | 18.27 | 15.39 |
| 기타      | 11.20 | 6.89  | 15.32 | 12.43 | 10.34 | 11.73 | 10.37 |
| 시부/핵가족  | 72.24 | 76.90 | 73.80 | 74.74 | 76.74 | 77.56 | 80.92 |
| 직계가족    | 14.28 | 16.75 | 11.39 | 11.61 | 11.76 | 11.07 | 8.01  |
| 기타      | 13.48 | 6.35  | 14.81 | 13.64 | 11.49 | 11.38 | 11.07 |

주: 1966년도 자료중 면부의 수치는 군부의 자료임.

자료: 각 연도별 인구및주택 총조사보고서

<표 6.6.2> 핵가족과 직계가족중 1세대가족(부부가족)의 비율, 1970-95

(단위: %)

| 지역                    | 1970  | 1975  | 1980  | 1985  | 1990  | 1995  |
|-----------------------|-------|-------|-------|-------|-------|-------|
| 핵가족중 1세대부부 가족의 비율     |       |       |       |       |       |       |
| 전국                    | 7.61  | 7.07  | 8.79  | 10.33 | 12.20 | 15.74 |
| 면부                    | 6.65  | 7.01  | 10.52 | 15.78 | 24.06 | 36.02 |
| 시부                    | 8.59  | 7.07  | 8.04  | 8.59  | 9.54  | 11.90 |
| 직계가족중 양친과 동거하는 가족의 비율 |       |       |       |       |       |       |
| 전국                    | 30.26 | 19.01 | 19.36 | 21.02 | 20.54 | 18.83 |
| 면부                    | 32.68 | 21.99 | 23.06 | 25.13 | 23.91 | 21.36 |
| 시부                    | 25.57 | 13.96 | 15.00 | 17.61 | 18.62 | 17.71 |

자료: 해당년도별 인구및주택 총조사보고서

<표 6.6.2>는 1966년이래 우리나라의 농촌과 도시에서 핵가족과 직계가족의 변화를 더욱 뚜렷하게 보여준다. 이 자료를 보면 핵가족중 1세대 부부가족비율은 1970년이래 25년간 계속하여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낸다. 특히 1세대 부부가족비율의 증가추세는 시부보다는 면부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며, 최근에 이르면서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즉 1970년에는 핵가족 중 1세대 부부가족의 비율이 6.65%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 비율은 1990년에는 24.06%로 크게 늘었으며, 다시 1995년에는 이 비율이 36.02%로 높아졌다. 이와는 달리 <표 6.6.2>의 하단을 보면 직계가족중 양친과 동거하는 가족의 구성비율은 시부와 면부에서 모두 일정한 변화유형을 찾아볼 수 없다. 이 비율은 일반적인 사회적 추세를 반영한다기 보다는 부모의 생존여부 등과 같은 가족의 개별적 사정이나 관찰시점 등과 같은 특정한 요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도시와 농촌 양지역 모두 최근에 이르면서 1세대 부부가족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 부부가족의 형성과정은 서로 다르다. 앞서 본 바에 따르면 농촌의 1세대가족은 대부분 가구주의 연령이 55세 이상이 된다. 이로 미루어 보면 농촌에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부부가족은 원래부터 핵가족형태로 존재했다기 보다는 도시화로 인한 가족분할의 결과임을 시사해 준다. 즉 이 유형의 핵가족은 면부지역의 경우 5년전인 1990년만해도 24.06%였으나 1995년 센서스에서는 36.02%로 크게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농촌에서 핵가족 비율의 급격한 증가는 노인부부가족의 증가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노인부부의 증가는 젊은 인구층의 대량 이촌현상의 결과로 보이기 때문이다.

### 6.3 농촌 가구주의 특성

위에서 농촌가구와 가족의 구성과 형태의 변화를 도시의 경우와 비교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최근 우리나라의 농촌가구는 도시와 마찬가지로 가구원수가 급감하고 있으며, 전체일반가구중 친족가구의 비율이 주는대신 1인단독가구와 비혈연가구의비율이 크게 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친족가족의 경우도 전반적으로 종래 친족가족의 주류를 형성하던 2세대 가족과 3세대가족의 비율이 준 대신 1세대 친족가족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동시에 우리나라에서 농촌의 전형으로 간주되던 직계가족의 비율이 감소하는 대신 핵가족의 비율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그러나 1세대 핵가족의 증가는 핵가족의 가구주의 연령이 대부분 55세 이상의 고령이 된다는 점에서 도시가족의 경우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농촌가족의 성격과 농촌생활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농촌 가구주의 몇 가지 인구학적 특성을 분석해 보기로 하였다. 농촌가구의 가구주를 성별구성의 변화를 보기 위해 일반가구중 여성가구주의 비율을 보면 <표 6.7>과 같다. 전국적인 수준에서 보면 1966년이래 여성가구주의 비율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그러나

도시와 농촌간 이 비율의 변화추세를 비교해 보면 두 지역간에는 약간 다른 변화 추세를 나타낸다. 즉 도시에서 여성가구주 비율은 1985년 이후 줄고 있는데 반해 농촌에서 여성가구주의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에 이르면서 더 많이 늘고 있다. 또한 두 지역간 여성가구주의 비율을 보면 1985년까지는 시부가 면부보다 여성가구주의 비율이 더 높았다. 그러나 그 이후는 오히려 시부보다 면부에서 그 비율이 더 높으며, 두 지역간의 차이도 최근 더 커지고 있다. 이와같은 현상은 최근 농촌에서 여성노인 1인가구 비율의 급격한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6.7> 일반가구중 여성가구주 가구의 비율

(단위: %)

| 지 역 | 1966   | 1975  | 1980  | 1985  | 1990  | 1995  |
|-----|--------|-------|-------|-------|-------|-------|
| 전 국 | 12.02  | 13.22 | 14.66 | 15.69 | 15.74 | 16.57 |
| 면 부 | 10.16* | 9.00  | 13.22 | 14.18 | 17.31 | 20.02 |
| 시 부 | 15.44  | 15.96 | 15.52 | 16.39 | 15.32 | 17.21 |

주: 군부의 자료임

자료: 해당년도, 인구및주택 총조사보고서

한편 가구주의 연령의 변동을 알아보기 위해 농촌과 도시에 소재하는 일반가구의 가구주의 중위연령을 비교해 보면 <표 6.8>과 같다. 가구주의 연령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비교해 볼 수 있으나 센서스자료를 기초로 가구주의 연령을 측정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중위연령을 측정하여 이용할 수밖에 없으나, 중위연령은 각 시기별로 다양한 연령의 범위내에서 분산되어 있는 가구주연령의 변화를 단일지표를 통해 관찰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6.8>에서 각 센서스년도별로 가구주의 중위연령을 보면 1966년 이래 1990년까지 이 연령은 완만하게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냈으나 1990-95년기간에는 약간 하강하는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시부의 경우 역시 이와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면부로 대표되는 농촌의 경우는 아주 다른 변화의 추세를 나타낸다. 즉 면부의 경우 가구주의 중위연령은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1985년 이후 부터는 상승의 폭이 더 커지고 있다. 또한 이 연령을 가구주의 성에 따라 분리하여 관찰해 보면 시부 남자의 경우는 전국적인 추세와 차이가 없으나 면부남자의 경우는 1990년 이후 가구주의 중위연령은 크게 높아지는 추세를 나타낸다. 여자의 경우 역시 시부와 유사한 추세에 있으나, 특히 면부 여성가구주의 중위연령은 1995년에는 60.92세가

될 만큼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와같은 일련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가구주의 중위연령은 도시보다는 농촌에서, 그리고 남자가구주 보다는 여성가구주의 중위연령이 더 큰 폭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나아가서 이러한 현상은 농촌가족이 종전에 비해 최근 크게 변모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암시해준다.

<표 6.8> 일반가구 가구주의 중위연령, 1966-95

(단위: 세)

| 지 역     | 1966   | 1975  | 1980  | 1985  | 1990  | 1995  |
|---------|--------|-------|-------|-------|-------|-------|
| ( 합 계 ) |        |       |       |       |       |       |
| 전 국     | 41.96  | 42.59 | 42.11 | 42.98 | 43.14 | 43.00 |
| 면 부     | 42.70* | 44.26 | 47.61 | 47.47 | 50.43 | 55.26 |
| 시 부     | 40.70  | 41.10 | 39.24 | 41.33 | 41.55 | 41.16 |
| ( 남 자 ) |        |       |       |       |       |       |
| 전 국     | 41.68  | 42.23 | 41.34 | 42.49 | 42.52 | 42.01 |
| 면 부     | 42.51* | 44.02 | 46.60 | 46.98 | 45.52 | 52.51 |
| 시 부     | 40.24  | 40.56 | 38.67 | 40.85 | 41.04 | 40.54 |
| ( 여 자 ) |        |       |       |       |       |       |
| 전 국     | 43.68  | 46.57 | 47.82 | 47.88 | 47.61 | 50.76 |
| 면 부     | 44.07* | 47.94 | 50.06 | 52.93 | 57.35 | 60.92 |
| 시 부     | 43.21  | 45.87 | 44.10 | 46.09 | 47.20 | 45.98 |

주: 군부의 자료임

자료: 해당연도 인구및주택 총조사보고서

1995년 인구센서스결과를 기초로 농촌에 소재하는 일반가구의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을 요약해보면 <표 6.9.1>과 같다. 이 표를 보면 면부단위에 거주하는 농촌가구의 가구주의 성별분포를 보면 1995년 현재 남자가 80.0%, 그리고 여자가 20.0%정도 되며, 이들의 연령별 구성비율을 보면 면부단위에서 관찰되는 농촌가구의 가구주는 50대이상의 고연령 가구주가 60%이상이 된다. 그밖에 가구주의 배우상태를 보면 전체가구의 약 3/4에 근접하는 74.85%가 유배우자이며, 배우자와 사별하고 혼자 사는 가구주가 20.32%, 미혼가구주가 3.63%, 그리고 이혼한 사람이 가구주인 경우는 1.21%밖에 되지 않는다. 이 통계를 보면 농촌가구주는 대체로 여성가구주의 비율이 비교적 높은 편이며, 50대이상의 고연령층의 유배우상태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보면 농촌가구주는 연령이 많은 편이고 여성가구주의 비율이 비교적 높은 편이라는 사실을 제외하면 혼인상태는 도시와 비교해서 별다른 특성의 차이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농촌 가구주의 특성을 성별로 구분하여 연령별, 혼인상태별 가구주의 분포를 분석해 보면 매우 특색있는 새로운 사실을 알아볼 수 있다.

<표 6.9.1> 면부의 일반가구 가구주의 성, 연령 및 혼인상태별 특성, 1995  
(단위: %)

| 인구학적 특성    | 분 포(%) |
|------------|--------|
| 성: 남자      | 80.0   |
| 여자         | 20.0   |
| 연령: 20세 미만 | 0.28   |
| 20-29세     | 4.40   |
| 30-39세     | 16.65  |
| 40-49세     | 17.64  |
| 50-59세     | 23.88  |
| 60세 이상     | 37.16  |
| 혼인상태: 유배우  | 74.85  |
| 사별         | 20.32  |
| 이혼         | 1.21   |
| 미혼         | 3.63   |

자료: 통계청, 1995년 인구및주택 총조사보고서

<표 6.9.2> 면부 일반가구 가구주의 성별 연령 및 혼인상태, 1995  
(단위: %)

|        | 남 자   | 여 자   |
|--------|-------|-------|
| 연령;    |       |       |
| 20세 미만 | 0.20  | 0.58  |
| 20-29세 | 4.93  | 2.30  |
| 30-39세 | 19.67 | 4.56  |
| 40-49세 | 19.79 | 9.03  |
| 50-59세 | 24.27 | 22.29 |
| 60세 이상 | 31.14 | 61.24 |
| 혼인상태;  |       |       |
| 유배우    | 91.68 | 7.60  |
| 사별     | 3.65  | 86.88 |
| 이혼     | 1.05  | 1.84  |
| 미혼     | 3.62  | 3.68  |

자료: 통계청, 1995년 인구및주택 총조사보고서

<표 6.9.2>에서 가구주의 연령을 보면 남자가구주와는 달리 여자가구주는 50대가 22.29%, 그리고 60세 이상이 61.24를 차지함으로써 농촌에서 살고 있는 여성가구주는 80%이상이 50세 이상의 고령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의 혼인상태를 보면 남자가구주 가운데는 절대다수가 되는 91.68%가 유배우상태에 있는데 반해 여자가구주는 그 비율이 7.60%밖에 되지 않으며, 오히려 여성가구주는 대부분(86.88%)이 사별상태에 있는 여자이다. 그밖에 면부지역의 가구주들은 미혼인 가구주와 이혼한 가구주도 각각 3.68%와 1.84%나 된다. 이와같은 일련의 사실은 농촌에 살고 있는 고령의 여성가구주는 대부분이 주로 남편과 사별한 후 가족의 일부가 농촌을 떠난 후 형성된 가구일 가능성을 암시해 준다.

한편 농촌가구주의 성별·연령별 유배우율과 평균가구원수를 보면 <표 6.10>과 같다. 남자의 경우 30세 이상이 되면 유배우율은 90%를 넘어서며, 이후 계속 증가하여 50-59세가 되면 유배우율은 95.62%가 되어 정점에 도달하며, 60세를 넘어서면 다시 유배우율은 떨어지기 시작한다. 이와는 달리 여성가구주는 유배우율이 정점에 도달하는 30-34세의 경우만 해도 유배우율이 46.85%밖에 되지 않는다. 이 사실은 농촌의 여성가구주는 대부분 사별 또는 이혼한 여자들로 구성된 가구임을 말해준다. 특히 <표 6.9.2>에서 본 바에 따르면 여성가구주의 약 84%가 연령이 50세 이상이고, 이들 연령층에서 유배우율이 10%가 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여성가구주중 이혼한 여자가 불과 1.84%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 등을 감안하면 농촌의 여성가구주는 거의 대부분이 남편과 사별한 가구주라해도 지나친 표현이 되지 않는 것 같다.

또한 <표 6.10>에서 성별 가구주의 평균가구원수를 보면 전체적으로 남성이구주의 경우 평균가구원수는 3.37명인데 반해 여성가구주는 1.75명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여성가구주가구와 남성이구주가구의 평균가구원수는 전체적으로 약 1.62명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러나 이 차이는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30세 이상되는 여성가구주는 같은 연령의 남성이구주 가구의 경우와 비교하여 1.0명 이상의 차이를 나타낸다. 이 사실은 남성이구주와 여성가구주 가구는 배우자외에 다른 가구원수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음을 시사해준다.

<표 6.10> 성·연령별 가구주 가구의 유배우율 및 평균가구원수

| 연 령   | 유배우율(%) |       | 평균가구원수(명) |       | 차 이   |
|-------|---------|-------|-----------|-------|-------|
|       | 남자가구주   | 여자가구주 | 남자가구주     | 여자가구주 |       |
| 계     | 91.68   | 7.60  | 3.37      | 1.75  | 1.62  |
| 15세미만 | -       | -     | 1.68      | 1.84  | -0.16 |
| 15-19 | 3.59    | 0.70  | 1.97      | 1.84  | 0.13  |
| 20-24 | 31.69   | 5.90  | 2.17      | 1.69  | 0.48  |
| 25-29 | 72.67   | 30.01 | 2.85      | 1.87  | 0.98  |
| 30-34 | 89.83   | 46.85 | 3.65      | 2.45  | 1.20  |
| 35-39 | 93.14   | 36.67 | 4.09      | 2.69  | 1.40  |
| 40-44 | 94.04   | 26.73 | 4.20      | 2.77  | 1.43  |
| 45-49 | 94.67   | 17.95 | 3.99      | 2.52  | 1.47  |
| 50-54 | 95.24   | 10.80 | 3.51      | 2.21  | 1.30  |
| 55-59 | 95.62   | 6.87  | 3.12      | 1.91  | 1.21  |
| 60세이상 | 91.77   | 2.48  | 2.75      | 1.46  | 1.29  |

자료: 통계청, 1995년 인구및주택 총조사보고서

#### 6.4 가구유형별 가구주의 경제활동

센서스자료를 통해 집계되는 일반가구는 크게 혈연가구와 1인단독가구, 그리고 비혈연가구의 세 형태로 대별된다. 이 경우 혈연가구는 통상 친족가족으로 분류된다. 최근 30여년동안 우리나라 농촌에서 일어났던 가장 괄목할만한 변화는 가족구성구성과 구조의 변화이다. 앞에서 본 바에 따르면 농촌가족은 가족의 크기는 도시가족의 크기보다 더 적어졌으며, 친족가구의 비율이 크게 줄고, 그 대신 1인단독가구의 비율이 최근 크게 늘고 있으며, 아직은 그 비율이 얼마되지 않지만 비혈연가구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농촌가족생활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들 각 유형별 가구의 가구주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여러측면을 비교분석해 봄으로서 구체적인 변화의 내용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표 6.11>을 보면 대체로 남자가구주가 여자가구주에 비해 취업중인 가구주의 비율이 높으며, 친족가구와 1인가구, 그리고 비혈연가구등 가구유형별 가구주의 경제활동은 큰 차이를 나타낸다. 남자가구주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가구주의 비율은 친족가족의 가구주가 4.4%로 가장 낮고, 그 다음이 1인가구의 9.0%이며, 비혈연가구는 15.1%가 된다. 그러나 여자가구주의 경우는 친족가족의

<표 6.11> 면부 가구주의 성별·가구유형별 경제활동상태

(단위: %)

| 경제활동상태    | 남자가구주    |         |       | 여자가구주   |         |       |
|-----------|----------|---------|-------|---------|---------|-------|
|           | 친족가구     | 1인가구    | 비혈연가구 | 친족가구    | 1인가구    | 비혈연가구 |
| 주로 일함     | 92.1     | 87.2    | 80.3  | 61.8    | 50.6    | 57.8  |
| 일시휴직      | 0.3      | 0.3     | 0.7   | 0.2     | -       | -     |
| 가사·학업 틈틈히 | 1.0      | 1.1     | 1.1   | 8.6     | 9.7     | 2.6   |
| 일거리물 찾음   | 2.2      | 2.4     | 2.7   | 2.2     | 0.9     | 0.9   |
| 비경제활동     | 4.4      | 9.0     | 15.1  | 27.2    | 38.8    | 38.8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 (22,665) | (5,048) | (437) | (3,751) | (1,398) | (116) |

자료: 통계청, 1995년 인구및주택 총조사 2% 표본

가구주만이 비경제활동가구주의 비율이 27.2%가 될 뿐 1인가구나 비혈연가구는 모두 38.8%로서 친족가구의 가구주보다 비율이 높다. 이와함께 현재 취업중인 가구주의 비율을 보면 남자의 경우는 친족가구의 가구주(92.1%), 1인가구(87.2%), 그리고 비혈연가구(80.3%)의 순으로 비율이 높다. 그러나 여자의 경우는 남자의 경우와 달리 1인가구가 비혈연가구와 친족가구의 가구주비율보다 낮다. 이 결과는 여자의 경우 1인가구의 대부분(약 60%)이 60세이상의 노령층인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된다.

한편 이들 가구유형별로 취업자들이 취업하고 있는 산업과 직업을 보면 <표 6.12.1>과 <표 6.12.2>와 같다. 먼저 <표 6.12.1>을 보면 면부단위의 농촌에서 가장 많은 가구의 가구주가 참여하는 산업은 남녀 모두 농·림·수렵·어업 등 1차산업이 되고 있지만, 제조업 등 비농업적 산업에 취업하는 가구주의 비율도 매우 높다. 이를 가구유형별로 비교해 보면 가구주의 성에 관계없이 유사한 취업유형을 보여준다. 즉 농촌의 전형적인 산업이 되는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주의 비율은 1인가구주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친족가구와 비혈연가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표 6.12.1> 면부의 성별·가구유형별 가구주의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율

(단위: %)

| 산 업             | 남자가구주             |                  |                | 여자가구주            |                |               |
|-----------------|-------------------|------------------|----------------|------------------|----------------|---------------|
|                 | 친족가구              | 1인가구             | 비혈연가구          | 친족가구             | 1인가구           | 비혈연가구         |
| 농·림·수렵·어업       | 53.4              | 62.6             | 36.2           | 64.4             | 71.2           | 25.0          |
| 광업              | 0.7               | 0.6              | 0.3            | 0.2              | -              | -             |
| 제조업             | 13.8              | 9.0              | 22.3           | 8.7              | 6.7            | 27.9          |
| 전기·가스·수도        | 0.6               | 0.5              | 1.2            | 0.1              | -              | -             |
| 건설업             | 6.9               | 5.7              | 10.7           | 0.8              | 1.0            | 1.5           |
| 도소매업/숙박         | 11.0              | 9.4              | 13.6           | 17.4             | 12.7           | 30.9          |
| 운수·창고·통신        | 4.2               | 4.0              | 4.5            | 0.4              | 0.1            | -             |
|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 | 3.3               | 2.5              | 3.6            | 1.7              | 1.6            | -             |
| 사회·개인서비스        | 6.0               | 5.7              | 7.7            | 6.4              | 6.8            | 14.7          |
| 계               | 100.0<br>(22,393) | 100.0<br>(4,275) | 100.0<br>(337) | 100.0<br>(3,527) | 100.0<br>(836) | 100.0<br>(68) |

자료: 통계청, 1995년 인구및주택 총조사 2% 표본

<표 6.12.2> 면부의 성별·가구유형별 가구주의 직업구성

(단위: %)

| 직 업       | 남자가구주             |                  |                | 여자가구주            |                |               |
|-----------|-------------------|------------------|----------------|------------------|----------------|---------------|
|           | 친족가구              | 1인가구             | 비혈연가구          | 친족가구             | 1인가구           | 비혈연가구         |
| 임직원·관리자   | 3.0               | 2.1              | 3.3            | 0.4              | 0.5            | 1.4           |
| 전문가       | 2.8               | 2.9              | 4.5            | 2.2              | 3.6            | 5.7           |
| 기술 및 준전문가 | 5.5               | 3.8              | 6.4            | 2.0              | 2.0            | 4.3           |
| 사무직원      | 4.6               | 4.1              | 5.0            | 2.4              | 1.8            | 5.7           |
| 서비스·판매종사  | 9.3               | 8.1              | 11.1           | 18.8             | 13.6           | 32.9          |
| 농·축·임·어업  | 49.5              | 59.3             | 33.7           | 62.1             | 68.7           | 31.9          |
| 기능원·관련종사  | 9.1               | 7.7              | 14.8           | 3.6              | 2.3            | 1.4           |
| 장치·기계조작원  | 9.3               | 7.1              | 15.6           | 2.7              | 1.8            | 20.0          |
| 단순노무자     | 4.7               | 4.2              | 4.5            | 5.7              | 5.8            | 5.7           |
| 군인        | 2.2               | 0.7              | 1.1            | 0.0              | -              | -             |
| 계         | 100.0<br>(23,911) | 100.0<br>(4,477) | 100.0<br>(359) | 100.0<br>(3,567) | 100.0<br>(843) | 100.0<br>(70) |

자료: 통계청, 1995년 인구및주택 총조사 2% 표본

즉 농촌가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남자가구주를 보면 친족가구중에서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가구주의 비율은 53.4%로서, 전체가구중 반을 겨우 넘는 가구만이 이 산업에 종사한다. 1인가구의 경우도 이 비율은 60%를 조금 넘고 있으며, 비혈

연가구는 이 비율이 36.2%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하여 확인되는 또 다른 특이한 현상은 친족가구나 1인가구의 경우 남자가구주보다는 여자가구주가 농림수산업에 참여하는 비율이 더 높다는 사실이다. 이들 두 유형의 가구에 속하는 여성가구주가 일차산업인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은 남자의 경우보다 약 10%포인트 정도 더 높다. 이에 반해 비혈연가구의 경우는 이 비율이 25%에 불과하며, 남자가구주의 36.2%보다 10%포인트 정도 더 낮다.

이처럼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율이 비교적 낮은 대신 도시적인 산업으로 볼 수 있는 제조업과 도소매업 및 숙박업, 그리고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가구주의 비율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이들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주의 비율은 가구형태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지만 순위는 성에 따라 비교적 일정한 유형을 나타낸다. 즉 남자의 경우는 제조업종사자의 비율이 가장 높는데 반해 여자의 경우는 도소매업과 숙박업 등에 종사하는 가구주의 비율이 높으며 제조업과 개인 및 사회서비스업은 그 다음 순위를 나타낸다. 이와같은 일련의 사실은 최근 우리나라 농촌이 빠른 속도로 탈농업화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해준다

이러한 생각은 <표 6.12.2>을 보면 더욱 확실해진다. <표 6.12.2>를 보면 농·축·임·어업에 종사하는 가구주의 비율 역시 <표 6.12.1>의 경우와 매우 유사한 유형을 나타낸다. 대체로 가족유형별로 농·축·임·어업 등 전형적인 농촌적인 직업에 종사하는 가구주의 비율은 산업별 취업자비율의 경우보다 조금 낮은 수치를 보여준다. 이 사실은 산업구조면에서는 농어업으로 분류되지만 실제로 농사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은 앞서 <표 6.12.1>에서 본 수치보다 약간 낮은 비율이 된다 하겠다.

<표 6.13> 면부의 성별·가구유형별 취업중인 가구주의 고용상태

(단위: %)

| 고용상태     | 남자가구주             |                  |                | 여자가구주            |                |               |
|----------|-------------------|------------------|----------------|------------------|----------------|---------------|
|          | 친족가구              | 1인가구             | 비혈연가구          | 친족가구             | 1인가구           | 비혈연가구         |
| 임금·봉급생활자 | 35.1              | 28.2             | 46.5           | 24.2             | 22.4           | 42.9          |
| 영세자영업    | 59.2              | 67.3             | 44.8           | 71.7             | 75.6           | 48.6          |
| 자영업      | 5.3               | 4.3              | 8.1            | 3.3              | 1.5            | 8.6           |
| 무급가족노동자  | 0.3               | 0.2              | 0.6            | 0.9              | 0.5            | -             |
| 계        | 100.0<br>(23,911) | 100.0<br>(4,477) | 100.0<br>(359) | 100.0<br>(3,567) | 100.0<br>(843) | 100.0<br>(70) |

자료: 통계청, 1995년 인구및주택 총조사 2% 표본

그밖에 성별·가구유형별로 취업중인 가구주의 고용상태를 보면 <표 6.13>과 같다. 이 표를 보면 농촌가족의 고용상태는 가족유형과 관계없이 대부분 고용원이 없는 영세자영업과 임금·봉급생활자임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최근 농촌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비율의 퇴조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같은 생각은 최근 농촌에서 종래 많은 가구가 참여하여 종사하던 직업이 제조업이나 숙박 및 서비스업으로 대치되고 있으며, 농업도 종래와는 달리 실제로 농사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자영하는 비율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농촌의 가구주가 취업하고 있는 산업과 직업, 그리고 고용상태의 변화는 농촌사회에서 최근 가족생활이 종전과 비교하여 크게 변화되었을 가능성을 암시해 준다.

## 7. 결론 및 장래전망

1960년이래 우리나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동안 빠른 속도로 인구변천을 경험했다. 인구변천의 부산물로 한국의 인구는 구조면에서 많은 변화를 동시에 경험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인구변천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특히 이 기간중 많은 인구를 도시로 내 보내지 않으면 안되었던 농촌지역에서는 그 변화의 폭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농촌인구의 구조변동을 관찰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지역단위(구·시·군)간 인구이동의 유형과 특성, 그리고 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형적인 농촌으로 간주되는 행정구역인 면부의 인구를 중심으로 1975년부터 최근 20년동안 일어났던 인구구조의 변화를 분석해 보았다. 이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농촌인구의 구조와 특성의 변화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1) 도시인구의 급속한 팽창과 농촌인구 절대수의 급속한 감소: 1960년 농촌인구(면부인구)는 총인구의 63% 혹은 1,570만 명이었던 것이 1995년에는 총인구의 13.6% 혹은 608만 명(군부인구는 총인구의 21.5% 혹은 956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1995년 각 군 인구규모의 분포는 각 군간의 인구규모의 격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군인구 규모가 3만미만인 군이 9개군(9%)나 된다.

(2) 군부전체의 인구 감소속도는 늦어지고 있으나, 행정구역 변경의 영향을 제거할 때 각 군 연평균 인구감소율의 평균치는 기간별로 1980-85년 -1.9%, 1985-90년 -2.7%, 1990-95년 -3.2%로서 상당수의 단위 군에서 인구 감소추세가 점점 급격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각 군 인구성장율의 분포도 매우 큰 격차를 보인다. 1990-95년 기간 인구가 증가한 군이 12개군이며 연평균 증가율이 -6%미만인 군이 7개군 이었다. 인구증가율이 -9%와 -6%일 경우 인구수가 절반으로 감소하는 데는 8년과 12년이 걸리므로 이들 지역의 인구 감소문제가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

(3) 군부인구의 순전출율이 1965-75년 -9.1%에서 1985-90년 -15.2%로 “-” 증가하여 왔으나 최근(1990-95년)에는 -2.1%로 매우 큰 변화를 보였다. 이러한 변화는 서울, 부산 등 대도시의 교외화 현상의 영향도 있지만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으로 파악되었다.

(4) 최근 20년간 농촌인구의 성비는 도시와는 달리 점진적으로 조금씩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전체성비의 변동은 인구이동의 직접적인 영향이 성비를 높이는 방향인 것과 상반되므로 군부의 성 및 연령별 인구구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임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 보면 0-5세 인구의 성비는 시부에서와 마찬가지로 최근 10여년간 크게 높아졌다. 동시에 20대에서 30대에 이르는 비교적 젊은 노동력인구의 성비는 도시보다 높은 편이다. 그러나 40대이후의 비교적 고령의 성비는 최근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도시보다 낮다. 그러나 60세 이상의 노령인구의 성비는 1985년이래 80미만의 아주 낮은 수준이지만 도시보다는 높다.

(5) 성·연령별 인구구조는 도시와 농촌간에 뚜렷이 구분되는 유형을 나타내고 있다. 농촌인구의 최근 변화를 요약해 보면 가장 뚜렷한 특징은 면부인구 중 대체로 15세미만의 유소년인구의 비율이 크게 줄고 있으며, 반대로 50세 이상의 고연령 인구의 비율이 크게 늘고 있다. 그 결과 최근 한국에서는 농촌인구의 급격한 고령화현상이 뚜렷이 감지되고 있다.

각 군의 연령계층별 구성비 분포에 있어서 0-14세 인구와 65세이상 인구의 구성비는 매우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기간별로 볼 때 0-14세 인구구성비의 경우 분포가 중심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보여 군간의 격차가 차츰 감소할 것이나, 65세이상 구성비의 경우 분포가 확산되고 있어 격차가 점점 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6) 동시에 면부에서는 15-49세의 가임여성인구의 절대수가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으며, 가임여성인구의 감소는 유소년인구의 비율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을 뿐만아니라, 동시에 한국의 농촌, 특히 면부지역에서 학령인구의 감소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면부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령인구의 감소는 고등학교나 대학보다는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령인구가 더 많이, 그리고 더 빨리 줄고 있다.

주요 출산연령층인 여자 25-34세 인구 구성비의 군별 분포는 전체적으로 하향이동하고 있고 각 군간의 격차는 심화되고 있어 장래 출산율 수준의 군별 격차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7) 통상 한국인의 초혼연령은 남녀 모두 농촌보다는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초혼연령이 더 높았다. 그러나 남자의 경우 도시와 농촌간에서 관찰되던 초혼연령의 이러한 차별현상은 1980년을 기점으로 역전되었다. 이와같은 현상은 많은 적령기 농촌여자의 도시로의 이동에서 비롯되었고 최근 농촌남자의 결혼이 쉽지

않다는 사회적 추세와도 관련이 있다. 이와같은 추이는 연령별 유배우율의 변화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각 군 혼인적령기 인구(20-34세)의 성비는 100미만에서 160이상까지 그 격차가 매우 크다. 그리고 성비 130이상인 군이 50%를 넘으므로 적령기 남초현상의 심각성을 실감케 한다. 적령기 성비는 적으나마 더 낮은 수준에 집중해가는 추세인 것으로 보이므로 장래에는 다소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8) 면부지역을 중심으로 관찰한 농촌인구의 교육수준이 최근 높은 수준에서 비교적 동질성을 나타내고 있다. 30-34세 인구만을 보았을 때, 1975년의 경우만 해도 농촌인구는 초등학교 교육만을 받은 사람이 절대적으로 많았으며(남자 51.7%; 여자 70.5%),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교육을 받은 인구는 남자의 경우 19.5%, 여자의 경우는 불과 4.1%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1995년에는 고졸이상의 높은 교육수준을 가진 인구의 비율이 남녀 모두 크게 증가했다(남자 76.2%, 여자 63.4%). 농촌인구의 이와같은 고학력인구 비율의 증가는 시부에서 전입하는 인구의 높은 학력수준의 영향도 크다. 인구이동이 군부인구의 대학이상 교육자의 구성비에 미치는 영향은 5년간에 구성비를 10%정도 높이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 인구구조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면부지역인구의 경제활동 지표는 표면상 큰 변화를 보여주지 않는다. 특히 이와 같은 경향은 남자의 경우 두드러진 현상이다. 그러나 여자의 경우는 남자와 비교하여 아주 다른 변화의 유형을 나타낸다. 1975년이래 지난 20년간 면부여자 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취업자의 구성비율은 큰 차이가 없으나 취업상태는 크게 달라졌다. 즉 전업으로 일을 하는 여성의 비율이 크게 줄고 가사 또는 통학하면서 틈틈히 일하는 여자의 비율이 크게 늘고 있다. 이와같은 일련의 변화는 농촌지역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0) 농촌 취업자의 산업별 업종이 성별과는 관계없이 최근에 크게 다양화되고 있다. 다시말해서 종래 농어업 일변도였던 산업별 취업구조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우선 남자의 경우 1975년에 80.2%를 차지하고 있던 농어업 종사자의 비율이 1995년에는 급격히 감소하여 51.7%로 줄었으며, 여자의 경우도 종래의 87.4%로부터 64.2%로 크게 감소하였다. 대신에 남자의 경우, 제조업(15.0%), 도소매업 및 숙박업(11.4%), 건설업(7.3%) 등 도시적인 산업에 종사하는 취업자의 비율이 크게 늘고 있다. 여자의 경우 도·소매·숙박업(15.3%), 제조업(9.4%), 사회 및 개

인서비스업(6.6%) 순으로 1975년에 비해 취업선이 더 다양해지는 추세에 있다.

노동력인구 1000명당 광공업 취업자의 수는 그 분포의 모양은 다소 집중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지만 군별로 5명 미만에서 400이상까지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11) 면부인구의 종사상의 지위도 최근 크게 변화하고 있다. 1995년 센서스의 경우를 보면 남녀 모두, 1975년에 비해, 무급가족노동에 종사하는 인구의 비율이 크게 주는 대신 피고용자, 종업원이 없는 영세자영업자의 비율은 크게 증가한다. 현재 농촌에 살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종전과는 달리 자기 노동력을 통해서 농사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농사를 짓고 있으며, 남에게 고용되어 농사일을 하거나 남을 고용하여 농사를 짓는 사람이 최근 크게 줄고 있다.

(12) 군 인구의 성장수준을 판별하는 데 유의한 변수는 거주지 물리적 조건 중에서 고속도로와의 접속여부(고속도로가 군의 경계내를 통과하는가?)와 농지면적, 행정 및 의료서비스 중에서 정부기관수와 인구 10,000명당 공무원수, 인구 10,000명당 의약품 판매업소수, 교육문화 변수중 30-34세 인구중 고졸이상의 구성비, 경제관련 변수 중 농가인구 10,000명당 경운정지용 기계수, 노동력 인구 1,000명당 광공업 종업원수, 인구변수중 20-24세 및 25-29세 인구의 성비등 10개 변수였다. 이중 판별에 가장 기여가 큰 단일변수로는 20-24세 인구의 성비였다.

농촌의 가구구성과 가족생활에서도 많은 변화를 볼 수 있었다. 그 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현상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1960년이래 농촌의 평균가구원수가 격감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수가 도시보다 더 적어졌다. 전통적으로 농촌가구는 도시와는 달리 가구원수가 많은 것이 주요한 특성의 하나였다. 그러나 이와같은 특성은 1990년을 기점으로 역전되기 시작하여 도시의 평균 가구원수가 더 많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 농촌가구의 평균 가구원수의 감소는 1인가구가 최근 급격하게 늘고 있는 것이 주요한 원인의 하나로 간주된다. 면부에서 크게 늘고 있는 1인가구의 증가는 시부의 경우와는 달리 고령으로 인한 사별이 주 원인이 되고 있으며, 여성가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1인가구의 증가는 농촌에서 가족해체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

각 군 1인가구의 비율은 10%미만에서 22%이상까지 군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특성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전체분포의 모양은 상향이동하고 있음과 동시에 중심으로 집중하는 경향도 보여 장래에는 20%에 가까운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균간에 동질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3) 가족구성면에서 농촌가구는 아직도 2세대가족이 주류를 형성하고는 있으나 1세대가족의 비율이 최근 크게 늘고 있으며, 그 대부분은 55세이상 고령의 부부가족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이와같은 일련의 결과는 많은 수의 농촌가족은 형태면에서는 핵가족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나, 대부분 자녀가 성장하여 농촌을 떠난후 형성되는 1세대 가족이라는 점에서 도시가족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농촌가구에서는 여성가구주의 비율이 크게 늘고 있다.

(4) 이와같은 가구 및 가족구성의 변화는 가구주의 직업구성에서도 그대로 반영된다. 즉 대부분의 농촌가구주는 급속하게 고령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추세는 가구주의 취업형태도 종전과는 달리 탈농업적 산업과 직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높여주는데 어느정도 기여하고 있다.

이상의 제 결과를 종합해 보면 1960년이래 우리 사회가 빠른 속도로 도시화, 산업화되고, 동시에 인구변천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농촌의 인구는 비교적 단기간에 노령인구를 주축으로 하는 인구구조로 변모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즉 농촌의 인구는 55세이상의 고령인구의 높은 구성비율과 가임여성인구의 절대수 감소에 따른 유소년 인구의 구성비율이 떨어짐에 따라 농촌의 인구는 급격하게 노령화되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젊은 인구의 도시이주로 인한 가구분화현상도 농촌인구의 노령화추세를 한층 더 촉진시키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같은 인구구조의 변화는 다시 종래와는 다른 형태로 농촌생활을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시말해서 한국에서 전형적인 농촌인구로 간주되는 면부인구는 급격하게 탈농업적 취업구조로 변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고용구조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농촌의 인구와 가족구조의 주요한 변화중 가장 관심사가 되는 특성은 농촌인구의 노령화, 1인가구 및 비혈연가구의 증가, 고연령층의 사별한 여성가구주의 비율증대 등이다. 이들은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도시·농촌간의 인구이동에 의해 인구구성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농촌의 인구, 사회, 경제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농촌의 노인가구가 특별히 관심사가 되는 것은 이들이 대부분 농촌지역에서 생활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등 여러 가지 사회적 서비스를 받아야할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집단이기 때문이

다. 동시에 이들 가구는 노동력이 취약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농업을 자영하고 있는 가구라는 사실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중요한 결과의 하나는 각 지역단위(군) 인구구조상의 격차가 매우 크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군부나 면부의 총괄분석을 통해 알려진 농촌문제보다 각 지역단위별로 분석할 때 알 수 있는 농촌문제가 훨씬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농촌을 위한 정책수립과정에서 지역단위별로 특수성이 고려될 수 있어야 함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1995년의 통합시 등의 대규모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센서스 자료 분석에 막대한 어려움과 제한이 있었다. 특히 센서스에서 전통적으로 구·시·군 이동만을 인구이동으로 파악하고 있어 인구이동의 추세변동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고, 과거 농촌으로 분류되던 읍부의 성격이 도시에 더 가까운 특성을 갖게 됨에 따라 군을 단위로 한 이동인구 파악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소를 위해 센서스의 5년전 거주지 조사에 동·읍·면까지 조사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또한, 1995년 인구 및 주택센서스자료를 이용한 가구 및 가족분석은 불가피하게 가구 및 가족의 구성과 형태의 분석에만 한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자료의 제약이 가장 주된 이유가 된다. 1995년 인구 및 주택센서스에서는 종전과는 달리 초혼연령과 자녀출산과 관련된 조사항목이 제외되었다. 정확한 경위는 알 수 없으나 아마도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출산력의 억제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제외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초혼연령과 자녀출산항목은 비단 출산력분석을 위해서만 필요한 조사항목이 아니라 가족분석을 위해서도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조사항목이다. 특히 초혼연령에 관한 항목은 우리나라처럼 혼인 신고통계의 정확성을 검증하는데도 반드시 필요한 조사항목이 된다. 따라서 종전부터 주요한 조사항목으로 조사되던 항목을 센서스에서 제외하는 데는 보다 많은 이용자의 의견수렴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8. 참고문헌

- 김남일(1997), 「최근 인구이동의 추세변동」, 미발간
- 김유경(1990), “결혼율 및 초혼연령의 변동과 전망”, 『우리나라 인구변동의 분석』,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태현·홍문식·장영식(1993), 「한국의 인구규모와 구조」, 서울: 통계청
- 권태환(1992), “인구변동과 농촌사회의 변화”, 『농촌사회』 2: 39~56.
- \_\_\_\_\_·박영진(1993), 「한국인의 가구 및 가족유형」, pp. 15-16, 서울: 통계청
- \_\_\_\_\_·장경섭(1995), “한국 가족농 재생산체계의 위기”, 『한국인구학회지』 18(1): 1
- 이해영·권태환(1968), “한국가족형태에 관한 연구”, 『동아문화』 8집
- 윤근섭·송정기 (1994), “과소지역의 형성과 구조 특성에 관한 연구”, 『농촌사회』 4집
- 최진호·최병선(1993), 「지역간 인구 불균형 분포의 원인과 결과」, 서울: 통계청
- 최 순(1983), “연령별 초혼율의 측정 및 도시-농촌간 초혼율의 차이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집』 1집, 동아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_\_\_\_\_ (1985), “한국의 인구와 인구변동; 변동유형과 현재의 Status” 『한국사회학』 19호: 3-35, 한국사회학회
- Goode. W. J. (1964) 『The Family』, New York: Prentice-Hall
- Kim, Nam-II · Soon Choi · Insook Han Park. (1994), "Rural Family and Community Life in South Korea: Changes in Family Attitudes and Living Arrangements for the Elderly." In *Traditional and Change in the Asian Family*. pp. 273-318. edited by Lee-Jay Cho and Moto Yada, Honolulu: East-West Center.
- U.N. (1970) 『Method of Measuring Internal Migration』, Maual VI, New York

## <부 록>

<부록표 1> 시·도내 구시군간 이동인구

(단위: 천명)

| 시·도 | 기 간     |         |         |         |         |         |
|-----|---------|---------|---------|---------|---------|---------|
|     | 1965-70 | 1970-75 | 1975-80 | 1980-85 | 1985-90 | 1990-95 |
| 전국  | 1,919   | 2362    | 3,879   | 3,656   | 4,380   | 4,396   |
| 서울  | 634     | 932     | 1,621   | 1,527   | 1,759   | 1,438   |
| 부산  | 111     | 186     | 378     | 376     | 451     | 522     |
| 대구  | -       | -       | -       | 231     | 310     | 387     |
| 인천  | -       | -       | -       | 71      | 156     | 306     |
| 광주  | -       | -       | -       | -       | 85      | 136     |
| 대전  | -       | -       | -       | -       | 88      | 176     |
| 경기  | 147     | 196     | 306     | 243     | 453     | 622     |
| 강원  | 108     | 98      | 109     | 110     | 114     | 92      |
| 충북  | 55      | 61      | 64      | 78      | 88      | 68      |
| 충남  | 98      | 101     | 144     | 158     | 73      | 55      |
| 전북  | 110     | 104     | 112     | 133     | 152     | 109     |
| 전남  | 201     | 183     | 271     | 308     | 112     | 96      |
| 경북  | 315     | 343     | 649     | 158     | 184     | 112     |
| 경남  | 128     | 146     | 210     | 238     | 329     | 252     |
| 제주  | 12      | 12      | 15      | 25      | 26      | 25      |

<부록표 2> 시·도간 이동인구

(단위: 천명)

| 시·도 |     | 기       |         |         | 간       |         |         |
|-----|-----|---------|---------|---------|---------|---------|---------|
|     |     | 1965-70 | 1970-75 | 1975-80 | 1980-85 | 1985-90 | 1990-95 |
| 전국  | 전입  | 2,477   | 2,848   | 3,779   | 4,746   | 5,492   | 5,785   |
|     | 전출  | 2,458   | 2,789   | 3,739   | 4,692   | 5,439   | 5,688   |
|     | 순이동 | -180    | 59      | 100     | 36      | 54      | 97      |
| 서울  | 전입  | 1,191   | 1,094   | 1,255   | 1,366   | 1,333   | 1,049   |
|     | 전출  | 248     | 524     | 753     | 1,081   | 1,377   | 1,928   |
|     | 순이동 | 743     | 570     | 502     | 285     | -43     | -879    |
| 부산  | 전입  | 309     | 379     | 539     | 426     | 373     | 233     |
|     | 전출  | 127     | 169     | 221     | 332     | 348     | 460     |
|     | 순이동 | 183     | 210     | 318     | 94      | 25      | -227    |
| 대구  | 전입  | -       | -       | -       | 332     | 293     | 248     |
|     | 전출  | -       | -       | -       | 185     | 214     | 226     |
|     | 순이동 | -       | -       | -       | 147     | 79      | 22      |
| 인천  | 전입  | -       | -       | -       | 325     | 413     | 441     |
|     | 전출  | -       | -       | -       | 136     | 174     | 236     |
|     | 순이동 | -       | -       | -       | 189     | 239     | 205     |
| 광주  | 전입  | -       | -       | -       | -       | 186     | 189     |
|     | 전출  | -       | -       | -       | -       | 122     | 129     |
|     | 순이동 | -       | -       | -       | -       | 64      | 60      |
| 대전  | 전입  | -       | -       | -       | -       | 199     | 264     |
|     | 전출  | -       | -       | -       | -       | 97      | 100     |
|     | 순이동 | -       | -       | -       | -       | 102     | 164     |
| 경기  | 전입  | 346     | 595     | 905     | 1,098   | 1,458   | 1,921   |
|     | 전출  | 321     | 332     | 437     | 524     | 727     | 754     |
|     | 순이동 | 25      | 263     | 468     | 556     | 731     | 1,167   |
| 강원  | 전입  | 104     | 86      | 105     | 126     | 124     | 142     |
|     | 전출  | 185     | 195     | 275     | 267     | 299     | 240     |
|     | 순이동 | -81     | -109    | -170    | -141    | -175    | -98     |

<부록표 2>(계속) 시·도간 이동인구

(단위: 천명)

| 시·도 |     | 기 간     |         |         |         |         |         |
|-----|-----|---------|---------|---------|---------|---------|---------|
|     |     | 1965-70 | 1970-75 | 1975-80 | 1980-85 | 1985-90 | 1990-95 |
| 충북  | 전입  | 56      | 69      | 73      | 104     | 121     | 166     |
|     | 전출  | 164     | 148     | 208     | 204     | 190     | 151     |
|     | 순이동 | -108    | -79     | -135    | -100    | -69     | 15      |
| 충남  | 전입  | 99      | 123     | 166     | 188     | 136     | 184     |
|     | 전출  | 308     | 281     | 332     | 349     | 326     | 256     |
|     | 순이동 | -209    | -158    | -106    | -161    | -190    | -72     |
| 전북  | 전입  | 55      | 66      | 66      | 86      | 82      | 117     |
|     | 전출  | 206     | 199     | 274     | 274     | 268     | 204     |
|     | 순이동 | -151    | -133    | -208    | -188    | -186    | -87     |
| 전남  | 전입  | 58      | 66      | 89      | 128     | 140     | 136     |
|     | 전출  | 278     | 318     | 429     | 425     | 438     | 330     |
|     | 순이동 | -220    | -252    | -340    | -297    | -298    | -194    |
| 경북  | 전입  | 145     | 202     | 264     | 204     | 245     | 259     |
|     | 전출  | 302     | 293     | 400     | 509     | 454     | 330     |
|     | 순이동 | -157    | -91     | -136    | -305    | -209    | -71     |
| 경남  | 전입  | 99      | 148     | 296     | 338     | 360     | 404     |
|     | 전출  | 307     | 296     | 385     | 374     | 372     | 314     |
|     | 순이동 | -208    | -148    | -89     | -36     | -12     | 90      |
| 제주  | 전입  | 15      | 20      | 21      | 25      | 29      | 32      |
|     | 전출  | 12      | 34      | 25      | 32      | 33      | 30      |
|     | 순이동 | 3       | -14     | -4      | -7      | -4      | 2       |